

# T&I REVIEW

2023 Vol.13(2)



# T&I REVIEW

2023 Vol.13(2)

## **Publisher**

Moonsun Choi (Director, ERITS)

## **Editor-in-Chief**

Moonsun Choi (GSTI, Ewha Womans University)

## **Co-Editor**

Aili Chang (GSTI, Ewha Womans University)

## **Editorial Board**

Christina Schäffner (Aston University, UK), Eva 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of China),  
Ludmila Ster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Mary Snell-Hornby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Christine J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Jisun Shin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uriae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iun Huh (GSTI, Ewha Womans University),  
Eunsim Kwak (Kyonggi University), Soo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Dohun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ung-Hye Mah (Dongguk University),  
Raean Lee (GSTI, Jeju National University), Junho Lee (GSIS, Chung-Ang University),  
Jimin Lee (Keimyung University), Na-Young Je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Joon-Hyung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kook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lhee Jin (GSIS, Chung-Ang University), Kyunghee Choi (Pyeongtaek University),  
Eunsil Cho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ungmin Hong (Dongguk University)

## **발행인**

최문선 통역번역연구소장

## **편집장**

최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부편집장**

장애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편집위원**

### **해외:**

Christina Schäffner (Aston University, UK)  
Eva 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of China)  
Ludmila Ster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Mary Snell-Hornby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Christine J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 **국내:**

신지선(이화여대) 이주리에(이화여대) 허지운(이화여대)  
곽은실(경기대) 김도훈(부산외대) 김순영(동국대) 마승혜(동국대)  
이예안(제주대) 이준호(중앙대) 이지민(계명대) 정나영(국립공주대)  
조준형(경상국립대) 주진국(충남대) 진실희(중앙대) 최경희(평택대) 최은실(부산외대) 홍정민(동국대)

# Contents (차례)

<b>1. 강경이</b> .....	<b>7</b>
한식 레시피북 중국어 출간 번역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고찰	
<b>2. 유정주</b> .....	<b>31</b>
제도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고찰 - 입찰명세서 분석을 중심으로 -	
<b>3. 이상빈</b> .....	<b>65</b>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비동기식 음성해설 - 넷플릭스 상영 영화 사례 분석 -	
<b>4. 전은정</b> .....	<b>85</b>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 소설 『こゝろ』와 번역본을 중심으로 -	
<b>5. 전현주</b> .....	<b>107</b>
다국어 『조선왕조실록』번역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 모색 -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	

**PhD Thesis Abstract**

**임진(Jin Yim)** ..... 133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 세 번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 141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 147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 155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 160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 166

**Guidelines for Contributors** ..... 169

**Referencing Style** ..... 171



## 한식 레시피북 중국어 출간 번역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고찰

강경이\*

**Kyoungyi Kang (2023). A Study on information asymmetry in Chinese translations of Korean food recipe books.** *Recipe books are one of the most standardized types of text, in which the various components of cooking procedures are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structured. As such, the reproduction of 'informativity' to accurately transmit the content of ST is the key to translating recipe books, and translators should play the role of information mediator to reproduce the ST's informativity as closely as possible. However, a review of examples reveals a case of information asymmetry where key information is omitted or insufficiently transmitted, failing to meet the demand of TT read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ese translations of Korean food recipe books published in China to identify and categorize information asymmetry in term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mediation to present alternatives to help TT readers better understand the inform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Korean food, recipe books, recipe translation, information asymmetry, text type

**주제어:** 한식, 레시피북, 요리번역, 정보 비대칭성, 텍스트 장르

### 1. 서론

최근 'K-푸드'라고도 불리는 한식은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의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49.4%)와 브랜드 파워 지수(67.6점) 부문에서 뷰티, 음악, 영화, 패션

---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제1저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문화 상징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한류 콘텐츠 이용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경험 빈도와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한식에 대한 글로벌 호감도 역시 상승하는 추세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인기가 작품 속에 등장한 ‘달고나’, ‘짜파구리’ 등 한국 음식에 대한 연쇄적인 관심으로 이어진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이렇듯 이제 한식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한식이 이미 상당 부분 보편화되어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한식 노출도나 한식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식진흥원이 외국인들의 한식 소비 행태와 트렌드를 분석해 2022년에 발표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국 북경과 상해 지역 내 한식의 경쟁력 지수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식 인지도(상해 81.2%, 북경 82.6%)와 호감도(상해 87%, 북경 84.8%), 만족도(상해 93.2%, 북경 91.5%) 면에서도 전체 평균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한식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나면 단순 경험이나 외식 소비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로도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새로운 음식을 배우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레시피북이나 레시피 영상이다. 레시피는 요리를 처음 시도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 배합 및 조리법, 해당 음식 관련 부차적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텍스트이다. 최근 한식에 대한 대외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미 출판서적이나 인터넷, SNS 동영상 등을 통해 한식 레시피 정보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시중에 정식 출간된 한식 레시피 중국어 번역 서적들을 중점 분석 대상으로 하되 한식과 조리법에 관한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정보 비대칭성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보 중재 및 소통적 등가 차원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김희기 외(2014)는 한류 영상매체가 한식 이미지와 한식 호감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드라마, 영화, 한류 스타 등을 활용한 한식 홍보를 적극 제안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레시피북의 장르적 특성

요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레시피북은 요리명, 요리 이미지, 재료, 조리 절차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비교적 전형적 패턴의 텍스트 장르다.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요리들이 소개되며,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음식 명칭, 식재료, 조리 기술, 조리 절차, 조리 도구 활용법, 조리 효율성 제고나 풍미 향상을 위한 별도의 팁과 노하우, 재료나 음식의 식감, 맛, 향, 물성 등 요리 과정 제반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레시피북들의 기획 의도들을 대략 살펴봐도 레시피북은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를 비롯해 직접 요리를 시도하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명확한 수요자들을 기대 독자층으로 설정하여 요리 절차에 관한 다방면의 정보들을 자세히 짚어주는 구성으로 제작된다.

- “책의 앞부분에는 집에 갖춰두면 좋은 기본양념과 조리도구, 재료 쓰는 법, 계량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 책 한편만 있으면 요리 초보도 일주일만에 만원으로 꾸민 한상을 차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
- “이 모든 레시피는 처음 요리를 시작하는 초보도 따라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수차례 테스트해 레시피, 분량, 불 세기, 조리 시간, 저장 기간까지 정확하게 제시했지요.” (출처: <진짜 기본 요리책>)
-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요리 108개가 담긴 이 책은 음식 레시피 외에 SNS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집밥 질문, 알뜰 장보기 노하우, 남은 재료 활용법, 요리 속도 올리는 치트키 음식, 냉동 보관 노하우까지 집밥에 필요한 모든 포인트를 꼼꼼히 담고 있다. ‘외식비 ZERO’에 도전하는 알뜰족은 물론, 늦은 퇴근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 요리하는 게 무서운 사람, 반복되는 뻘한 식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요리책이 될 것이다.”

(출처: <하루 5,000원 집밥 만능 레시피북>)

이처럼 기대 독자와 제작 의도가 확실한 유형의 텍스트는 다른 언어로 번역 출간 시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당 텍스트가 활용되는 환경과 출

받아 지식 없이 온전히 번역어 지시문에만 의존하며 따라해야 하는 독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번역가는 레시피북 번역서가 출발어 문화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도착어 문화권 텍스트 사용자들의 수용 기대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재가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시피북’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장르적, 관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텍스트 유형’이란 특정 의사소통적 요구에 따라 언어자료들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구현되는 텍스트 틀 또는 짜임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브링커(Brinker 1985)는 제보 텍스트, 호소 텍스트, 책무 텍스트, 접촉 텍스트, 선언 텍스트 다섯 가지를 제시했고(이성만 2004에서 재인용), 하티姆과 메이슨(Hatim, Mason 1990)은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 논증적 텍스트(argumentative text), 지시적 텍스트(instructional text)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이후 텍스트 유형과 번역방법론을 결부시킨 라이스(2000)는 텍스트의 유형을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 작용적 텍스트(operative text),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로 분류하였고, 추후 미디어 텍스트(audiomedial text)를 추가했다. 이 중 본고에서 분석하려는 유형인 레시피북은 음식 조리 과정과 연관된 제반 정보를 사실적으로 기술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정보적’, ‘설명적’ 텍스트 유형에 속한다.

권이은(2015)에 따르면 내용 구성적 측면에서 정보적 텍스트는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반복적으로 다룬다. 또한 어떤 것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그것의 특징적 행위를 기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비교/대조, 문제/해결, 원인/결과 형태의 텍스트 구조나 정의, 분류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복합양식적 측면으로는 지면 구성 시 실제적인 그림이나 사진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다이어그램, 표, 차트와 같은 그래픽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며, 찾아보기, 쪽번호, 머리글 등과 같은 각종 탐색 지원 요소를 사용한다(권이은 2015: 26-30).

이러한 정보적 텍스트의 하위 범주로서 레시피북 장르는 음식 정보와 조리 과정을 다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요리 절차를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담화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넵과 왓킨스(Knapp, Watkins 2019)에 의하면 요리법 텍스트는 과제의 목적이 표제어로 등장하고 과제 완수를 위해 요구되는 요소나 재료들이 사용 순서에 따라 제시되며 단계별로 목적이 달성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요리법 텍스트는 조리 방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독자에게 알려주고 지시하는 전형적인 절차 지시 텍스트 장르로서 표제담화, 재료담화, 절차담화,

팁담화로 구성되어 있다(박나리 2012). 더불어 요리를 주제로 다루므로 전문 조리 용어는 물론 영양학, 식품학, 조리학 등 분야에서 상용되는 어휘들이 등장하고, 독자들의 작업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단계별 예시 이미지나 도표, 부가설명 캡션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레시피북 장르의 특성을 내용 구성적 측면, 언어 특징적 측면, 복합양식성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정보적 텍스트 하위 유형인 레시피북 장르의 특성**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조리 절차나 요령 등 음식을 다루는 실제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시
	주제 제시	-주제 확정적 -음식 표제어 및 식재료 항목을 먼저 제시한 후 구체적 조리 방법을 단계별로 ‘지시화행’ 형태로 기술 -논리 체계가 아닌 시간 순서에 따라 담화 배열, 전개
	텍스트 담화 구성 요소	-표제담화 (음식 명칭) -개념담화 (음식 특징 소개, 영양 정보 등) -재료담화 (재료, 분량, 조리시간, 인분수 등) -절차담화 (단계별 조리 순서) -팁/부가정보담화 (예: 조리 원리, 레시피 응용방법, 더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 실수 방지팁, 재료 손질 및 보관법, 조리 시 주의할 점, 플레이팅 방법 등)
언어 특징	문체	-지시적, 기술적 문체, 추천/권고형 문체 -용건 중심의 간결한 문체 선호
	어휘	-조리학, 영양학, 식품학 분야 전문용어 등장 -요리도구, 조리동사, 감각 형용사(미각, 후각, 시각) 등 요리 맥락 어휘 상용
복합양식성	이미지 병행방식	-완성 음식 이미지, 단계별 작업 예시 이미지 병행 제시 -부차적 정보 설명을 위한 캡션, 도표 등 삽입

레시피북 장르는 다양한 요리 정보들이 유기적인 구조로 조직화되어 있으므로 타언어로 번역될 시에도 ‘정보성’ 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텍스트성의 일환인 ‘정보성’은 ‘텍스트 내용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청자에게 알려졌는지 여부와 관계되는 정도(김봉순 2002)’를 의미한다. 번역가는 출발어 텍스트의 정보성이 도착어 텍스트상에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또한 정보의 불균형 또는 비대

칭성으로 인한 독자의 인지적 소모가 커지지 않도록 정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라이스(Reiss 1976)는 정보적 텍스트 번역 시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의 정보가 동일한 ‘내용 불변성’에 등가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식적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우선시하되 필요에 따라 명시화 전략을 사용하거나 도착어 텍스트 문화의 지배적 규범에 따라 조정을 가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박여성 2013에서 재인용: 164). 즉, 번역가는 번역과정에서 정보성의 정도를 균형있게 맞춰가며 “도착어 사용자가 출발어 원문에 있던 것과 동일한 지식 콘텐츠를 도착어 텍스트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층을 생성”시켜야 한다(Neubert, Shreve 2013). 요컨대 레시피북 번역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에서 유기적인 흐름으로 배열된 정보들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구현해 냄으로써 도착어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정보를 습득해 지시에 따라 순탄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나 관습상의 간극으로 인해 자칫 명확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적극 중재해 정보 전달의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레시피북 번역에서 출발어와 도착어 간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sup>2)</sup>으로 인한 문제 사례들을 점검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 비대칭성’은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도착어 텍스트를 사용하는 독자들의 과업 수행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현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한식 레시피북 장르의 중국어 번역서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기존 정보의 비대칭적 전환에 따른 번역 문제들을 도출 및 유형화하고, 정보성 재현과 독자 수용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2. 한식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는 한식의 중국어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진아(2010)의 연구는 정보적 텍스트에 해당하는 음식메뉴 텍스트가 도착어 독자들이 음식을 이해하고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며 한식 메뉴의 중국어 번역을 직역과 의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재료, 조리 방법, 도구, 형태, 소스, 부재료 등 사실적 정보가 담긴 음식 메뉴들은 직역을 선

---

2)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학에서 시장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량이 상이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뜻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연구자는 이를 번역의 출발어와 도착어 간 정보량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활용하고자 한다.

택하는 한편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음식의 주재료, 조리 방법, 형태, 도구 등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시각의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진아 2010). 김혜림(2012)은 한국과 중국 간 음식명의 번역 양태를 비교하며 한, 중 양방향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자국화 규범이 두드러지고 번역 전략의 채택에서 번역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김혜림 2012: 66-67).

또한 공공번역으로서의 한식명 번역 표준화 방안과 거시적 방향성을 제안하고 기존 한식명 번역의 현지 수용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김혜림 외(2016)에서는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음식명 중국어 번역의 특징을 다루면서 음식명의 현지 수용성 제고와 문화 고유성 유지를 위한 번역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김혜림 외 2014). 김진아 외(2018)는 ‘공공용어 번역 수용성 연구: 주요 한식명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연구에서 수용도가 낮은 한식명 번역안 대상으로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해당 연구는 문화기호의 접점이 적거나 없을수록 독자 수용도가 낮게 나타남을 재차 확인하며, 문화기호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한식명에 대해서는 의미 전달은 물론 두 언어권의 집단기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는 번역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아 외 2018: 72). 강경이, 장애리(2019)는 한식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의 한식명 중국어 번역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가장 공신력 있는 한식명 외국어 표기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두 기관의 번역안을 비교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번역 불일치 현상이 관찰되었다. 국립국어원 <한-중 학습사전>에 나타난 음식명 번역방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남향립(2022)은 문화소가 포함된 음식명의 경우 출발어의 의미와 고유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번역자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주관성 배제를 위해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어휘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사전 편찬 과정에서 번역자간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역자가 계열별로 검토하여 일관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식 번역을 주제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한식명 번역 전략, 공공용어로서의 한식 번역어 표준화 방향 제안, 번역어의 현지 수용성 연구, 국내 기관별 번역방안 차이 분석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식 명칭이나 메뉴 층위의 논의에서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한식 조리 과정을 다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이 표준화 지침

을 정해 보급하기 위한 공적 취지의 번역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착어권 현지 시장 혹은 민간의 차원에서 기존의 한식 관련 텍스트들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식에 관한 연구 범주를 좀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한식명을 포함 조리과정과 관련 제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실려 있는 ‘레시피북’ 장르에 집중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 현지 출판사에서 직접 번역해 시중에 출간한 주요 한식 레시피북의 중국어 번역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3. 한식 레시피북 중국어 번역의 정보 비대칭 문제 분석

#### 3.1. 연구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레시피북 번역은 출발어 정보의 균형적 재현과 정확한 소통을 위한 번역가의 중재가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비교적 최근에 번역 출간된 한식 레시피북 번역서 4권을 선별하여 해당 한국어 원본과 비교 대조하며 텍스트 장르 특성상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정보성 재현의 측면에서 노정된 번역 문제들을 도출해 보았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4천만이 검색한 오늘의 요리』, 『채식이 맛있어지는 우리집 사찰음식』, 『진짜 기본 요리책』 등 한국어 레시피북 4권과 해당 서적의 중국어 번역서 4권이다.

표 2. 분석 텍스트

한국어 원본		중국어 번역본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백종원, 서울문화사 (2014)	ST1 (백)	TT1	《我爱韩餐》 北京科学技术出版社, 2016
『4천만이 검색한 오늘의 요리』 이혜영, 중앙북스 (2010)	ST2 (이)	TT2	《最爱韩国菜Top100》 古吴轩出版社, 2015
『채식이 맛있어지는 우리집 사찰음식』 정재덕, 레시피팩토리 (2013)	ST3 (정)	TT3	《我爱素食》 北京科学技术出版社, 2015
『진짜 기본 요리책』 수퍼레시피, 레시피팩토리 (2013)	ST4 (수)	TT4	《绝不失手的基础料理: 韩国国民食谱书》 贵州人民出版社, 2020

표 2에 제시된 텍스트들을 분석한 결과 출발어와 도착어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은 ‘정보 비일관성 문제’, ‘정보 불충분성 문제’, ‘정보 불일치성 문제’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3.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의 번역 문제점 유형**

문제 층위	세부 유형
정보 비일관성 문제	1) 음식명 표기 일관성 결여
	2) 식재료 표기 일관성 결여
정보 불충분성 문제	3) 조리 절차 축소
	4) 조리 방식 비명시화
정보 불일치성 문제	5) 조리법 정보 불일치
	6) 물성 변화 정보 불일치
	7) 미각 정보 불일치

첫째, ‘정보 비일관성’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번역어가 번역서마다 혹은 동일 번역서 내에서 통일되지 않아 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는 음식명 표기나 식재료명 표기 등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둘째, ‘정보 불충분성’은 결정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의 구체성과 변별성이 부족하여 음식 특성 및 조리 과정을 이해하는데 인지적 소모를 가중할 여지가 있는 문제 유형이다. 이는 조리 과정상의 일부 단계를 축소하거나 조리 동작을 비명시적 혹은 중의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 불일치성’이란 출발어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사용자의 과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번역 오류로 인해 유발된 정보 비대칭 현상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조리 동작을 부정확하게 옮긴 ‘조리법 정보 불일치’, 재료나 음식의 물리적 상태를 잘못 묘사한 ‘물성 변화 정보 불일치’, 음식의 맛 표현이 부정확한 ‘미각 정보 불일치’ 등의 세부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다음 3.2 장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정보 비대칭 문제 유형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 사례 분석 결과

### 3.2.1. 정보 비일관성 문제

#### 1) 음식명 표기 일관성 결여

대표성 있는 한식 명칭의 중국어 번역안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국내 공공기관들이 이미 외국어 표기 표준화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고, 이는 국내에서 한식명이나 메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상황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다만 기관 간에도 번역 제안 방향에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 당초 한식의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용도<sup>3)</sup>로 제작, 활용되었기 때문에 중국 현지까지 영향력이 파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는 ‘떡볶이’, ‘돌솥비빔밥’, ‘김밥’ 등과 같이 사용빈도나 인지도가 높아 중국어 번역어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한식명 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의점은 부재한 상황으로 번역자(혹은 텍스트/콘텐츠 제작자) 개인의 의사결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레시피북에서도 동일한 음식명의 중국어 번역이 통일되지 않고 번역서마다 다르게 제시되는 정보 비대칭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표 4. 음식명 표기 일관성 결여 사례

음식명	ST1 (백)	ST2 (이)	ST3 (정)	ST4 (수)
잡채	杂菜	粉条	杂菜	什锦粉条
육개장	辣牛肉汤	辣牛肉粉丝汤	牛肉汤	辣牛肉汤
불고기	韩式炒牛肉	烤肉	×	炒牛肉
수제비	×	年糕汤	片儿汤	面片汤
콩국수	×	凉豆面	豆浆面	豆浆面
~조림류	炖~	酱~	酱~	酱~ ; 炖~
~장이찌류	×	腌~	酱~	~~酱菜

우선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불이를 잘게 썰어 볶은 것에 삶은 당면을 넣고 버무린 음식’으로 해당 번역어를 살펴보면 ‘杂菜’, ‘粉条’, ‘什锦粉条’와 같이

3) 한국관광공사 ‘한식 외국어 번역 표기 편람’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음식점 업주 및 유관 업체 등에서 외국어 관광 홍보물, 안내문, 음식 메뉴판 등을 제작할 시 한식의 외국어 표기법과 번역 기준을 제시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음식메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하거나 ‘당면’이라는 재료만을 제시하는 등 표기법이 일정하지 않다. ‘육개장’의 번역어인 ‘辣牛肉汤’, ‘辣牛肉粉丝汤’, ‘牛肉汤’도 단순히 ‘소고기탕(牛肉汤)’으로만 표기하거나 ‘牛肉汤’에 맵기를 덧붙이거나 맵기와 다른 재료도 병기하는 등 제각각이었으며, ‘불고기’도 재료 앞에 ‘烤’를 붙이거나 ‘炒’를 붙이기도 하는 등 표기 방식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나 한식진흥원이 제안한 ‘잡채’, ‘육개장’, ‘불고기’의 중국어 표준 번역안 ‘什锦;炒粉条’, ‘香辣牛肉汤’, ‘烤牛肉’ 등과도 차이가 난다. 즉, 국내 공공기관의 한식 번역 표준안이 실제 현지 시장까지는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도 번역서마다 상이한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밖에 수제비는 ‘年糕汤’, ‘片儿汤’, ‘面片汤’으로, 콩국수는 ‘凉豆面’ 혹은 ‘豆浆面’으로 번역어가 갈리고 있으며, 조림류나 장아찌류 음식명의 중국어 표기도 번역자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림’은 특정 재료를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바득하게 끓여서 만든 음식인 반면 ‘장아찌’는 채소를 간장 혹은 소금물에 담가 절이거나 된장, 고추장 등에 박았다가 오래 시간 두고 숙성시켜 먹는 저장음식이다. 분석 텍스트에서는 ‘조림’을 ‘酱+재료명’ 혹은 ‘炖+재료명’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장아찌’는 ‘腌+재료명’, ‘酱+재료명’, ‘재료명+酱菜’로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심지어 ST3의 경우 조림류나 장아찌류 모두를 ‘酱+재료명’ 형태로 획일화하고 있어 명칭만 놓고 보면 음식 자체의 특성이나 조리 방법의 차이가 전혀 변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조림과 장아찌를 확실히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번역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조림의 경우 기본 조미료와 조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병기하여 ‘酱炖+재료명’으로 통일하고, 장아찌는 숙성 절차를 거친다는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酱腌+재료명’으로 통일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표기 제안인 ‘재료명+酱菜’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2) 식재료 표기 일관성 결여

음식 레시피북에는 사전에 준비해야할 재료들이 제시되는데, 쉽게 계량할 수 있도록 요리에 필요한 적정 분량이 단위 표기와 함께 기재된다. 때로는 대체 재료나 생략 가능 재료, 기호에 따른 가감 가능 여부 등 필요한 부가 정보가 병기되기도 한다. 이 같은 식재료 정보는 음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번역 시 정확하게 옮겨야 하지만 도착어 문화권에서 생소한 재료가거나 선호도 차이가 있는 재료의 경우 다음 표에 제시된 일부 사례와 같이 번역본 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

향이 있었다.

표 5. 식재료 명칭 표기 일관성 결여 사례

식재료명	ST1 (백)	ST2 (이)	ST3 (정)	ST4 (수)
소면	韩式面条	素面	龙须面	素面
미역	裙带菜	海带	裙带菜	海带
파리고추	杭椒	小尖椒	×	尖椒
국간장	韩式汤用酱油	韩式酱油	韩式汤用酱油	韩式酱油
청국장	×	臭酱	臭酱	清麴酱

‘소면’은 건면에 해당하는 국수면으로 1mm 전후 굵기의 가는 면을 일컫는다. 잔 치국수나 비빔국수 등 국수류 음식에 이러한 소면이 주로 활용되는데, 해당 재료를 지칭하는 중국어 번역어로는 ‘韩式面条’, ‘素面’, ‘龙须面’ 세 가지 사례가 관찰되었다. ‘韩式面条’는 면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인 ‘面条’에 ‘한국식’이라는 수식어를 더한 방식으로 면의 굵기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사용자들의 재료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素面’의 경우 중국에서는 식재료로서의 국수면을 의미한다기보다 밀면을 주재료로 하되 고기 없이 파, 생강 등 채소 고명만 얹어 깔끔하게 완성한 면 요리를 지칭한다. 한편 ‘龙须面’은 가늘고 긴 특성을 지닌 ‘소면’의 함의를 잘 드러내고 있어 정보 대칭 구현에 적합한 대응어라고 판단된다.

해조류인 ‘미역’의 번역어를 살펴보면 ‘裙带菜’, ‘海带’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사실 한국관광공사나 한식진흥원 표기안에서는 ‘海带’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海带’를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다시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소견으로는 정보 대칭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裙带菜’로 통일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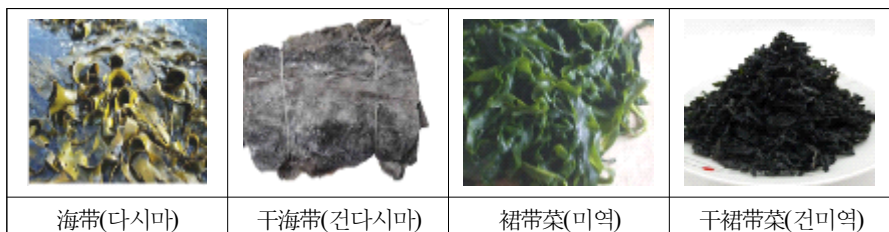


그림 1. 바이두 백과에서 검색한 ‘海带’, ‘裙带菜’ 이미지

(출처: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고추의 변이종으로 표면이 주글주글한 풋고추를 의미하는 ‘파리고추’도 여러 번역어가 혼재하는 사례다. 기존 번역안에서 채택한 ‘杭椒’, ‘小尖椒’, ‘尖椒’ 등은 우리가 풋고추를 연상시키는 어휘들이며 파리처럼 주글주글한 표면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한 ‘螺丝椒’를 대안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국간장, 청국장 등 한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 양념 재료들도 번역 표기 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국간장의 경우 ‘한국식 간장’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韩式酱油’보다는 ‘국요리 전용 간장’이라는 구체적 정보가 제시된 ‘韩式汤用酱油’가 더욱 적합해 보인다. 또한 삶은 콩을 뜨거운 방에 띄워서 발효시킨 된장인 ‘청국장’은 특유의 풍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악취를 강조하는 ‘臭酱’보다는 ‘발효균’이라는 단어로 해당 재료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유추할수 있는 ‘清麴酱’이 더 나은 번역안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식재료 명칭 번역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음식 재료 준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후속 조리 작업이 순탄하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른 요리가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액상 소스, 고추장, 된장, 불고기 양념, 찌개류 양념, 샐러드 소스 등 다양한 한국산 양념이나 소스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한식 조리를 시도하는 중국 현지 사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양념 제품의 공식 중국어 명칭과 레시피북에서 사용하는 명칭의 통일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2.2. 정보 불충분성 문제

#### 1) 조리절차 축소

대개 레시피북은 각 표제 음식의 조리 방법을 상세한 과정 컷과 함께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책자만 보고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전 작업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이 같은 전후 과정의 조건 설명이 번역문 상에 누락되거나 충분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사례 1]

ST2 (이): 북어를 먹기 좋게 찢어서 물에 살짝 헹궈 물기를 짰 다음 밑간 재료로

조물조물 무치세요.

TT2 (이): 将明太鱼撕成丝, 用水稍微浸泡一下, 再用调料拌好。(북어를 채 형태로 찢어서 물에 잠시 담갔다가 밀간 재료로 잘 무치세요.)

[사례 2]

ST2 (이): 낙지는 머리를 뒤집어 내장과 먹물을 빼낸 다음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바라바라 주물러 비린내를 없애고 미끈거림도 제거하세요.

TT2 (이): 章鱼去除内脏和污水, 用面粉和粗盐拌好去除腥味。(낙지는 내장과 먹물을 빼낸 다음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주물러 비린내를 없애세요.)

[사례 3]

ST2(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아욱의 숨이 죽을 때까지 15분간 더 끓이다가 대파와 홍고추,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 다음...

TT2 (이): 水开之后调成中火再煮15分钟, 最后放入大葱、红辣椒、蒜末等材料...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15분간 더 끓이다가 마지막에 대파, 홍고추, 다진 마늘을 넣고....)

[사례1]의 ‘물에 살짝 헹귀 물기를 짰 다음’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보면 ‘물기를 짰다’는 동작이 누락되고 ‘물에 잠시 담귀 둔다(用水稍微浸泡一下)’고만 기술되어 있다. 밀간 재료를 넣어 무치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북어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례2]와 [사례3]은 동작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식재료의 상태 정보가 번역문에 빠져 있다. [사례2]는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넣어 낙지의 비린내가 없어지고 미끈거림이 제거될 때까지 바라바라 주물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번역문에서는 ‘잘 주물러 비린내를 제거한다(拌好去除腥味)’로 단순화하고 있다. 한편 [사례3]은 ‘아욱의 숨이 죽을 때까지 15분간 더 끓이다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15분간 더 끓이고(再煮15分钟)’로 대폭 축소되었다.

레시피북에는 특정 행동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팥 껍질이 조금조금해질 때까지 천천히 삶는다’, ‘삼겹살이 하얗게 익고 기름이 배어나올 정도로 볶는다’, ‘쌀알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와 같이 재료의 변화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잘 따라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음식 조리 과정을 이행하고 습득해나가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조리 방식 비명시화

한선혜(2015)에 따르면 조리법 텍스트 맥락에서 부사어구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깨끗이 씻다’, ‘골고루 섞다’, ‘살살 버무리다’와 같이 행위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강조하는 부사는 생략 되어도 이해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한소끔 끓인다’, ‘은근히 끓인다’, ‘폭 끓인다’, ‘송송 썰다’, ‘얇게 썰다’ 등에서 쓰인 성상부사들은 동사 ‘끓이다’나 ‘썰다’의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 해당 동사의 진행 정도를 알려주는 부연 정보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부사들을 생각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일부분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한선혜 2015: 257). 따라서 조리동사<sup>4)</sup>와 공기하며 행위의 상태, 정도, 모양 등을 구체화하는 부사어들은 도착어 번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조리 과정에 있어 특정 행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담긴 성분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 텍스트를 확인한 결과 출발어에서 조리동사와 공기하며 강도나 상태를 명시화하는 부사(구)가 도착어에서는 희석되어 단순 조리동사로만 처리된 경우들이 관찰되었다.

표 6. ‘부사+조리동사’ 결합 형태의 비명시화 번역 사례

<p>바라바라 주무르다</p>	<p>[사례 4] ST2 (이): 도라지는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 바라바라 주물러 찬물에 여러 번 씻어서 쓴맛을 제거하고. TT2 (이): 桔梗放上少量粗盐搅拌均匀, 用凉水淘几遍去除苦味 (도라지는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 잘 섞고 찬물로 여러번 씻어서 쓴맛을 제거하고) [사례 5] ST2 (이): 낙지는 (...) 내장을 떼내고 눈과 빨판도 제거한 다음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라바라 주물러 행굽니다. TT2 (이): 章鱼(...)去除内脏和眼睛, 放入粗盐搅拌均匀. (낙지는... 내장과 눈을 제거한 다음 굵은 소금을 넣어 잘 섞습니다)</p>
<p>송송 썰다</p>	<p>[사례 6] ST2 (이): 송송 썬 김치를 넣고 달달 볶으세요. TT2 (이): 再加入切好的泡菜炒熟 (썰어낸 김치를 넣고 볶으세요)</p>

4) 김정남(2011)은 한국어의 요리 동사를 재료 손질, 절단, 반죽, 모양 만들기 등 요리 준비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저장 식품 제조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재료 혼합 및 가미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익힘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등 의미군별로 상세히 구분하였다.

돌려 깎다	[사례 7] ST3 (정): <u>대추는 돌려 깎아</u> 씨를 제거하고 가늘게 채썬다 TT3 (정): <u>枣切开, 去核, 切成细丝</u> (대추는 잘라서 씨를 제거하고 가늘게 채썬다)
-------	----------------------------------------------------------------------------------------------------------------

상기 표에 제시된 사례들은 부사와 조리동사가 결합된 형태의 표현들이 도착어에서 너무 획일적이거나 모호하게 전달되어 초보자들이 구체적 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들 수 있다. 일례로 [사례 4]과 [사례 5] ‘바라바라 주무르다’의 경우 모두 ‘잘 섞다/고루 혼합하다’는 의미의 ‘搅拌均匀’으로 번역되어 있다. 참고로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음식 재료와 양념을 섞는 과정을 기술하는 재료혼합형 동사들의 번역어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어에서는 ‘무치다’, ‘섞다’, ‘비비다’, ‘버무리다’, ‘젓다’, ‘치대다’, ‘주무르다’ 등 혼합 대상이나 강도,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동사가 세분화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인 ‘搅拌均匀’, ‘拌匀’, ‘搅拌均匀’ 등으로 옮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재료 손질 단계에서 사용된 ‘주무르다’나 ‘치대다’와 같은 동사는 소금이나 밀가루를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재료를 뒤섞는 단순 혼합 동작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사례 4], [사례 5]의 ‘바라바라 주무르다’는 ‘어떤 물건이나 재료를 손으로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만지는’ 동작을 일컫는 동사 ‘주무르다’와 가벼운 손놀림으로 조금씩 주무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바라바라’이 조합된 형태로 그 지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라지나 낙지에 굵은 소금을 넣어 손으로 강도있게 섞으며 이물을 헹궈낸다는 손질 동작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搅拌均匀(잘 섞는다)’로 대응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用手揉搓(손으로 주무르다)’, ‘用力揉捏(힘있게 주무르다)’, ‘反复搓洗(반복해서 문지르다)’ 등과 같이 해당 동작의 목적과 반복 빈도, 손놀림의 강도 등을 보다 명시화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례 6]과 [사례 7]의 경우 출발어에서는 ‘송송 썰다’, ‘돌려 깎다’와 같이 재료를 절단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번역문에서는 형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례 6]에서 ‘썰다’ 동사 앞에 사용된 ‘송송’은 ‘무언가를 조금 잘게 빨리 썰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로 재료를 어떤 형태로 절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출발어의 ‘송송 썬 김치’는 ‘切好的泡菜(썰어낸 김치)’로 다소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다. [사례 7]의 ‘대추를 돌려 깎아’는 대추의 겉면을 따라 칼을 살살 돌려가며 얇게 깎으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에서는 ‘枣切开(대추를 잘라)’로 단순화했다. 이 부분 역시 출발어의 정보량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재료 손질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송송 썬 김치’는 요리 종류에 따른 적정 크기를 감안하여 ‘切成小块的泡菜’, ‘切成细丁的泡菜’, ‘切成碎的泡菜’ 등으로, ‘대추를 돌려깎아’는 ‘枣沿着枣核切一圈’ 등으로 동작의 이미지가 쉽게 연상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레시피에는 요리 준비 단계에서 본격 조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 걸친 다양한 조리동사들이 등장하며, 특히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조리동사를 강조하고 구체화하는 부사들이 적극 활용된다. 이러한 부사들은 조리과정에서 요리의 완성도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번역 시 부사에 함의된 정보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레시피북에는 단계별로 이미지가 함께 제시되므로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가능하면 텍스트 상에도 원문에 제시된 정보의 함량을 구현하고 행위의 구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3. 정보 불일치성 문제

#### 1) 조리법 정보 불일치

다음은 조리방식에 대한 정보들이 부정확하게 전달되어 사용자의 과업 수행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 사례들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레시피북은 초보자들을 목표독자로 상정하므로 요리 실습에 필요한 절차적 정보들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중국어 텍스트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사용자들의 정보 이해에 혼선을 가중시킬 만한 번역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사례 8]

ST3 (정): 튀김옷 반죽에 연근과 두부를 넣고 반죽을 골고루 입힌다.

TT3 (정): 将藕和豆腐放入炸粉中, 均匀地裹上一层炸粉. (연근과 두부를 튀김가루에 놓고 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사례 9]

ST2 (이): 체에 쳐서 내린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섞고 멧을 없이 풀어서 밀전병 반죽을 만든 다음 달군 팬에 식용유를 살짝 바르고 약한 불에서 얇게 부치세요.

TT2 (이): 面粉先用滤网过滤一遍, 倒上水和盐和面, 再预热好的锅里洒上食用油,

在小火下煎出小圆饼。(밀가루는 먼저 체에 쳐서 한번 내리고 물과 소금을 부어 반죽을 만들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뿌려 약한 불에서 얇게 부치세요)

[사례 10]

ST1 (백): 김치는 속을 털고 국물을 꼭 짠 뒤 1-2cm 길이로 썰고

TT1 (백): 将泡菜去芯, 挤去水分, 切成1-2厘米长的片(김치는 심지를 제거하고, 물기를 짜서 1-2cm 길이로 썰고)

[사례 11]

ST2 (이): 주걱을 세워 밥알이 흩어지도록 볶으세요.

TT2 (이): 炒饭时小心使用炒菜铲, 避免饭粒溅出。(밥을 볶을 때는 조심스럽게 주걱을 사용해 밥알이 튀지 않도록 하세요)

[사례 8]과 [사례 9]는 밀가루에 물이나 우유 등의 액체를 섞어서 점탄성을 갖도록 하는 반죽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흔히 반죽은 반죽도 상태에 따라 ‘도우(dough)’, ‘페이스트(paste)’, ‘배터(batter)’로 구분된다. 도우는 손으로 치대어 탄력있고 단단하게 만든 반죽인 반면 배터는 보다 많은 양의 물을 섞어 묽고 걸쭉하며 유동성 있는 상태의 반죽을 말하며, 페이스트는 그 중간 형태를 지칭한다. 상기 사례에 언급되는 ‘튀김옷 반죽’이나 ‘밀전병 반죽’은 손으로 치대는 도우 형태가 아니라 흐름성 있는 농도의 배터 형태 반죽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사례 8]의 ‘튀김옷 반죽’은 ‘炸粉(튀김가루)’로, [사례 9]의 ‘밀전병 반죽’은 ‘和面(덩어리 형태의 도우 반죽)’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반죽의 농도와 형태에 관한 정보는 요리 완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묽은 농도의 반죽을 의미하는 ‘面糊’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사례 10]에서 ‘김치의 속을 털고’는 배추잎 속 켜켜이 있는 양념을 털어 낸다는 의미지만 실제 중국어 번역에서는 ‘배추의 심지를 제거한다(将泡菜去芯)’고 표현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의도에 배치되는 다른 동작을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泡菜去除叶片之间的佐料’, ‘泡菜抖掉佐料’ 등과 같이 원문의 정보를 정확히 구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11]의 ‘밥알이 흩어지도록 볶는다’도 뭉쳐있는 밥알을 잘 풀어서 알알이 흩어지게 하라는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把米饭炒散, 粒粒分开’처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나 번역본에서는 ‘밥알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볶는다(小心使用炒菜铲, 避免



饭粒溅出)’로 오역되었다.

## 2) 물성 변화 정보 불일치

조리 대상인 식재료의 물성이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도 요리 초보자에게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볶거나 끓거나 찌는 등의 조리 동작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가장 직관적이면서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사례들에서 확인하듯 식재료의 물성 묘사가 도착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다.

[사례 12]

ST2 (이): 해물 맛이 우리나라도록 한소끔 더 끓이세요.

TT2 (이): 再多煮一会儿, 使海鲜充分入味. (해물에 양념이 배도록 한소끔 더 끓이세요)

[사례 13]

ST2 (이): 부추김치는 절이지 않고 담근 김치라 간이 배면 숨이 많이 죽어요.

TT2 (이): 韭菜泡菜并不是腌制的泡菜, 所以入味之后很容易变味. (부추김치는 절이는 김치가 아니라 간이 배면 쉽게 변질돼요)

일례로 중국어에서 ‘入味’는 ‘맛이나 양념이 배어들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으로 요리에 재료나 양념을 넣어 그 맛이 국물에 진하게 우러나는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채소나 고기 등 특정 재료에 양념을 묻혀 버무리거나 볶거나 조려서 그 재료에 양념 맛이 배도록 하는 상황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단어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사례 12]에서 ‘해물 맛이 우리나라도록’은 국물에 해물의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끓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는 ‘使海鲜充分入味(해물에 양념이 배도록)’라고 옮김으로써 대칭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원문의 정보를 보다 균형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海鲜的鲜味充分渗入汤汁’ 혹은 ‘使汤汁吸足海鲜的鲜味’ 등 해물의 풍미가 국물에 배어들어가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채택해야 한다. [사례 13]의 경우 ‘入味’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으나 ‘숨이 죽다’를 ‘容易变味(쉽게 변질된다)’로 오역한 사례다. 여기서 ‘숨이 죽다’는 뻗뻗하던 채소가 수그러들거나 흐물흐물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정보의 대칭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을 ‘容易变软’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3) 미각 정보 불일치

이은희(2019)는 한국어 미각어 유형으로 ‘단맛(달다, 달콤하다, 달금하다, 달짝지근하다 등), 짠맛(짜다, 간간하다, 짹짹하다 등), 신맛(시다, 시큼하다, 새콤하다 등), 쓴맛(쓰다, 씹쌀하다, 씹싸름하다 등), 떫은맛(떫다, 떫떠름하다 등), 매운맛(맵다, 얼얼하다, 얼큰하다. 매콤하다 등)’과 관련된 ‘일차적 미각어’와 입안의 느낌을 나타내는 ‘부차적 미각어(개운하다, 텁텁하다, 느끼하다, 담백하다 등)’로 구분했다. 이처럼 음식의 맛을 형용하는 미각어들은 레시피북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요소 중 하나다. 특히 한국어는 미각, 색채, 촉각 등을 나타내는 감각어들이 발달해서 묘사 대상의 정도에 따라 표현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표현들 간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번역 시에도 이를 유념해야 하는데, 본고의 분석 사례 중에서도 미각 정보를 잘못 구현한 오류들이 일부 눈에 띄었다.

[사례 14]

ST2 (이): 감자는 텁텁한 맛을 내기 때문에 해물된장찌개에 어울리지 않아요

TT2 (이): 土豆会使大酱汤变浑浊, 所以不太合适海鲜大酱汤. (감자는 된장찌개 국물을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물된장찌개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 중 하나가 ‘텁텁한 맛’의 번역 사례다. ‘텁텁하다’는 입 안의 느낌을 나타내는 미각어로 ‘음식 맛 따위가 시원하거나 깔끔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례 14]를 살펴보면 ‘감자는 텁텁한 맛을 내기 때문에’라고 설명된 부분이 감자가 국물의 맑기를 탁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왜곡되어 ‘土豆会使大酱汤变浑浊’라고 번역되었다. 감자 자체의 맛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텁텁함’이라는 감각어를 살려 ‘煮熟的土豆会涩口’, ‘煮熟的土豆会有苦涩味’ 등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조리 과정 상 거쳐야 하는 필수 동작, 재료의 물리적 상태 변화, 미각 등에 관한 정보들이 원문과 불일치하는 빈도가 많아지면 음식 레시피를 참고로 직접 요리하는 현지 사용자들의 순조로운 작업 진행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 작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레시피북 번역에서는 출발어 텍스트 상에 순차적이고 유기적인 흐름으로 제시된 절차적 지식과 정보들이 도착어 텍스트 상에도 질적, 양적 대칭을 이루며 온전히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 4. 결론

레시피북은 음식 조리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독자에게 알려주는 절차 지시 텍스트 장르로 요리 절차에 관한 제반 정보들이 전형적인 짜임새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식 레시피북을 번역할 시에는 한식 제조 과정상의 특징이나 절차를 설명하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성’의 대칭적 재현을 번역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레시피북 번역서가 현지 독자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냄으로써 도차어 문화권 대중들의 일상에 한국의 음식문화가 좀 더 친숙하게 자리 잡도록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 번역서들을 점검해 본 결과 정보 구현상의 문제 양상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 현상들을 ‘정보 비밀관성’, ‘정보 불충분성’, ‘정보 불일치성’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정보 비밀관성’ 문제 사례들은 음식명이나 식재료명 등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번역 표기가 번역서마다 혹은 동일 번역서 내에서 통일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정보 불충분성’ 유형은 요리 과정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기존 정보가 비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음식 특성 및 조리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인지적 소모가 가중될 여지가 있는 문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불일치성’은 조리법, 재료의 물성, 음식의 맛 등 출발어 정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정확하게 전달되어 사용자의 과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현상들은 번역서를 통해 한식 조리 과정을 경험하는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재료 준비 및 조리상의 시행착오, 작업 시간 지체 등과 같은 문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레시피북을 번역할 때에는 동일한 대상과 동작에 대한 번역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출발어 텍스트 상에 재현된 절차적 지식과 정보들을 의미의 손실이나 왜곡 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정보의 비밀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안하는 표준화 방안이나 이미 빈번하게 활용되어 어느 정도 정착된 기존 번역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식의 중국어 명칭을 중국에서도 널리 수용해 실제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고 보급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

여 한식을 홍보하는 입장과 수용하는 입장에서 합의 가능한 최적의 통용안으로 수렴해 나가되 한식의 명칭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식재료, 조리법, 조리도구, 맛, 향, 식감 등 한식과 연계된 제반 정보에 이르기까지 표준안 확정 범주를 확장하고 유형별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불충분성과 불일치성 문제를 극복하려면 ‘한식 조리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가 도착어 텍스트의 주요 독자라는 점을 번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당초 한국 독자에게 요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였던 레시피북이 상이한 문화권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쓰기 되는 과정이므로 기존 정보들이 보다 직관적이며 정확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미가 선명해지도록 명시화 전략을 활용하고, 정보를 거르기 전에는 해당 정보의 무게와 비중을 신중하게 감별한 후 생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바라바라 치대다’, ‘송송 썰다’, ‘쌀을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와 같은 표현에 수반된 부사(구)들은 동작의 구체적 방식을 보여주는 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충분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번역물의 품질에 대한 후속 점검을 통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레시피북 장르의 절차적 정보 비대칭성 문제 유형을 짚어내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번역 로드맵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별 사례에 대한 대안 제시와 문제 유형별 거시적 번역 방향성 제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지면 매체상의 레시피 번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국한한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한식 명칭의 번역 차원에 편중되었던 기존의 논의를 레시피 텍스트 내부로 확장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했음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양한 매체별 레시피 번역 양상 분석과 한식의 조리법이나 특성 관련 제반 용어들의 번역방안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경이·장애리. (2019). 「한식명 중국어 번역 표준화를 위한 분석 연구: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진흥원 간 사례 비교」. 『번역학연구』 20(1): 7-39.
- 권이은. (2015). 초등학생의 정보텍스트 독해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갑년. (2000). 「텍스트유형의 화행론적 분류」. 『독일문학』 74(1): 500-524.
- 김봉순. (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남. (2011). 「한국어 요리 동사의 낱말발」. 『한국어 의미학』 34: 77-107.
- 김진아. (2010). 「한식메뉴를 중역(中譯)하는 데에 있어서의 번역전략」. 『중국어문학논집』 61: 233-249.
- 김진아·김지은. (2018). 「문화기호학적 측면에서 한식명 중국어 번역의 문제점 고찰: 독자 수용성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2): 51-75.
- 김혜림. (2012). 「한·중 간 음식명 번역양태 비교」. 『통역과 번역』 14(1): 49-69.
- 김혜림·장애리·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 김희기·박계영. (2014). 「한류 영상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의 이미지, 한식 호감에 미치는 연구」. 『관광연구』 29(2): 61-80.
- 남향림. (2022).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의 음식명 번역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39: 48-83.
- 박나리. (2012). 「음식조리법 텍스트의 장르 기반(genre-based)적 구성담화 분석-문법요소와 담화기능 및 담화목적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3: 323-359.
- 박여성. (2013). 『기능주의 번역의 이론과 실제』.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성만. (2004). 「텍스트언어학의 개념과 대상」. 『언어과학연구』 29: 209-230.
- 이은희. (2019). 「한국어 맛 표현 어휘의 교재 제시 양상 및 개선 방안 연구」. 『한중언어학연구』 64: 111-133.
- 평판판·진현. (2017). 「음식 이름의 한중 번역어 수용성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25: 275-290.
- 한선혜. (2015).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요리동사 구문 비교 연구-한국어 요리동사의 어휘문법 구축을 위하여」. 『불어문화권연구』 25: 345-377.
- Heinemann, Wolfgang&Viehweger, Dieter. (2001) 『텍스트언어학 입문』. 백설자 역. 서울: 역락.
- Knapp, Peter&Watkins, Megan. (2019). 『장르, 텍스트, 문법- 작문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로서의 문법』. 주세형, 김은성, 남가영 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Neubert, Alb&Shreve, Gre. (2013). 『텍스트로서의 번역』. 주진국 역. 서울: 동인.
- B. Hatim, I.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New York : Longman.

### [기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 한식진흥원. (2022).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2022). 『2021 한식 외국어 번역 표기 편람』

This paper was received on 3 November 2023; revised on 30 Nov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

*Author's email address*

jiongli1011@naver.com

*About the author*

Kyoungyi Kang(first author) is a lecturer at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education and discourse analysis.

## 제도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고찰

– 입찰명세서 분석을 중심으로 –

유정주\*

**Jeongju Yoo (2023). Quality assurance in outsourced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A focus on tender specifications within Korean governmental entities.** *This study examines quality assurance practices in Korean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s with the aim to propose potential improvements. It focuses on tender specifications as a basis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QA) in outsourced translations, fulfilling the role of translation briefs within these institutions. Wit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outsourcing quality assurance policies and practices from the DGT and the CJEU, two world-renowned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s, with an emphasis on their most recent tender specifications for outsourced translation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selection criteria for tenders, including linguistic, technical,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along with award criteria detailed in the specifications. Subsequently, the latest tender specifications from five Korean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selection and award criteria. The findings were then juxtaposed with those of EU translation institutions to draw comparative insights. (Handong Global University, Korea)*

**Keywords: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al translation, outsourcing, quality assurance, tender specifications**

주제어: 법률번역, 제도번역, 외주번역, 품질보증, 입찰명세서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1284).

\*\*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 위촉연구원

# 1. 연구의 배경

‘제도 법률번역(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은 제도번역과 법률번역의 합성어로, 구체적 제도로서의 ‘번역기관(translating institu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 텍스트의 번역을 말한다. 번역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번역기관은 초국적기구, 상업조직,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 제도 법률번역은 정부의 통치기능 가운데 ‘규제(regulation)’ 기능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법률번역을 의미한다(유정주 2023a: 42-44). 이는 제도번역의 정의를 번역이 이루어지는 환경보다는 ‘해당 제도(기관) 내에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목적’의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코스키넨(Koskinen 2014)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제도 법률번역의 목적을 정부의 통치기능에서 파생된 공공성에 둘 경우, 제도 법률번역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공공성 달성을 위한 해당 번역의 품질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 보장은 시민(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텍스트의 법적 명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의 의무이자 요건으로 간주된다(Sosoni 2011: 83).

그러나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은 전통적인 충실성(fidelity) 패러다임에 갇힌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투입된 예산의 비용효율성과 관련한 합목적성 달성 맥락에서 논의되며, 공공행정의 핵심 목표인 ‘do more with less’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세계 최대의 번역기관으로 24개 공식언어로 EU 법령을 번역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의 경우에도, 가용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용효율성(cost-efficiency)임을 천명한 바 있다.<sup>1)</sup> 또한 모든 번역에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여 ‘충실한’ 번역을 산출하는 대신, 번역목적과 명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공정별 균형을 잡는 일을 품질보장 접근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Strandvik 2018: 56, 60).

이렇게 EU 번역기관들이 기존의 품질에 대한 정의를 합목적성 관점으로 수정하면서, 기존에 기관 내부에서 번역하던 문서들을 텍스트의 목적과 관련 리스크

---

1) DGT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하우스 번역가 수의 50%를 감축했으나, EU 회원국 확대로 공식 언어가 증가하면서 총 번역가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trandvik 2017: 124).



평가에 따라 아웃소싱<sup>2)</sup>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DGT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백만 페이지 이상의 물량 가운데 1/3가량을 외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요도가 낮은 문서들만 아웃소싱하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까지 외주로 번역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sup>3)</sup>(Strandvik 2018: 52). EU 회원국 시민들에게 구속력있는 선례로 기능하는 법원(source of law)인 EU 판례법을 번역 제공하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경우에도, 긴급한 마감 기한과 내부 작업량 폭주로 인해 재판소의 절차 관련 문서들을 외주로 번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Koźbiał 2017: 166). EU 번역기관들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 하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의 경우, 외주번역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이다. 조약에 대한 정보번역을 제공하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법령의 영어와 중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에는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두고 외주번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주번역 역시 번역기관이 해당 번역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제도번역의 일부이며, 결과물 품질이 낮을 경우 내부에서 진행한 번역과 동일한 리스크가 발생한다(Svoboda 2017: 82). 게다가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저품질 번역은 단순히 해당 번역의 사용 가능성(usability)을 훼손하여 해당 기관에 물적 손해를 입히는 수준을 넘어서, 분쟁을 초래하거나 법적 명확성을 해치게 되어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현대의 공공행정에서 비용효율성이 지상 명제이긴 하지만,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법적, 정치적 이유 및 기관의 명성 유지 차원에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비용효율성은 유의미할 수 없다(Strandvik 2018: 61).

이로 인해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법률번역의 외주번역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모델을 마련하여, 외주번역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종합적 품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품질보증은 ISO 17100:2015와 같은 산업표준을

2) 아웃소싱(outsourcing)은 ‘인하우스 기반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공급자로부터 의뢰인(client)에게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로(Scott 2019: 5),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outsourcing’과 ‘external translation’을 혼용한다. 본고의 경우 아웃소싱과 외주번역을 문맥에 따라 혼용하였다.

3) 법률 분야의 외주번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스콧(2019: 133)에 따르면, 일반의 예상과 달리 (주로 민간의) 법률번역 의뢰인들은 단순한 정보 목적이거나 형식상 요건을 맞추기 위한 번역,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번역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단어 하나, 구두점 하나까지 중요한 번역을 주로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번역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해 번역기관에 도입된 개념으로, 작업공정, 인적 자원, 도구 자원과 같은 과정품질 하위요소의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둔 기관의 서비스 제공 품질을 일컫는다(유정주 2023b). 외주번역의 경우, 품질보증은 ‘완료된 작업이 해당 명세에 규정된 품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contractor)가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되며(DGT 2023b: 4), 추가적인 내부 작업 없이 즉각 공개(publication) 또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번역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본고는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외주번역에 대한 기관의 품질보증 모델 수립을 돕기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의 외주번역 관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기관의 핵심 품질요건을 규정한 번역명세 역할을 수행하는 입찰명세서(tender specifications)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번역브리프 역할을 하는 명세서는 ISO 17100:2015 등 대부분의 산업 표준에서 ‘번역 목적’과 함께 번역 선택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품질의 핵심 요소로 지적된다(Strandvik 2017: 130). 이에 본고는 EU 법률번역 기관들의 외주번역 관련 품질보증 사례를 최신 입찰명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 번역기관들의 외주번역 입찰명세서와 비교하여 개선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EU 번역기관 아웃소싱 품질보증 사례 분석

### 2.1.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

#### 2.1.1. 아웃소싱 품질 요건

EU의 제도 법률번역은 EU의 언어평등권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인 법령이나 판례의 번역은 최종사용자인 EU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원국의 법원과 기관들의 해석 및 적용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번역품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sup>4)</sup>그러나

---

4) 2023년 현재 EU 1차, 2차 입법의 모든 문서 24개 공식언어로 번역되고 있으며, 법령의 경우 24개 모든 언어본이 정본이지만, 판례법의 경우 모든 공식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것은 아니다. CJEU의 경우 중계어(pivot language)는 불어이며, 모든 절차 관련 문서나 소답, 판결문 등은 불어로 번역되어야 한다(Kozbial 2017: 158).

이러한 품질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EU 번역기관들은 공공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상시적 요구에 직면하여,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상당한 분량의 번역 수요를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기관들의 번역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가 본격화되고, 업무량 증감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외주번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Sirovec 2020: 196). DGT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29%이던 외주번역 비율이 2022년 현재 37%까지 증가했으며(DGT 2023c), 외주번역을 예측 불가능한 수요 폭증을 관리하고 인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한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천명한 상태다(DGT 2023a: 6). 600명이 넘는 법률언어전문가들(lawyer linguists)이 EU 판례법을 번역하는 CJEU의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번역의 1/3 가량을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있다<sup>5)</sup>.

비용효율성 문제로 향후 아웃소싱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임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EU 번역기관들은 인하우스 번역가 대신 상업 에이전시가 조달조건(procurement conditions)에 따라 번역할 경우에도 내부에서 번역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기관들은 아웃소싱 품질보증 절차의 핵심을, 인하우스 번역가와 외주번역가의 정보격차 해소와, 일관성있고 상세한 피드백을 통한 외주계약자들과의 소통 향상에 두고 있다(Sirovec 2020: 201). 이를 위해 EU 기관 및 부서 명칭, 용어 데이터베이스, 기관 간 스타일 가이드, 언어별 번역 지침 등을 한데 모아 외주번역 계약자들을 위한 윈스톱 종합참고사이트를 마련하고, 각 지침과 명세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법률번역 품질보증의 경우, 일반 번역에서 요구되는 비용효율성 달성을 위한 절차별 모델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법률텍스트의 특수성을 반영한 엄격한 품질요건의 준수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DGT와 CJEU를 중심으로 한 EU 번역기관들의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의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품질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입찰공고, 입찰명세서 및 계약자와 체결하는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 FWC<sup>6)</sup>), 아웃소싱 품질 가이드 등을 통해 공식화하고 있다.

먼저, DGT의 2023년 외주번역 입찰명세서(DGT 2023b)에 제시된 법률문서를

- 
- 5) 아웃소싱되는 텍스트는 CJEU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주제를 다루며, 각종 절차 문서, 소송대리인 의견서, 판결서, 명령서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망라한다(CJEU 2023a: 7).
  - 6) 계약기관(contracting authority)과 계약자(contractor) 간에 체결되는 기본계약으로, 가격 및 작업량 등과 관련하여 특정 기간에 체결될 계약이나 발주서(order form)에 적용되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GT 2023b: 4).

포함한 모든 텍스트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질 요건과, 법률문서 외주번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품질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DGT 입찰명세서는 외주번역으로 납품된 작업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usable as it stands) 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언어적, 기술적 품질 요건 및 IT 역량, 전문인력 역량을 상세히 규정한다(표 1 참조). 먼저, 언어적 품질 요건으로는 ST 내용 및 인용의 정확성, 용어 일관성, TL 언어규범 준수, 가독성 등 스타일 요건 준수 등이 규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텍스트 차원의 품질인 ‘결과물(product)’로서의 번역품질에 해당하며, 법률번역을 포함한 EU 번역의 모든 품질지표가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으로 수렴된다는 비엘(Biel 2017: 35)의 분석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웃소싱의 기술적 차원의 품질 요건으로는 마감 기한 및 디자인 요건 준수, ST 서식 준수, Word 파일과 번역메모리, SDLXLIFF<sup>8)</sup> 파일 간 내용 일치 등이, 주요 IT 역량 요건으로는 DGT 내부의 CAT 툴 파일 형식 처리 능력 및 향후 도입 예정인 기타 소프트웨어나 툴 사용 능력이 규정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디지털전략(C(2018)7118)에 따라 DGT가 모든 작업공정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하면서, 번역메모리(Euramis-NG), 용어 데이터베이스(IATE 2), CAT 툴(CATE-NG) 등 DGT의 차세대 디지털도구자원의 사용 능력을 아웃소싱의 IT 품질 요건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히, 주요 IT 역량 요건으로 DGT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에 따라 최종본의 주요 용어에 대한 용어집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웃소싱으로 생산된 번역의 경우에도 내부의 유효성 인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용어들을 누락 없이 탑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는 용어 일관성과 신뢰성이 핵심적인 결과물 품질지표가 되는 법률번역의 경우 특히 중요한 품질보증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DGT 입찰명세서는 외주번역 작업에 참여하는 번역가, 감수자 등 전문인력의 역량과 관련하여, 산업표준인 ISO 17100:2015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도

---

7) DGT의 경우 아웃소싱 계약자에게 법률문서 외에도 정책 및 행정 문서,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문서 등 다양한 텍스트유형을 의뢰하기 때문에, 입찰명세서상 규정된 품질 요건은 모든 텍스트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법률문서(Category A) 번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품질요건을 살펴보기 위해 *Translation Quality Info Sheets for Contractors* (DGT 2017)의 법률번역 관련 내용을 같이 분석했다.

8) SDLXLIFF는 2023년 현재 DGT가 사용하고 있는 CAT 툴인 SDT Trados의 파일 확장자 형식이다. 그러나 2024년 완료를 목표로 Trados를 대체하여 번역참가자 간 실시간 협업기능이 강화되고 각종 도구자원이 통합된 서버기반 플랫폼인 CATE Next Generation이 구축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 요건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DGT의 주요 도구자원 개선 내용은 유정주(2023b: 117-119)를 참조할 수 있다.

록 규정하고, 입찰자별로 참여 인력의 50% 이상이 해당 자격에 부합한다는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품질코디네이터(PM)의 경우 DGT의 품질 관련 지시를 이행하고 기관의 품질 관련 의견을 번역가 또는 감수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인력으로, 원어민 수준의 TL 구사능력 및 품질보증 경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번역의 경우 2020년 별도의 국제표준인 ISO 20771:2020이 제정되어, 현재 ISO 17100의 인적 자원 요건보다 한층 강화된 요건이 권고되기 때문에(유정주 2023b: 105-107), 향후 DGT를 포함한 주요 법률번역기관들의 법률번역 아웃소싱 인력 요건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표 1. DGT의 외주번역 공통 품질요건**

언어적 품질요건	1) ST의 내용을 부당한 생략이나 추가 없이 정확하게 제공, 2) 기존 문서에 대한 명시적, 암시적 인용의 정확성, 3) 관련 분야, 참조문서, 명명 관행에 부합하여 텍스트 전체에서 올바른 용어를 일관성있게 사용, 4) 문법, 구두점, 철자 등 TL 언어규범 준수, 5) 기관 및 문서별 스타일 요건(예: 스타일 가이드, 문서 템플릿, 언어부서별 지침에 명시된 요건) 준수, 6) 일반 스타일 요건(유창성, 가독성, 통일성, 대상 독자별 맞춤화) 준수
기술적 품질요건	1) 마감일(날짜 및 시간) 준수, 2) 디자인 및 프리젠테이션 요건(텍스트 및 단락 서식, 레이아웃, 그래픽요소, 마크업, 세그먼트 관련 요건) 준수, 3) (발주서에 다른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ST의 서식 준수, 4) Word파일과 번역메모리, SDLXLIFF 파일 납품을 포함하는 경우, 파일간 내용의 일치, 5) SDLXLIFF 파일구조의 변경이나 손상 금지
IT 역량	1) MS Office 2010 이상 파일 형식(docx, xlsx, pptx) 및 pdf, html, xhtml, xml, rtf, txt 또는 기타 일반적인 파일 형식의 문서 작업 능력, 2) ST와 TT를 포함하는 SDLXLIFF 로컬라이제이션 파일 및 이러한 파일 형식을 처리할 수 있는 CAT 도구 또는 편집기의 사용 능력 (TMX 1.4b 이상 파일 형식), 3) 최종본의 주요 용어가 포함된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납품 능력 (TBX 1.0 이상 파일 형식), 4) DGT에서 지정한 세그먼트 규칙 사용 능력, 5) DGT가 사용하는 기계번역도구 산출물 사용 능력(FWC 이행중 DGT가 도입한 기타 소프트웨어나 CAT 툴 사용 능력 포함)
전문인력 역량	1) FWC를 이행하는 모든 번역가, 이중언어 감수자, 단일언어 감수자가 ISO 17100:2015에 명시된 전문 역량을 보유할 것, 2) 계약자의 품질코디네이터(PM)는 TL에 대한 원어민 수준의 숙련도를 보유하고, 납품되는 모든 작업이 품질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전반적 책임을 질 것

다음으로, 법률문서 외주번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품질 요건으로, DGT의 텍스트유형 분류상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보인 법률문서(Category A)의 외주번역 품

질 요건을 살펴본다. DGT(2017)는 아웃소싱 품질가이드를 통해 정보 법률번역의 목적을 명시하고, 구속력을 갖는 해당 번역의 본질상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품질지표임을 명시한다. 특히, DGT의 법률문서 외주번역 품질 요건은 일관성 지표의 달성을 위한 요건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표 2 참조). 법령을 비롯한 법률텍스트의 경우 신규 번역 요청의 대부분이 기존 텍스트에 근거하고 있거나 기존 텍스트와 관련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번역 시 기존 텍스트와의 용어 및 표현 일관성 준수 여부가 품질보장의 중요 요소가 된다(Drugan et al. 2018: 43). 이를 위해 DGT는 법령의 경우

표 2. DGT의 법률문서 외주번역 품질 요건

구분	법령(legal acts)	사법절차 및 조사 관련 문서
문서 (번역)의 목적	법적 효력이 있으며 권리와 의무, 적법한 기대를 창출. 수신자는 시민 또는 법원으로, 문서 내 정보의 신뢰성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함	침해, 합병, 반독점, 반덤핑 사건 등의 법적 절차 및 조사에 사용되는 문서들로, 해당 절차의 결과는 구속력있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며, 동효력은 원문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좌우될 수 있음
작성 (번역) 지시사항	<i>Joint Practical Guide, Manual of Precedents, 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i> , 번역메모리, <i>LegisWrite</i> , 언어별 스타일가이드의 작성규칙, 표현 및 템플릿 준수. TT는 ST와 동일한 ‘문장 범위’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개하기 적합해야 함	<i>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i> , 번역메모리, <i>LegisWrite</i> , 언어별 스타일가이드 준수. 그 외의 편집지침은 <i>Essential guide to drafting Commission documents on EU competition law</i> 를 따를 것. 동일 파일의 이전 단계에 사용된 표현, 인용 및 용어에 대한 일관성 준수
용어	해당 법령 내 용어일관성 (동의어사용이나 재구성 금지), 관련 법적 근거 및 기본법(들)과의 용어일관성 준수. 신규 용어 발생시 해당 DGT 언어부서의 메일함을 통해 알리고 처리 여부 상의	관련 법령(EU 및 회원국) 및 동일 파일의 이전 단계 문서들과 용어 및 구문 일관성 준수
인용	법령조항이나 법령명은 EurLex와 공신력있는 각국 법률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인용 표시가 없는 간접인용은 오역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거를 확인할 것	
특별 관심 사항	1. Eurlex 내 조약을 포함한 기본법과 기타 관련 법령 2. 텍스트 내·외부와의 용어 일관성(IATE) 3. 스타일가이드의 작성 지시사항 4. DGT가 업데이트하는 번역메모리 5. ST나 참고문서의 오류. 발견시 DGT의 해당 메일함을 통해 알릴 것	

해당 텍스트 내는 물론이고, 관련 법령이나 조약을 포함한 기본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강조하고, 사법절차 문서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절차의 이전 단계에 사용된 표현이나 인용문과의 일관성 달성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례집(Manual of Precedents), 번역메모리, 법률문서 스타일도구(Legiswrite), 기관 간 스타일가이드(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 등의 준수를 강조하여, 제도 법률번역의 일관성 보장의 핵심 도구인 ‘표준화’를 통한 기존 관행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령의 경우 ST와 TT의 ‘문장 범위’의 동일성을 아웃소싱 지시사항으로 명시하여, 정본번역의 주요 요구사항인 ‘표면 차원의 유사성’ 달성을 통한 제도적 통일성(Šarčević 2018: 10)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EU 판례법 및 절차문서의 번역을 제공하는 CJEU의 2023년 입찰명세서와 기본계약상 명시된 외주번역 품질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CJEU의 경우 DGT에 비해 번역물량은 적지만<sup>9)</sup>, 외주번역을 요하는 대부분의 문서가 판결문을 포함한 사법절차 관련 법률문서라는 점에서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CJEU는 입찰명세서상 품질 요건을, 주로 언어적 요건을 기술한 계약이행 조건과, 기술 및 IT 관련 요건을 기술한 장비 조건, 참여 인력 요건을 기술한 전문 역량으로 구분한다.

먼저, 계약이행 조건으로는 DGT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품되는 TT의 품질이 내부의 추가적 감수 및/또는 수정 없이 즉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조건으로 법률번역의 주요 품질지표 중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표 3>의 이행 조건 가운데 2)와 3)은 TL 법적 개념, 법률용어 및 표현 등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하여 정확성 지표에 해당한다. 반면, 1)의 재판소 지침, 4)의 참조문서, 5)의 관련 법령 및 사법텍스트, 6) 법률 데이터베이스, 7) 재판소의 기수립 관행에 대한 준수는, 법률번역의 일관성 범주인 텍스트 내·외의 용어 일관성 및 각종 지침과 전례의 준수에 해당하여(유정주 2023a: 51), 일관성 지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DG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례 및 사법절차 문서 번역의 경우, 법원의 동일한 해석 및 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아웃소싱의 핵심 품질지표로 강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외주번역의 기술 및 IT 관련 품질요건으로는 재판소 근무일 기준 8시간<sup>10)</sup>

9) 2016년 기준 CJEU의 번역서비스부(TS)가 1년간 번역한 분량은 약 1,160,000페이지이다(Kozbial 2017: 159).

이내 작업 수락 여부 확인 요건과, MS Office 등 일반적인 문서 파일 작업 능력, ST 서식 준수 요건 외에, DGT와 마찬가지로 기관 내에서 CAT 툴로 1차 가공된 텍스트에 대한 처리 능력이 규정되고 있다. 이는 CJEU를 비롯한 EU 번역기관들이 CAT 툴 등 각종 디지털 도구자원을 제도 법률번역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품질보증 요건으로 도입하고, 해당 요건을 외주번역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CJEU의 법률문서 외주번역 품질요건**

<p><b>계약이행 조건</b></p>	<p>FWC에 따라 제공되는 TT의 서비스 품질은 공개(publication)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다음 세부조건을 준수해야 함: 1) 재판소의 구체적인 지침 준수, 2) TL의 올바르고 엄격하며 정확한 사용, 3) TL 법률언어 전문성과 적절한 용어에 대한 엄격한 준수, 4) 참조문서(SL, TL)에 사용된 법률용어의 엄격한 준수, 5) 관련 법령 및/또는 사법텍스트의 엄격한 인용, 6) 필요한 법률 데이터베이스(EU 및 회원국)의 사용, 7)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기존 관행(Vade Mecum) 준수, 8) 발주서상 합의된 마감기한 준수</p>
<p><b>장비 조건</b></p>	<p>1) 재판소 근무일 기준 최대 8시간 이내에 특정 작업 배정 관련 수락 여부 확인 가능, 2) MS Office 2010 이상 파일 형식 및 기타 전자파일의 처리 능력, 3) ST의 서식 및 스타일 준수, 4) CAT 툴로 1차 가공된 텍스트에 대한 작업 능력, 3) 재판소의 내부 번역 메모리에서 취득한 ST와 TT가 모두 포함된 파일(XLIFF 형식 등)의 처리 능력</p>
<p><b>전문 역량</b></p>	<p>1) TL 국가의 대학 법학 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 또는 TL 국가의 변호사 자격; 또는 기타 분야의 대학 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 및 2년 이상의 TL 방향 공문서 번역 경력, 2) TL 및 TL 법률용어에 대한 완전한 숙달, 3) SL에 대한 철저한 지식</p>

마지막으로, 외주번역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과 관련하여 CJEU는 DGT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DGT의 경우 ISO 17100:2015에 명시된 인력 자격요건을 준용하지만, CJEU는 내부의 법률언어전문가<sup>11)</sup>와 외주번역가 요건을 1) 모국에서의 법학 학위, 2) 모국어 외에 최소 2개 공식언어에 대한 완벽한 유창성, 3) 비교법 작업에 능숙하고 모국어로 법률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원칙상

10) DGT의 경우 최고 순위 계약자는 3시간 이내에 작업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계약자에게 작업이 제안된다(DGT 2023b: 12).

11) CJEU의 경우 번역가가 아닌 내부의 법률언어전문가(lawyer-linguist)가 번역 및 감수를 담당한다.



동일하게 설정한다(Kozbial 2017: 164). 2023년 입찰계약 공고에 명시된 전문 역량 요건을 살펴보면 TL 국가에서의 법학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이거나, 기타 분야 학위 취득자일 경우 2년 이상의 공문서(official texts) 번역 경력을 갖추고, SL과 TL 및 TL 법률용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춘 자로 명시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법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또는 공문서에 대한 공식번역(official translation) 경력을 보유한 자<sup>12)</sup>가 외주번역 및 감수를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법률번역 산업표준인 ISO 20771의 인적자원 자격요건의 법률번역가 및 이중언어 감수자, 단일언어 감수자 요건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며(유정주 2023b: 106), 법률번역 아웃소싱의 경우 일반 분야의 외주번역에 비해 엄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2.1.2. 아웃소싱 평가 방법

이제부터는 제도 법률번역 아웃소싱 품질보증 정책에서 품질 요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외주번역의 평가 및 검증 방법을, DGT와 CJEU의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입찰명세서상 제시된 입찰자 평가 방법인 낙찰 기준은 아래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루기로 한다.

DGT는 외주번역을 위한 입찰을 매년 진행하는 대신, 2년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4년마다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번역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한 문서의 종류는 미리 정하되, 납품 시기와 물량은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DGT 2023c). 선정된 계약자의 외주번역은 납품 시 10% 분량<sup>13)</sup>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매일 DGT의 인하우스 번역가에 의해 입찰명세서상 품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기본적인 품질 요건은 입찰명세서상 기재 사항과 동일하나, 보다 구체적인 언어적 품질 요건과 관련한 내부 평가표(quality grid)는 <표 4>와 같이 구성된다(Drugan et al. 2018: 59).

평가표는 품질지표 중 ‘정확성’ 관련 요건으로 오역이나 추가, 누락 금지율, ‘일

12) EU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공문서 번역을 주로 법원이나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인증법률번역가(authorized legal translator)가 담당하므로, 상기 요건은 인증 법률번역가 관련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 10% 샘플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품질관리(이중언어 또는 단일언어 감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번역의 종류와 목적, 관련 리스크 평가에 기해 이루어지며, 법령 정본번역의 경우 외주번역된 문서 전체에 대해 내부에서 추가적인 이중언어 감수를 실시한다(Strandvik 2017: 133).

관성' 요건으로 관련 참고자료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용어 사용을, '명확성' 요건으로 문법이나 구두점, 어역 및 텍스트유형 관습 준수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항목인 각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8개로 구분된 오류 코드를 부여하고, 식별된 오류는 중요도에 따라 '낮은 관련성(low relevance)' 또는 '높은 관련성(high relevance)<sup>14)</sup>'으로 구분한다. 오류 및 관련성 부여는 언어 부서별 검증자(validator)의 확인을 거쳐,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품질 요건 외에도, 합의된 납품기한 준수 및 코드, 태그 등 ST의 포맷 준수, DGT 지시사항 준수 등 기술적 요건도 함께 평가하여, 미준수 시 별도 패널티를 부여한다(Strandvik 2017: 125).

표 4. DGT의 외주번역 내부 품질평가표

오류 유형	코드	관련성	
		낮음	높음
오역(mistranslation) + 부당한 추가	SENS		
부당한 누락 또는 미번역	OM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없는 EU 용례 또는 용어 사용	TERM		
참고문서/자료 미사용; 규범집 또는 업무 특수적 지시사항 미준수	RD		
명확성(clarity), 어역(register) 및 텍스트유형 관습	CL		
문법	GR		
구두점	PT		
철자	SP		

외주번역 샘플은 담당 인하우스 번역가의 품질평가표상 기재된 표시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어 '동적 등급 부여 체계(dynamic ranking system)'에 반영되어 계약자에게 피드백되며, 해당 등급은 매월 갱신되어 향후 번역 발주 시 순위로 적용된다. DGT는 언어 조합('로트') 별로 1개의 계약자<sup>15)</sup>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

- 14) '높은 관련성' 오류는 이전에는 '의미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오류'로 정의됐으나, 현재는 '텍스트의 의도된 목적상 사용가능성(us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류'로 정의된다(Strandvik 2017: 131).
- 15) DGT와 CJEU는 입찰에 참여하여 외주번역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번역서비스 제공자를, 공공기관(public entity)을 포함하여 EU 시민이거나 EU에 거주/등록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자연인/법인 그룹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즉, 상업 에이전시와 같은 법인 외에 개별 번역가(그룹)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DGT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를 '사업자(economic operator)'로 정의한다(DGT 2023b).

개의 번역서비스제공자(TSP)를 순위에 따라 계약자로 선정한 뒤, 최고 순위자에게 작업을 먼저 제안하고, 최고 순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연쇄적으로 작업을 배정하는 ‘연쇄 계약방식(cascade type of contracts)’을 적용한다. 등급 부여를 위한 품질평가는 0~100%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작업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DGT의 추가 개입 없이 공개 가능한 상태’인 경우 100%가 부여된다. 즉, 계약자에 대한 월별 외주번역 품질평가는 직전 월에 납품된 평가 페이지의 품질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별 평가점수 결과가 85% 미만인 경우, 최초 발생 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계약상 보수율의 15%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9개월 이내 2차 발생 시에는 30%를, 9개월 이내 3차 발생 시에는 50%를 감액할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20%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보수율의 8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품질보장을 도모하고 있다(DGT 2023c).

CJEU 역시 DGT와 마찬가지로, 명세서상 품질 요건의 준수를 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상 의무일 뿐 아니라, 계약자의 평가와 연계된 핵심 요소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기본계약(FWC)에서 SL에 대한 철저한 지식, TL 및 TL 법률용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 관련 전문 경험 및 적절한 IT 기술역량을 계약의 주제(subject matter)로 규정하고 있다. CJEU의 경우 FWC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씩 총 3회에 걸쳐 갱신 가능하므로, DGT와 마찬가지로 4년마다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 또한, DGT와 동일하게 ‘연쇄 계약방식’을 채택하여, 로트 별로 계약자의 생산능력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작업 배정을 제안할 순서를 결정한다. 그러나 DGT와 달리 낙찰 후에도 로트별 최대 계약자 수<sup>16)</sup>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찰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작업 배정 순서는 신규 FWC 체결자들을 반영하여 계속하여 조정된다(CJEU 2023b). 또한, 작업 배정 순서 조정을 위한 품질평가 기준은 입찰명세서상 규정된 품질요건(표 3)이지만, DGT와 달리 납품된 외주번역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체에 대한 내부 법률언어전문가의 감수에 기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CJEU의 경우 판결문(court rulings) 번역의 외주 진행 시, 기본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이중언어 및 단일언어 감수를 실시했다라도 외주번역된 전체 텍스트에 대해 내부의 추가 이중언어 감수를 시행한다(Strandvik 2017: 127-128).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16) 일례로, 2023년 입찰공고(2023/S031-089998)상 불어-아일랜드어 로트에 대한 최대 계약자 수는 50이다.

정본인 판례 번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관이 비용효율성보다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특정 작업이 FWC 상 품질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관리(preliminary control) 대상으로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되며, 60일간 대금지급이 정지된다. 예비관리 대상이 된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발주서에 규정된 납품기한 미준수 시에도 계약자가 지연일 당 대금 총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번역품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CJEU 2023b).

## 2.2. EU 번역기관 입찰명세서의 입찰평가 기준

### 2.2.1. DGT: TRAD-23

이제부터는 DGT의 2023년 최신 입찰명세서의 구성항목과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대상은 TRAD-23 체결을 위한 DGT의 입찰공고<sup>17)</sup>를 위한 입찰명세서로, 해당 명세서는 계약의 주제, 대상서비스의 종류와 품질기준, 계약이행 관련 사항, 입찰 참여방법, 입찰평가 등 총 5개 부(Part)로 구성되어 있다(표 5 참조). DGT는 제5부의 입찰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유럽연합 공무원인 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찰절차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상 기준 및 최소 생산 역량, 전문 역량에 부합하는 입찰자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가격 비율에 근거한 낙찰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순위별로 입찰자를 낙찰한다. 후보자 선정 기준 가운데 법률상 기준은 유럽연합조약(TE) 등에 따른 유럽연합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며, 최소 생산 역량은 1) 산출량 기준으로, 2022년 해당 로트에 대해 번역, 감수, 납품한 페이지 수가 DGT에서 정한 로트별 페이지 수 이상, 2) 인력 수 기준으로 해당 로트에 대해 2020~23년 동안의 연평균 관리인력 수가 DGT가 정한 로트별 물량의 30%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숫자여야 한다. 전문역량은 하수급인<sup>18)</sup>을 포함한 관련 인력의 상기 <표 1>에 제시된 자격

---

17) DGT는 현재 진행 중인 외주번역을 위한 기본계약인 TRAD-19가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유효한 기본계약인 TRAD-23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DGT/LUX/2023/OP/0010)를 2023년 2월 게시하였다.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

표 5. DGT 외주번역 입찰명세서 주요 구성항목

구분	구성항목
1. 계약의 주제	계약의 주제, 법적 근거, 정의
2. 대상서비스	제공 대상 서비스, 품질기준, 작업물량 및 언어조합(로트)
3. 기본계약의 이행	품질관리 방안, 작업평가, 월별 품질평가, 저품질 번역에 대한 대금 감액, 작업 배정방식, 납품기한, 송장 발행, 비밀유지, 민감한 작업 관련 규정, 의사소통
4. 입찰 참여방법	입찰참가자격, 최소 참가 기준, 공동 입찰 참가방법, 하도급, 입찰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기술입찰서, 금액입찰서
5. 입찰 평가	배제기준, 증빙자료, 선정 기준(법적 역량, 최소 생산 역량, 전문역량), 낙찰 기준(언어테스트, 프로젝트 관리 테스트, 대금, 기본계약 체결)

구체적인 낙찰 기준을 살펴보면, 입찰 순위 평가는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 되, 품질에 70%, 가격에 30%의 가중치를 둔다. 품질은 언어테스트와 프로젝트관리 테스트의 2가지 테스트로 평가하며, 프로젝트관리 테스트의 경우 언어테스트에서 합격점수(56점)를 획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sup>19)</sup>. 언어테스트는 EU 관련 주제에 대한 4페이지 분량의 부분 번역 텍스트로, 입찰자는 텍스트의 미번역 부분을 번역하고 최종 번역본 전체를 이중언어 감수하여 납품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SDLXLIFF 및 Word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관리 테스트는 번역작업 공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Word 파일로 제출한다. 로트별로 가장 우수한 품질/가격 비율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되며, 2개 이상의 입찰이 동일 비율인 경우에는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에 더 높은 순위가 부여되고,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입찰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DGT의 경우, 언어테스트 품질도 중요 평가 기준이지만, 입찰자의 상시적인 아웃소싱 번역품질 보증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관리 테스트를 두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 18) DGT는 입찰자의 FWC 이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하도급을 허용하고, 단독입찰자 또는 공동입찰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동일 로트에 대한 다른 입찰자의 하수급인이 될 수도 있다.
  - 19) 각 시험은 2명의 DGT 평가자가 실시하며, 두 평가 결과의 평균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결과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평가가 실시되며, 최종점수는 세 평가의 평균으로 한다. 가중치를 반영한 프로젝트관리 테스트의 합격 점수는 14점이다.

### 2.2.2. CJEU: COJ-PROC-23/005

다음으로 CJEU의 2023년 최신 외주번역 입찰공고<sup>20)</sup>상 입찰명세서의 낙찰 기준을 분석해 본다. CJEU의 입찰명세서는 1) 계약기관, 2) 계약 관련 사항, 3) 입찰서 제출 관련 사항, 4) 입찰평가, 5) 특정 조건 관련 항목들로 구성되며, DGT의 경우와 항목 구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CJEU의 경우에도 DGT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며, 일정한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테스트번역)와 가격제안서(입찰가격)를 평가하여 품질/가격 비율 면에서 최고의 가성비(best-value-for-money)를 제공하는 입찰자 순위별로 로트당 최대 계약자 수를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기준은 DGT와 동일하게 품질에 70%, 가격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성비 기준을 적용한다<sup>21)</sup>. 즉, 테스트번역의 품질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입찰은 가격제안서를 평가하지 않고 거부된다. 또한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입찰이 거부될 수 있다. 아래 <표 6>은 CJEU 입찰명세서상 제시된 테스트번역의 최소 품질기준으로, 법률번역의 3가지 품질지표인 정확성과 일관성, 명확성이 망라되어 있으며, 법률문서의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한 관련 문서 인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준수가 ‘방법론적 측면’으로 적시되고 있다.

표 6. CJEU의 테스트번역 최소 품질기준

법적 측면	언어적 측면	방법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본에 대한 이해와 충실한 번역</li> <li>• 정확성 및 용어일관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성 및 용어일관성</li> <li>• 맞춤법 및 구문</li> <li>• 명확성(clarity) 및/또는 어역(regist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의 인용 및 연구</li> <li>• 완성도(completeness)</li> </ul>

아울러,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이 참고할만한 항목으로 CJEU의 외주번역 기본계약에 제시된 계약자 대금 지급 요율을 소개한다. 제도 법률번역의 특성상 외주번역가들이 텍스트 전체를 번역하는 대신, 기존에 이미 일부가 번역되어 있

20) 동 입찰공고(2023/S031-089998)는 2023년 2월 게시된 ‘유럽연합의 공식언어에서 아일랜드어로 법률문서를 번역하기 위한 기본계약 체결’ 공고이다.

21) 구체적인 가격/품질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입찰 X의 비율 = 입찰 최저가격/입찰 X의 가격 × 가격에 대한 가중치(30%) + 입찰 X의 품질점수(100점 만점) / 입찰 최고품질 × 품질에 대한 가중치(70%)

나 짧고 분절된 텍스트의 일부를 번역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번역되거나 반복되는 세그먼트에 대한 EU 번역기관들의 지급 요율 결정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JEU는 기번역 세그먼트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100% 요율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번역 맥락의 확인이나 납품 전 자가감수와 같은 고품질 번역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작업방식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cf. Strandvik 2018: 60).

표 7. CJEU의 기본계약에 따른 계약자 대금 지급 요율<sup>22)</sup>

구분	사전 번역되거나 반복되는 비율
기본요율	ST의 표준 페이지 <sup>23)</sup> 수에 로트별 표준 페이지당 가격을 곱한 금액
세그먼트 요율	100% 사전 번역되거나 100% 반복: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20%
	82% 이상 100% 미만: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30%
	65% 이상 82% 미만: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50%
	65% 미만: 세그먼트 기재 문자의 100%

### 3. 한국 법률번역기관 입찰명세서 분석

#### 3.1. 분석 방법

이제부터는 상기와 같이 살펴본 DGT와 CJEU의 외주번역 품질보증 정책 및 입찰명세서 평가기준을, 한국의 주요 법률번역기관의 입찰명세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제도 법률번역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 지원 하에 상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법률번역으로 정의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법률텍스트의 외주번역을 위한 입찰공고의 입찰명세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sup>24)</sup>.

22) DGT(2023: 28)의 경우 전처리된 번역작업에 대한 보수율은 100% 일치 페이지의 경우 기준가격의 20%, 85~99% 일치 페이지의 경우 50%, 85% 미만 일치 페이지의 경우 100%이며, 이중언어 감수(revision) 및 단일언어 감수(review) 작업 보수율은 ST 표준 페이지 수의 50%로 계산한다.

23) 표준 페이지는 SL기준으로 공백을 제외한 1,500자의 텍스트 페이지를 말하며, 표준 페이지 수는 재판소의 승인부서가 결정한다(CJEU 2023b).

이를 위해 먼저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종합 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번역’을 검색어로 용역입찰공고를 검색한 뒤, 텍스트 유형상 법률번역에 해당하는 공고들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2023년 8월 공고된 법제처의 ‘대한민국 법제발전사 영문번역’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번역의 경우는 제외하고, 동일한 성격 또는 제목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된 입찰공고를 대상으로, 외주번역 명세서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입수했다. 동일한 수요기관이 작성한 동일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연도별로 항목별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동 연구의 목적이 기관별 외주번역 입찰명세서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지 않으므로 EU 번역기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사업에 대해 입수가능한 최신 입찰공고의 명세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8>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한 5개 번역기관의 최신 입찰공고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8. 분석 대상 입찰공고 분류**

수요기관	입찰공고 명	입찰공고번호
한국법령정보원	2023년 하반기 세계법제정보센터 외주번역사업	20230734775 - 00
서울특별시	2023년 상반기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전문번역 및 감수 용역	20230518286 - 00
헌법재판소	2023년도 헌법재판소 외국 헌법 재판자료 번역사업	20230411705 - 00
국회도서관	2023년도 외국법률 번역사업	20230107162 - 00
금융위원회	금융법규 영문번역 및 감수	20220900327 - 00

분석대상으로 삼은 한국법령정보원 외주번역 입찰공고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는 11개 언어(2023년 하반기의 경우)의 외국 현행 법령을 한국의 중소·영세 기업 등에 한국어로 번역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용역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 등에게 서울시의 자치법규를 영어 및 중국어 번역으로 제공하여 편의 제공 및 서울시 홍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외국 헌법 재판자료 번역사업은 헌법재판과 관련된 외국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으로, 일반 국민이 아닌 헌법

24) 한국 정부기관의 입찰명세서 구성항목을 살펴본 선행연구로 박지영(2016)이 있다. 해당 연구는 장르를 불문하고 정부기관이 발주한 일정 시기의 모든 번역 용역 입찰의 명세서 항목을 분석하여 고객인 기관의 니즈를 분석하였다.



재판소 재판관, 재판연구원 등 법률가들을 최종사용자로 한다. 국회도서관 외국법을 번역사업의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법률을 한글로 번역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담당자들을 최종사용자로 한다<sup>25)</sup>. 금융위원회 금융법규 영문번역 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의도된 수신자로 하여, 한국 금융법규의 영어 번역 제공을 통해 금융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6)</sup>. 상기와 같은 5개 번역기관의 입찰명세서에 제시된 구성요소, 품질요건, 평가방식 및 기준 등을 EU 번역기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 3.2. 분석 결과

### 3.2.1. 명세서 항목

먼저 5개 기관의 입찰명세서에 기재된 주요 구성항목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입찰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sup>27)</sup>’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세서(제안 요청서)의 주요 항목 및 낙찰자 선정 방식 모두 유사하다. 공통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1) 사업내용, 기간, 예산 등 사업개요, 2)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안 사항 등의 제안 사항,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 5) 제안서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9 참조). 입찰 방법 또한 5개 기관 모두 ‘제한경쟁입찰’,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하여,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협상적격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되어, EU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연인(그룹) 등도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EU 번역기관들과 달리,

25) 그러나 제도 법률번역의 특성인 ‘공공성’으로 인해 해당 번역 또한 일반에 공개되므로 일반 국민이 의도되지 않은 수신자(Scott 2019: 21)가 될 수도 있다.

26) 사업 금액 면으로는 국회도서관 번역사업이 연간 4억원 이상으로 가장 크며, 법령정보원의 번역사업이 연간 3억원 이상, 서울시 자치법규 번역사업이 연간 8천만원 이상, 헌법재판소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연간 3~4천만원 정도 규모이다.

27) 서울특별시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다.

5개 대상기관 모두 ‘법률적 통일성과 전문성의 필요성’을 이유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고 계약자의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표 9. 분석대상 기관 외주번역 입찰명세서 공통 구성항목**

구분	구성항목
1. 사업(과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및 번역 대상, 추진방법(입찰 및 계약 방법), 진행 일정, 대가 지급 방법
2. 제안(요청) 사항	자격요건, 기본 사항(지침), 일반 사항(지침), 세부 사항(지침)
3.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입찰 참가자격,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설명회, 제안서 평가, 협상 방법 및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4. 제안서 관련 사항	제안서 제출, 제안서 효력, 규격 및 유의사항, 작성지침
5.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번역 시안용 샘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여 인력 현황, 관련 분야 실적, 서약서 등

검토가 필요한 대목은 외주번역 계약기간 및 방식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와 CJEU의 경우 매년 입찰을 실시하는 대신 최장 4년의 기간 동안 ‘연쇄계약’ 방식을 사용하여 다수의 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우선 제안 계약자 순위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한국 대상기관들의 경우 분기별로, 또는 매년 신규 입찰을 실시하여 단일 계약자를 선정하며, 기존 계약자도 매년 신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sup>28)</sup> 이러한 방식은 업체 간 동등한 기회 보장 및 객관성 확보의 명분이 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단일 계약자로 관리대상을 일원화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내용의 입찰을 위해 매년 외부 평가자들을 동원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가 크고,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에이전시 및 번역가들이 매년 교체되어 동일한 성격의 문서에 대한 용어, 스타일상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업체들이 실제 번역 품질확보 및 개선보다는 당장의 입찰 프리젠테이션 준비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관의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EU 번역기관들에 준하여 연장 가능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되, 복수의 계약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작업 배정 순위 및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28) 법령정보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차례 외주번역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분석 대상 기관들은 매년 1차례 입찰을 실시한다.

## 3.2.2. 품질 요건

### 3.2.2.1. 언어적 요건

다음으로, 분석대상 입찰명세서상 기재된 품질요건을 DGT와 CJEU의 경우와 비교하여, 1) 언어적 요건, 2) 기술적 요건 및 IT 요건, 3) 전문인력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적 품질요건은 명세서에 따라 ‘과업수행기준’이나 ‘세부 번역 및 감수 지침’, ‘결과물 납품시 점검사항’ 등의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상 모두 번역결과물 품질지표로 분류될 수 있는 언어적 품질요건에 해당한다. 확인 결과, 국회도서관의 경우만 정확성, 가독성 등 품질지표 항목 분류 없이 품질요건이 나열되어 있고<sup>29)</sup>, 법령정보원, 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의 경우 모든 품질지표 및 세부 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즉, 법령정보원의 경우 ‘용어집’ 항목이 별도 지표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표 10 참조), 4개 기관이 모두 ‘정확성’, ‘어문규정’, ‘가독성’, ‘기능적 적합성’을 품질지표로 명시하고 세부 내용 또한 거의 유사했다(표 11 참조). 이는 기관별로 내부에서 합의된 품질기준에 따라 번역의 목적과 수신자에 맞추어 아웃소싱 품질요건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간 나라장터에 게시된 타 기관의 법률번역 입찰명세서상 품질요건을 무비판적으로 서로 참고하는 한국 번역기관의 관행을 짐작하게 한다.

제시된 언어적 품질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확성’ 지표로는 ST 내용의 왜곡이나 누락 금지, 용어 일관성, 전문용어 및 기관명, 법률명 등의 정확한 사용이 규정되고, ‘어문규정’ 지표로는 맞춤법 등 한글 어문규정의 준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준수와 번역투의 사용금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가독성’ 지표로 문장길이의 적절성과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이, ‘기능적 적합성’ 지표로는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및 명확한 표현 사용 등이 규정되고 있다. 법령정보원의 경우 ‘용어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계약자의 최종 번역본 용어집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만 나머지 기관들과 차이가 있었다.

---

29) 1) 원본과 번역본의 수량 및 내용 일치 여부, 2) 한글 어문규정 준수 여부,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준수 여부, 4) 법률 전문용어의 적절성 여부, 5) 용어의 일관성 및 통일성 여부, 6) 법률명, 기관명, 고유명사 등의 적절성 여부, 7) 가독성 및 명확한 용어 사용 여부

**표 10. 한국법령정보원 입찰명세서의 언어적 품질요건**

구분	주요 사항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문의 메시지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번역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li> <li>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li> <li>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li> <li>숫자, 고유명사, 기관명, 법률명 등의 확인</li> </ul>
어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 맞춤법 준수 ▪ 표준어 규정 준수</li> <li>외래어 표기법 준수 ▪ 로마자 표기법 준수</li> <li>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 오·탈자가 없도록 유의</li> <li>한글에 없는 번역투 사용 금지(예: 수동태, 진행형, 복수형, ‘그리고’ 및 ‘~의’ 남발) 등</li> </ul>
용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유명사(기관명), 전문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번역 작업 시, 번역용어집에 기록 및 업데이트 필수</li> </ul>
가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li> <li>일반인이 읽어도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가독성 확보 (직역이 아닌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 여부</li> </ul>
기능적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li> <li>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등</li> </ul>

**표 11. 헌법재판소 입찰명세서의 언어적 품질요건**

구분	주요 사항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문의 메시지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li> <li>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li> <li>해당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 여부</li> <li>기관명, 고유명사, 법률명 등 명칭의 정확성 확인</li> </ul>
어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 맞춤법 준수 ▪ 표준어 규정 준수</li> <li>외래어 표기법 준수 ▪ 로마자 표기법 준수</li> <li>번역투 등 어색한 표현 사용 금지(예: 수동태, 진행형, 복수형, ‘그리고’ 및 ‘~의’ 남용) 등</li> </ul>
가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li> <li>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li> </ul>
기능적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li> <li>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등</li> </ul>

그러나 상기와 같은 품질지표는 법률번역의 핵심 품질지표인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 지표가 누락되거나 기준 없이 혼합되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정확성’ 지표로 제시된 ‘메시지의 누락 금지’는 정확성 지표를 구성하는 완전성(completeness), 즉 부당한 생략이나 추가 금지에 해당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이나 ‘기관명 등 명칭의 정확성 확인’ 역시 정확한 TL 용어 사용에 해당하여 법률번역의 정확성 항목에 배치되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동일 용어에 대한 통일성 여부’의 경우 ‘정확성’이 아닌 ‘일관성’에 해당하는데, 대상 명세서들의 경우 ‘일관성’ 지표 대신 ‘어문규정’이 제시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어문규정 준수는 일관성 지표를 구성하는 하위 사항에 불과하므로 일관성 지표 하에 세부 항목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번역의 ‘합목적성’으로 볼 수 있는 ‘기능적 적합성’의 경우 ‘정확성’이나 ‘가독성’ 같은 품질지표로 분류되기보다는 품질목표나 정의에 해당하며, 세부 항목으로 제시된 ‘적절한 문체 사용’이나 ‘모호한 표현 자제’ 등은 법률번역의 ‘명확성’ 기준에 해당하여 분류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독성’으로 명시된 지표 또한 기관의 번역 목적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EU 번역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률번역 기관들은 품질지표로 ‘가독성’이 아닌 ‘명확성’을 사용하는데, 이는 독자에게 애매성(ambiguity)이 없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가독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유정주 2023a: 52). 일례로 <표 10>의 법령정보원 외주번역의 경우, 의도된 수신자가 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반 국민이므로, 일반인의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독성을 명확성 지표로 제시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표 11>과 같은 헌법재판소 외국 헌법 재판자료의 경우 헌법재판관 등을 주요 수신자로 하므로, 가독성보다는 해석상 애매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명확성 지표 제시가 권장된다. 따라서 ‘적절한 문체 사용’이나 ‘모호한<sup>30)</sup> 표현 자제’ 같은 항목은 ‘명확성’ 지표로 제시하되, 해당 번역의 목적 및 용도, 최종이용자 등은 별도의 명세서 항목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향후 계약자의 번역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문규정’ 지표로 분류된 ‘번역투 등 어색한 표현 사용 금지’ 항목 또한 가독성 관련 내용에 해당하여, ‘명확성’ 지표에 배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언어적 품질지표 자체의 문제점 외에 눈에 띄는 사항은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

30) ‘모호성(vagueness)’은 법적 비결정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법문 자체에 의도된 경우가 많아 번역가의 해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번역의 품질과 관련한 ‘명확성’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어휘적, 구조적 ‘애매성(ambiguity)’ 차원이다(유정주 2012: 111-113).

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목되는 일관성 달성 요건이 최소한의 형식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의 일치 등은 법률번역만이 아닌 모든 장르의 외주번역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관성 요건에 불과하며, 법률번역의 경우 DGT나 CJEU의 사례와 같이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일관성 차원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번역기관이 상세한 지침이나 참고 문서들을 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 번역기관들의 경우 내부 지침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거나<sup>31)</sup>, 심지어 국회도서관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 이를 계약자가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sup>32)</sup>. 상호참조 관련 자료, 이전 번역본, 기관의 스타일가이드, 승인된 용어집, 기관명, 관련 웹사이트 등의 참고자료는 법률번역 아웃소싱의 번역브리프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계약자가 아닌 의뢰인(번역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항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cott 2019: 100).

### 3.2.2.2. 기술 및 장비 요건

다음으로, 입찰명세서상 기재된 품질요건 가운데 기술적 품질요건 및 IT 등 장비관련 요건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와 CJEU의 경우 합의된 마감기한 준수 및 ST 서식 등 디자인 요건 준수, SDL XLIFF같은 기관 내 CAT 툴 파일 형식 납품, 용어데이터베이스 납품 등을 주요 기술 및 장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분석대상 명세서의 경우 마감기한 준수 및 발주기관이 요청한 양식 및 서식 준수 요건 외에 번역메모리 형식의 납품을 별도 규정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2 참조). 이는, 분석대상 기관들의 경우 내부에 번역 전담 부서 없이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두고 있거나, 번역팀이 존재하더라도 법률번역은 아웃소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별도의 내부 CAT 툴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내부 감수를 강화하여 납품 기한 내 제출 외에

31) 금융위원회의 경우 ‘법령명명, 법령용어 등은 법제처 법령용어한영사전 및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영문제명 및 법령용어한영사전을 기준으로 통일하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상위) 법령을 참고’하도록 규정하여, 분석대상 명세서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검색결과, 해당 기준은 법제처의 2013년 ‘국정과제 등 관련 법령 영문 번역’ 입찰의 제안요청서 문구와 동일하여, 기관들이 법령 영역 일관성 품질요건으로 법제처의 기준 입찰명세서를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DGT Quality Management Framework(DGT 2014)은 외주번역가들에게 번역브리프와 탭플릿, 참고자료와 번역메모리, 용어집과 피드백을 모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irovec 2020: 201).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번역결과물을 제출하여 내부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서울시의 경우 요청 시 최종본 외에도 단계별 감수본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 내부의 결과물 품질 검증 강화가 시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용어집의 경우 법령정보원과 국회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용어집은 정기적으로 법률번역을 발주하는 분석대상 기관들의 ‘일관성’ 품질지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의 경우 법령 등의 외주번역시 신규 용어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알리고 처리 여부를 상의하도록 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용어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은 EU 기관들과 달리 IATE와 같이 검증을 거친 기관 공통 용어데이터베이스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 기번역 용어들과의 일관성 달성은 최소한의 제도 법률번역 품질보장을 위한 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대상 기관들의 경우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신규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기 때문에, 신규

**표 12. 분석대상 입찰명세서의 기술 및 장비 관련 품질요건**

발주기관	기술적 요건 및 장비 요건
한국법령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 기한 내에 워드파일(번역문 및 원문의 2단 편집본)로 번역결과물 납품. 도표, 수식이 있는 경우 원문과 유사한 형태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편집</li> <li>·납품 시 번역결과물의 목록, 번역용어집,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을 엑셀파일로 함께 제출</li> </ul>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출물은 아래아 한글파일(건별)로 제출하며, 제출 시 번역자, 원어민 감수자, 데스크급 감수자, 최종관리자의 실명 기재</li> <li>·발주부서 요청 시 번역본, 언어민 감수본, 데스크급 감수자의 감수본, 최종본 등 단계별 파일로 제출</li> </ul>
헌법재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업 완료 시까지 월 1회 이상 현재 진행 중인 번역 결과물을 제출</li> <li>·발주기관 요청 양식 및 서식 준수(원문의 하이퍼링크, 책갈피 등 기능 유지)</li> </ul>
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번역 요구 시 주관부서의 요구 기한 내 번역</li> <li>·결과물 납품은 워드파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편집양식에 따라 제출. 사업완료 후 용어집 납품</li> <li>·납품시 번역자 및 검토자의 성명, 이력서,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물은 원본 전자파일 및 번역물 CD 2장으로 제출하며, 납품 시 번역자 및 감수자의 성명, 이력서, 감수결과를 함께 제출</li> <li>·감수의 용이성을 위해 문단별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한 표를 작성하여, 왼쪽표엔 한글, 오른쪽 표엔 번역어를 작성해 제출</li> </ul>

계약자에게 검증된 기존 번역용어들을 정리한 용어집을 제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새롭게 발생한 용어들을 제출받아 내부 검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용어집으로 수립함으로써 제도번역의 표준화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3.2.2.3. 전문인력 요건

다음으로, 분석대상 입찰명세서 품질요건 가운데 번역가, 감수자 등 인력 관련 요건을 살펴본다. 상기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DGT와 CJEU의 경우 법률번역 외주번역 시 이중언어 및 단일언어 감수 후 납품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번역가 요건과 감수자 요건을 모두 제시한다<sup>33)</sup>. 한국의 경우에도 법령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기관들은 번역자와 감수자를 참여 인력으로 명시하고, 번역자와 감수자에 동일하거나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표 13 참조). 또한 모든 기관들이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이 아닌 제3자가 번역을 수행하여 결과물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역 및 감수에 참여한 작업자를 산출물 제출 시 명시하도록 하는 ‘작업자 실명제’를 규정하고, 참여 인력 변경 시 사전에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ISO 국제표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위 및 경력 요건을 규정하는 EU 기관들과 달리, 분석기관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법률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와 같이 모호한 요건을 제시하거나(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 명시적인 학위 요건을 두지 않거나(서울특별시, 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 경력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가 다수여서, 해당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법률번역 전문 국제표준인 ISO 20771은 법률번역가 및 이중언어 감수자(reviser), 단일언어 감수자(reviewer)<sup>34)</sup>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학위 및 경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번역가 및 이중언어 감수자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단일언어 감수자는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유정주 2023b: 106). 따라서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도 ISO 20771 등 관련 표준에 준하여, 외주번역 인력 품질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품질보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3) CJEU의 경우 입찰명세서상 별도의 감수자 요건을 명시하지 않지만, 번역 및 감수를 모두 수행하는 상근 법률언어전문가 자격요건에 준하여 외부번역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부 감수자 역시 번역가 요건과 동일한 법률언어전문가 요건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34) ISO 20771의 경우, 정보제공 목적의 법률번역이라 하더라도 공식 문서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중언어 감수 후 단일언어 감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유정주 2023b: 104).



표 13. 분석대상 입찰명세서의 인력 품질요건

발주기관	전문인력 요건
한국법령정보원	·11개 언어에 대한 석·박사급 외국어 고급 능력을 갖춘 전문 번역사 (법률번역 업무 수행 경력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번역자: 최근 3년간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영문·중문 번역을 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통번역 전문가 ·감수자: 1) 원어민 감수자: 미국·영국 영어/ 중국어 표준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2) 내국인 감수자: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영문(한영)·중문(한중) 번역 경험이 풍부한 자
헌법재판소	·번역자: 원문의 의미와 형식을 충실하게 번역하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전문인력 ·감수자: 별도의 감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최종 감수시 번역·감수자가 공동으로 교정작업을 수행할 것
국회도서관	·번역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번역자 그룹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그룹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번역자 및 검토자는 석·박사급 법학 전공자, 또는 외국어 고급 능력을 갖추고 외국 법률분야 번역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이어야 함.
금융위원회	·번역 및 감수자는 영어에 능통하고 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일 것. ·감수자는 해당 외국어 번역 경험 다수인 자로서, 신뢰할만한 경력을 가진 자로 우선 구성할 것.

또한 대상 기관들의 경우, 제안서 설명회 시 프로젝트관리자(PM)의 직접 발표를 명시한 것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관리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GT의 경우 외주번역의 핵심인력으로 기관과 번역자, 감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PM의 자격요건을 입찰명세서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의 경우 내부번역팀의 부재로 납품된 외주번역 결과물을 외부 공개하기 전에 내부에서 추가 감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주계약자 PM의 법률번역 관련 전문 역량과 관리 능력이 품질보증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입찰 제안서에 첨부하는 참여인력 이력 사항에 번역자와 감수자 외에도 PM 이력을 별도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3.2.3. 평가방식 및 기준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기관들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기관들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식 및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위 결정방식 역시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어, 5개 기관의 평가방식에 내용상 차이가 없었다. 제안서 평가방식은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평가 점수 9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에 80점을, 입찰가격 평가에 2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 기관들의 경우 법률번역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기술능력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기술평가를 위한 항목 및 배점은 분석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일례로 금융위원회의 경우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시안의 질적 수준 등 사업계획 부문이 총 25점, 2) 제안업체의 조직 현황, 재무구조, 인력관리, 사업수행 실적 등 업체 현황이 총 15점, 3) 번역 및 감수 공정의 적정성 등 사업공정이 15점, 4) 번역 및 감수 인력의 전문성 등 인력 부문이 20점, 4) 품질 문제 발생 시 사후 지원 능력 등 품질보증이 총 15점으로, 합계 9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20점 또는 15점)과 번역 시안 평가(20점 또는 15점), 번역 및 감수공정의 적정성(15점), 사후 품질보증 능력(15점) 등으로, 기관들이 인력 품질요건 및 번역시안 품질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품질 70%, 가격 30%의 가중치를 두는 DGT와 CJEU보다 기술평가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일견 품질에 절대적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DGT와 CJEU의 경우 참여인력의 전문역량이나 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등은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최소 전문 요건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통과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참가자의 경우 품질 70%, 가격 30%의 낙찰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이 가운데 품질(70%)은 전적으로 번역 시안을 통해서만 평가되거나(CJEU), 번역 시안(80점)과 프로젝트관리 테스트(20점)로 평가되므로(DGT), 한국의 낙찰기준에 비해 테스트번역의 품질에 절대적 가중치

35) 금융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능력평가 비율 상향 조정 사유로,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양질의 번역결과물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헌법 및 법률분야와 관련하여 풍부한 번역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정부기관은 모두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기술능력 평가 항목이 인력·조직·관리 기술,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재무구조,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 역시 30점<sup>36)</sup>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외주번역을 위한 용역과 기타 용역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이 유사하고, 높은 결과물 품질이 요구되는 법률번역과 일반 번역의 평가 역시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관별로 정형화된 계약예규를 계약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 4. 결론 및 제언

본고는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환경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외주번역의 품질보증 관행을 법률번역 기관들의 입찰명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번역기관이자 대표적인 법률번역기관인 DGT와 CJEU의 외주번역 품질보증 방안을 입찰명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 법률번역 기관들이 외주번역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입찰명세서상 기재된 품질요건 등은 간략하고 형식적인 반면, 제안서의 형식과 관련한 요건은 지나치게 상세하여, 효과적인 번역명세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U 번역기관들의 경우 명세서에 입찰 참여를 위한 철저적 사항 외에도, 계약의 주제, 해당 번역의 목적 및 언어적, 기술적, 인적 품질요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기관의 품질기준을 제공하는 번역브리프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번역의 목적, 의도된 수신자, TT의 지위 등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거나, 제시된 품질 요건 등도 해당 번역의 목적과 상관없이 서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계약자에게 유의미한 품질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은 절대적 ‘충실성’의 달성이 아닌 제

---

36)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어 있어, 기관별로 항목 구성이나 배점 상 차이가 매우 작다.

시된 ‘명세’의 충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명세서상 품질 요건이 형식적으로 제시 될 경우, 외주번역 품질에 대한 검증이나 품질평가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언어적 품질 요건 가운데 일관성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관성은 제도 법률번역의 핵심 결과물 품질 지표로서, 제도 법률번역의 목표인 ‘표준화’ 달성을 위한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이 DGT나 CJEU와 같이 계약이행 조건으로 상세한 일관성 관련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관련 지침 및 참고자료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번역지침, 스타일가이드, SL, TL 참고자료, 번역메모리, 용어집 등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현재와 같이 법률번역의 상호텍스트적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어문규정’ 준수 위주의 일관성 요건만을 규정하거나, 일관성 준수 대상을 계약자가 스스로 제시하도록 하는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

셋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종류의 용역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입찰 평가방식 및 사업 운용 방식 등을 기관의 번역 목적과 내부 역량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점수가 90점에 달하지만, 기술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번역결과물 품질에 해당하는 시안평가는 15점에서 20점 정도에 불과하고, 업체 현황이나 사업공정, 사후 지원 방안 등에 배점 항목이 분산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규모가 크고 수주 실적이 많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EU 기관들과 같이 업체 현황, 인력구성, 품질보증 방안 등은 협상적격자 선정 시에만 고려하고, 낙찰기준은 기관의 번역 목적 및 수신자 등을 고려한 결과물 품질평가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내부의 상근 번역팀이 부재하고 품질관리자 수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DGT와 CJEU 같이 상시적인 내부 평가를 통한 연쇄계약 방식을 적용하거나, 법인이 아닌 프리랜서 외주번역가들을 도급계약을 통해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매년, 매분기 신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품질 관련 불만 요소를 해소해 오고 있으나, 이는 예산 낭비를 야기할 뿐 아니라 참여 인력이 계속 변경됨으로써 법률번역의 핵심 품질 지표인 일관성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에이전시의 경우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수준보다 낮은 번역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실력 있는 법률번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U 기관

들과 같이 복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장기의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작업배정 물량과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번역에서 비용 및 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번역의 경우 품질을 훼손하는 효율성 추구는 유의미할 수 없다. EU 번역 기관들이 법률문서의 외주번역 시 이중언어, 단일언어 감수까지 완료해 ‘즉시 공개 가능한’ 수준의 번역을 납품받더라도 해당 번역 전체에 대한 내부의 이중언어 감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법률번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품질보장 절차를 강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고의 논의 결과로 한국의 법률번역 기관들이 외주번역 품질보증 절차를 검토하고, 기관의 역량과 번역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입찰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박지영. (2016). 「번역명세서 분석을 통한 번역 의뢰인의 니즈 고찰: 정부 기관의 번역명세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2): 1-26.
- 유정주. (2012). 「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가의 해석문제: 대한민국법령의 ‘등’, ‘및’, 가운데딴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109-141.
- 유정주. (2023a).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 대한 고찰: 개념, 범주, 품질지표」. 『번역학연구』 24(1): 39-70.
- 유정주. (2023b).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품질보증모델 수립을 위한 예비 연구- ISO 20771 및 EU 번역기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7(3): 95-129.
- Biel, Ł. (2017). Quality in institutional EU translation: Parameters, policies and practices.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31-58.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3a). Tender Procedure COJ-PROC-23/005 Tender Specifications (online) Retrieved from [http://curia.europa.eu/jcms/jcms/Jo2\\_10741/en/](http://curia.europa.eu/jcms/jcms/Jo2_10741/en/) on 20 July 2023.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2023b). Tender Procedure COJ-PROC-23/005 Framework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ranslation Servic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curia.europa.eu/jcms/jcms/Jo2\\_10741/en/](https://curia.europa.eu/jcms/jcms/Jo2_10741/en/) on 20 July 2023.
-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17). Translation Quality Info Sheets for Contractors (online)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6/translation-resources-quality-infosheet\\_en.pdf](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6/translation-resources-quality-infosheet_en.pdf) on 27 July 2023.
-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23a). Management plan 2023 (online)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3-05/dgt\\_mp\\_2023\\_en\\_0.pdf](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3-05/dgt_mp_2023_en_0.pdf) on 30 July 2023.
-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23b). TRAD23 Tender specifications (online) Retrieved from <https://etendering.ted.europa.eu/cft/cft-documents.html?cftId=13385> on 25 July 2023.
-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23c). TRAD23 General info session PowerPoint slid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calls-tender-european-commission/trad23\\_en](https://commission.europa.eu/calls-tender-european-commission/trad23_en) on 22 July 2023.
- Drugan, J., Strandvik, I. and Vuorinen, E. (2018). Translation quality, quality management and agency: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In J. Moorkens, S. Castilho, F. Gaspari, and S. Doherty (e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Vol 1. Berlin: Springer, 39-68.
- ISO 17100:2015 (2015). Translation services – Requirements for translation services. Geneva: ISO. Retrieved from <https://www.iso.org/standard/59149.html> on 10 February 2023.
- ISO 20771:2020 (2020). Legal translation – Requirements. Geneva: ISO. Retrieved from <https://www.iso.org/standard/69032.html> on 7 February 2023.
- Koskinen, K. (2014).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art of government by translation. *Perspectives* 22(4):

479-492.

- Koźbiał, D. (2017). Two-tiered approach to quality assurance in legal translation 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155-174.
- Šarčević, S. (2018). Challenges to legal translators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F. Prieto Ramos (ed.), *Institutional 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Enhancing Quality in Multilingual Legal Communication*. London: Bloomsbury, 9-24.
- Scott, J. R. (2019). *Legal Translation Outsourc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irovec, S. (2020). Achieving quality in outsourcing. *Babel* 66(2): 193-207.
- Sosoni, V. (2011). Training translators to work for the EU institutions: luxury or necessity?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6: 77-108.
- Strandvik, I. (2017). Evaluation of outsourced translations. State of play in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123-137.
- Strandvik, I. (2018). Towards a more structured approach to quality assurance: DGT's quality journey. In F. Prieto Ramos (ed.), *Institutional 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Enhancing Quality in Multilingual Legal Communication*. London: Bloomsbury, 51-62.
- Svoboda, T. (2017). Translation manuals and style guides as quality assurance indicators: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In T. Svoboda, Ł. Biel, & K.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75-107.

This paper was received on 23 October 2023; revised on 6 Dec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

***Author's email address***

jeongjuy@naver.com

***About the author***

Jeongju Yoo is a researcher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She earned a PhD in Translation Studies from the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in 2016.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egal translation, legal translation assessment and pedagogy, and corpus linguistics as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studies.





##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비동기식 음성해설\*

- 넷플릭스 상영 영화 사례 분석 -

이상빈\*\*

**Sang-Bin Lee (2023). Overcoming temporal barriers in audio description: A study of non-synchronic strategies in Netflix movies.** *This study delves into the intricate challenges and innovative techniques associated with overcoming time constraints in audio-described movies.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audio describers when narrating events or on-screen credits that overlap the film's original soundtrack. To shed light on this complex task, the research analyzes scenes from four movies available on Netflix, namely "True Grit," "The Midnight Sky," "Hold the Dark," and "World War Z." This analysis highlights four pivotal techniques employed by seasoned audio describers: inserting, grouping, catching-up, and pre-describing. Each technique is explored comprehensively, offering nuanced insights that are invaluable to both practitioners and scholars in the field of audio descrip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audiovisual content amid the increasingly inclusive media landscape, paving the way for a more equitable viewing experience for all audie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Keywords: undecipherability (indecipherability), the visually impaired, guidelines for audio description (AD), non-synchronic description, strategies for AD**

**주제어: 해설 불가능성,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지침, 비동기식 해설, 음성해설 전략**

---

\* 본 논문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정교수

# 1. 서론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에서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이 어려운 이유는 화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공간(대화, 노래 등이 없는 공간)이 상세한 묘사가 가능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용어(이 논문에서는 ‘해설 불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듯싶다)가 떠오를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절대적일 때도 있다. 예컨대 1인칭 나레이션 영화 ‘더 킹’의 끝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나레이션(인용문)과 화면(그림 1)이 동시에 나온다.

내[주인공 박태수-조인성]는 사기꾼이자 양아치였고  
권력을 위해 충성하는 개였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며 속이고 잘 먹고 잘 살아왔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히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은 돌아간다  
그 평범한 샐러리맨 같던 선배 검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어 결국 부장검사가 되었고...



그림 1. 영화 ‘더 킹’의 마지막 장면 일부

박태수의 나레이션은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은 연속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면 정보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면, 그 해설 방식은 창의적이거나 변칙적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음성해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고, 그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오리지널 사운드로 인해 화면을 해설할 수 없는 경우 전문 음성해설 작가들이 어떻게 화면 정보를 전달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성과 화면 간 괴리가 있는 영화 장면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해설할 수 없는 화면 내용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소개한다.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음성해설의 세부 내용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음성해설의 문제와 해결책을 사례 중심으로 보고하는 데 있다. 즉,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음성해설 실무자나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이며,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제언에 가깝다. 번역학계의 초기 연구를 돌이켜 보면, 많은 분야에서 번역 전략과 방법에 관한 사례 분석이 주를 이뤘다. 마찬가지로, 음성해설이 국내 번역학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 소개할 내용은 짧게나마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논문 제3장에서 소개할 음성해설 사례들은 문제 상황과 해결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오랫동안 수집한 자료이다.

분석 사례는 넷플릭스 음성해설 영화 ‘더 브레이브(True Grit)’, ‘미드나이트 스카이(The Midnight Sky)’, ‘늑대의 어둠(Hold the Dark)’, ‘월드 워 Z(World War Z)’에서 발췌한 것이다. 네 편의 영화는 원어와 음성해설 모두 영어<sup>2)</sup>이며 2023년 초에 서비스된 콘텐츠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OTT 서비스이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도 접근성 차원에서 유용한 자료원으로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음성해설 서비스의 수와 다양성<sup>4)</sup> 측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기에, 필자의 탐구 주

- 
- 1) 화면 정보를 원문, 음성해설을 통역이라고 생각하면, 음성해설과 동시통역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이 때문에 프라이어(Fryer 2019) 등은 음성해설과 동시통역을 비교한다). 음성해설의 동시성은 동시통역에서의 마찬가지로 약간의 시차가 허용되는 동시성이다. 실제 여러 영화를 보면 음성해설이 해당 화면 정보보다 2~3초 늦게 나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2) 영어 음성해설만 서비스된 건 아니다. 가령 ‘미드나이트 스카이’에는 독일어 음성해설도 있다.
  - 3) 최근 이용자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용자 수에서는 압도적이다. 2022년 4분기 기준,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일 평균 약 117만 명으로 추정된다(김세화 2023. 4. 12.).
  - 4) 2023년 7월 중순 현재, 음성해설 제공 건수는 약 2,300개다(ADP, n.d.).

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찾기도 적합했다.

## 2. 관련 논의

### 2.1. 음성해설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연구

국내 번역학계의 음성해설(화면해설) 연구는 최근 4~5년 동안 일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 번역학의 일반 하위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초창기 음성해설 연구는 기술적(記述的) 성향이 강하고 주로 실무 요소들을 다룬다.<sup>5)</sup> 가령, 음성해설 작법(번역 전략과 방법)이나 작법에 영향을 주는 시청각 요소들은 최근 번역학 연구의 핵심 소재였다. 이상빈(2020), 서수연과 이상빈(2021), 윤미선(2022), 전민경과 윤미선(2023)이 대표적인 사례다.

음성해설 전략이나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시청각 요소들을 코딩한 후 정량·정성 분석의 세부 내용을 균형 있게 보여준다. 일례로 서수연과 이상빈(2021)은 드라마 다섯 편에서 확인한 111건의 몸짓언어(body language)를 여섯 가지 전략(“직역”, “명시화”, “일반화”, “생략”, “조합”, “해석”)으로 분류한 후 그 함의를 간략히 논의한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명시화(explicitation)의 빈도가 특히 높았는데, 이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작가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좀 더 최근에는 전민경과 윤미선(2023)이 비슷한 맥락에서 번역학 초기 연구의 인기 소재인 ‘문화 관련 어휘(cultural references)’를 탐구한 바 있다. 두 연구자는 드라마 <파친코>에 포함된 107건의 ‘언어 외적 문화지시체(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를 일곱 가지 전략(“일반화”, “대체”, “보존”, “구체화”, “직역”, “생략”, “전략 결합”)으로 분류한 후, 가장 많이 쓰인 전략이 일반화(63건)임을 확인한다. 이처럼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는 앞서 출판된 이상빈(2020)의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기존 연구자들은 음성해설의 시공간적 제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지 않았으며, 음성해설 작가들이 해설 불가능성을 우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성해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

---

5) 번역학 연구자의 논문에 한정한다. 화면해설에 관한 연구는 타 학문 분야에서 제법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대개는 제도·문화적 요소와 관련돼 있다.

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변칙적인 해설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2.2. 음성해설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의 문제

본 연구는 음성해설 영화에서 오리지널 사운드 때문에 발생하는 ‘해설 불가능성’의 문제를 다룬다. 해설 불가능성(undescribability)<sup>6)</sup>이란 해설할 대상의 내재적 속성이나 요소로 인해 음성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해외 번역학이나 음성해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필자가 만든 말이다. 해설 불가능성은 해외에서도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다뤄진 바가 없고, 기존의 사례 분석에서도 탐구 주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음성해설이 불가능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을 때 크레딧 등의 온스크린 텍스트(on-screen text)를 해설해야 할 때고,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을 때 이와는 관계없는 행동이나 장면을 해설해야 하는 때다. 이런 상황들은 음성해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지만, 국내외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다만 일부 음성해설 지침을 보면 짧게나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애드랩(ADLAB)<sup>7)</sup> 지침이나 넷플릭스 지침에는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 먼저, ‘넷플릭스 음성해설 스타일가이드(v2.5)’에 포함된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A)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설할 내용이 너무 많을 때는 등장인물을 점진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 (B)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대사 중에 해설을 할 수 있다. 가령, 해설이 없으면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다.
- (C) 온스크린 텍스트는 동기적 또는 비동기적으로, 직역 또는 의역으로, 해설할 수 있다.
- (D) 행동 등을 해설해야 할 시점에 크레딧도 해설해야 한다면, 그룹화(grouping) 같은 방식으로 해설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 시간이 있다면 크레딧을 해설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크레딧을 요약식으로 해설할 수 있

6) 번역 불가능성, 즉 untranslatability를 연상시키고자 undescribability로 번역했다. 흔히 쓰이는 indescribable은 ‘형언할 수 없는’ 등의 함의가 강하고, undescribable은 indescribable의 유의어로 등재된 단어이다.

7) EU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음성해설 연구/실무 프로젝트이다(<https://www.adlabpro.eu/>).

다. 크레디트는 나오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한다. ‘제작사’, ‘작가’, ‘감독’, ‘주연’, ‘프로듀서’, ‘책임프로듀서’, ‘촬영감독’, ‘편집자’, ‘음악/사운드 담당자’ 등은 오프닝 및/또는 엔딩 크레디트에서 해설할 필요가 있다.<sup>8)</sup> (Netflix Partner Help Center, n.d.)

(A)에 따르면 인물을 해설할 때는 한 번에 묘사하지 않고 나눠서 묘사할 수도 있다. 만일 이 지침을 폭넓게 해석하면, 인물이 아닌 다른 대상들도 무조건 한 번에 해설하지 않고 묘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번역학 연구에서 종종 거론되던 ‘보상(compensation)’ 개념과도 비슷하다. 보상이란 원문의 특정 요소를 번역문의 다른 곳에서 재현함으로써 원문의 의도된 효과를 살리는 전략이다(Baker 2018: 87). (B)는 등장인물의 말과 음성해설 성우의 말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음성해설의 기본 원칙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영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해설하기 위해 대사와 음성해설이 일부 겹치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C)는 온스크린 텍스트의 해설 시점뿐만 아니라 해설 방법도 소개한다. 음성해설은 동시통역처럼 흔히 동기식으로 처리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비동기식으로도 할 수 있다. 비동기식(non-synchronic/asynchronous) 음성해설이란 진행 중인 콘텐츠 장면과는 확연히 다른 시점에서, 목표한 내용을 해설하는 방식이다. (C)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번역 방법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해설 방법은 직역(literal)의 형태를 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타말라(Matamala 2015)의 지적처럼 패러프레이즈 등의 형태로도 음성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C)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동기식 해설이 필요한 경우 직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D)는 크레디트의 해설 시점을 설명한다. 대사가 지속되고 있을 때 크레디트가 함께 나온다면 크레디트를 다른 지점에서 해설할 수 있고, ‘주연’, ‘프로듀서’, ‘책임프로듀서’, ‘촬영감독’, ‘편집자’ 등의

---

8) 편의상 인용문에 (A)~(D)를 추가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In case of time constraints or information overload, characters should be described gradually. (B) Description over dialogue should be utilized only as a last resort, for example where the plot cannot unfold properly without a description being added. (C) Text may be rendered synchronously or asynchronously, verbatim or paraphrased. (D) If these [credits] interfere with simultaneous dialogue and action, timing adjustments may be made, such as grouping, to introduce the text before or after the actual credit appearance. Credits will be included as time permits. They may be condensed if time is limited. Prioritize credits in order of appearance. Aim to have the following credits described during opening and/or closing credits. - Creator, Writer, Director, Main Cast, Producer, Executive Producer, Director of Photography, Editor, Music & Sound by (Netflix Partner Help Center, n.d.)

크레디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 대부분은 애드랩 지침에도 있다. 전술한 내용은 제외하고, 추가할 만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E)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는 가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해설이 서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사와 시각적 요소(화면 내용)가 모두 중요하지 않다면, 얼마나 해설이 필요한지부터 결정하라. 가사는 중요하지 않으나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면, 노래가 나오는 동안 시각적 요소를 해설하라. 가사와 시각적 요소가 모두 중요하면, 해설이 노래와 얼마나 겹칠지를 판단하라.
- (F) 앞에서 나온 요소들을 고려하여, 온스크린 텍스트를 해설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고, 만일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 해설할지를 판단하라. 예를 들어, 보이는 대로 해설할 수도 있고, 축약하여 해설할 수도 있다. 온스크린 텍스트를 해설할 때는 해설 공간을 고려하여, 텍스트가 스크린에 나타나기 전이나 후에, 동기적으로 전달한다.<sup>9)</sup> (Remael et al. 2015)

인용문 (E)는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 음성해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상황별로 소개한다.<sup>10)</sup> 가령, 실시간 화면은 중요한데 가사에 큰 의미가 없다면, 노래가 나오고 있어도 화면 내용을 해설해야 한다. 끝으로, (F)는 온스크린 텍스트의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온스크린 텍스트는 동기식으로 해설할 수 있다.<sup>11)</sup>

---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E) If dealing with music with vocals, determine how meaningful the lyrics are and whether describing the visuals is important for the narrative. If the lyrics are not meaningful and the visuals not important, decide how much description is needed. If the lyrics are not meaningful and the visuals are important, describe what is happening during the song. If the lyrics are meaningful and the visuals important, decide to what extent the AD [audio description] may overlap with the lyrics. (F) Based on the previous elements, decide whether or not it is necessary to render the text on screen orally in your AD and, if so, decide what strategy you will use to render it, e.g. literal rendering, or a (condensed) paraphrase. Additionally, establish whether you will render the text on screen synchronically, before it actually appears on the screen or afterward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le silent gaps.

10) 노래와 음성해설이 겹치는 문제는 최근 국내에서 제작된 음성해설 지침에도 언급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뮤지컬엔[뮤지컬에서는] 유일하게 내용(노래)과 [해설이] 겹쳐질 수 있음. 노래의 가사를 훼손하지 않고 전달해야 하므로 1절은 보존하고, 2절이나 후렴에서 음성해설[을 할 수 있음]. 주석: 단, 노래와 겹칠 수 있다고 모든 노래를 음성해설로 덮으면 원작을 훼손시켜 시각 장애인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노래 가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므로 연출가나 음악 감독과 잘 의논하여 노래를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머스와 서수연 2021: 12)

11) 간단한 사례도 있다. 다만,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세한 사례 분석은 아니다. 영화 *The Ladykillers*의 오프닝/엔딩 크레디트: (1) “Touchstones Pictures presents Tom Hanks, Irma P. Hall, Marlow Wavans, J.K. Simmons, Tzi Ma, Ryan Hurst, George Wallace, Diane Delano, Stephen Root,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일부 지침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사례를 통한 설명 이라기보다는 주로 원론적 차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해설해야 할 화면 내용을 해설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우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국내에서 음성해설 실무와 관련된 사례 보고가 부족하고, 번역학에서 음성해설 논문이 손에 꼽을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 장에서 소개할 사례 분석은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음성해설 지침이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그간의 지적(이상빈 2019)을 고려하면, 음성해설의 난제를 사례 중심으로 다루는 본 논문은 실무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 3. 넷플릭스 음성해설 사례분석

지금부터는 넷플릭스 음성해설 영화 네 편<sup>12)</sup>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음성해설의 난제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소개할 영화 장면은 음성해설의 기법을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sup>13)</sup> 사실 다른 영화 사례도 몇 건 확보했으나 내용이 비슷하여, 해설 전략의 다양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가지 사례로만 분석을 제한하였다. 각 사례에서 소개할 해설 방법은 ‘끼워넣기’, ‘모으기’, ‘따라잡기’, ‘미리하기’로 명명한다.

#### 3.1. 끼워넣기(Inserting) — 더 브레이브(True Grit)

‘더 브레이브’는 14세 소녀의 복수를 그린 서부영화이다. 주인공 매티 로스는 아버지를 살해한 무법자 톰 채니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젊은 시절 약명 높았던 보

---

Greg Grunberg in *The Ladykillers*” (비동기식 직역), (2) “Miramax Films presents a Film Colony production. Johnny Depp, Kate Winslet, Julie Christie, Radha Mitchell and Dustin Hoffman. Based upon the play *The Man Who Was Peter Pan*, by Allan Knee. And inspired by true events” (비동기식 축약 번역)

- 12) 2023년 초에 서비스 중인 영화였다. 2023년 여름에는 ‘더 브레이브’와 ‘월드 위 Z’가 서비스 목록에서 빠졌다. 한국어 음성해설이 있는 영화는 수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영어 음성해설 영화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 13) 본 연구에서 어떤 가설이나 주제를 검증하거나 모든 전략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다. 필자가 논할 장면들은 음성해설 영화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사례가 아니며, 음성해설 대본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영화를 보지 않는 이상, 연구 주제에 맞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필자는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음성해설 영화 수십 편을 무작정 시청한 셈이다.



안관 루스터 카그번을 고용해 채니를 추적하기로 한다. 로스는 아버지 유품인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비장한 각오로 복수의 길을 떠난다. 하지만 모자가 너무 커서 안쪽에 종이를 구겨 넣고서야 모자를 쓸 수 있었다(그림 2). 모자를 쓰는 상황에서는 진행 중인 화면과 관계없는 로스의 독백<sup>14)</sup>이 이어진다. 따라서 모자를 쓰는 행위는 실시간으로 해설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림 2. 매티 로스가 아버지 유품인 모자를 쓰는 장면

이 영화에서 로스의 옷차림은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주인공의 외모는 음성해설의 대상(Piety 2004: 11)인데다, 이 복장은 영화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자와 옷은 아버지에 대한 딸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3. 매티 로스가 아버지 옷차림을 하고 카그번을 만나는 장면

흥미롭게도 모자에 관한 음성해설은 약 3분 후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나온다. 카그번이 어린 로스를 남겨두고 복수를 대신해주겠다며 떠났는데 로스가 말을 타고 뒤쫓아와 카그번과 재회하는 장면에서다(그림 3). 카그번이 로스에게 말을 건네기 직전, 다음과 같은 음성해설이 나온다.

14) 어머니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 내용이다. 톰 채니가 황야로 갔대서 보안관하고 쫓아가려고요(33:05) / 옳은 일은 말고 나가길 아빠도 바라실 거예요 / 제 걱정은 마세요(33:10)...

She wears her father's wide-brimmed hat which is packed with paper to make it fit.<sup>15)</sup>

이처럼 모자에 관한 해설은 ‘모자에 종이를 접어 넣는다’가 아닌, ‘맞게 쓰려고 종이를 넣어둔 모자(hat which is packed with paper to make it fit)’로 나타난다. 즉,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인물의 행위가 아닌 모자의 상태로 해설한 것이다. 이 같은 음성해설은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첫째, 모자에 관한 해설이 나오는 장면(그림 3)에서 카그번도 로스의 달라진 복장을 처음 보게 된다. 즉, 카그번의 시선으로 보면 로스의 복장은 매우 독특한 상태이니, 이때 모자를 해설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시각 장애인도 이 시점에서 로스의 복장을 처음 인지하게 된다). 다만, 보이지 않는 ‘모자 속 종이’를 해설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해설해야 한다’는 음성해설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모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그림 2)과 모자에 관한 음성해설이 나오는 장면(그림 3) 사이에는 모자를 설명할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다. 모자를 설명할 만한 ‘물리적’ 공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서 갑자기 모자를 설명했다면 이야기 전개가 어색했을 것이다.<sup>16)</sup>

이처럼 음성해설 영화에서는 인물의 발화로 인해 진행 중인 상황을 해설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한 시점과 상황을 찾아 요약 식으로 해설을 끼워 넣는 것이다. ‘끼워넣기’를 할 때는 시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진행 중인 영화 상황에도 최대한 맞아야 한다.

### 3.2. 모으기(Grouping) — 미드나이트 스카이(The Midnight Sky)

두 번째 소개할 음성해설 방법은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으기’이다.

‘미드나이트 스카이’ 시작 부분에는 배우, 제작진 이름 등이 하나씩,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오프닝 크레딧 형태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 오거스틴(조지 클루니)이 술잔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

15)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음성해설(영어)은 필자가 듣고 옮긴 것이다. 음성해설 대본은 일반 자막과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16) 시간도 넉넉하지 않아 모자를 해설하려고 해도 매우 빨리 말해야 한다.

있는데, 이때 George Clooney라는 크레디트가 등장한다(4분 19초, 왼쪽 이미지). 한편 주인공이 침대에서 괴로워하는 장면에서는 Based on the book “Good Morning, Midnight” by Lily Brooks-Dalton[본 영화의 원작 소설: 릴리 브룩스-달톤의 “굿모닝 미드나이트”]이라는 크레디트가 나온다(8분 36초, 오른쪽 이미지). 이처럼 영화 제작 및 배우와 관련된 크레디트는 꽤 오랫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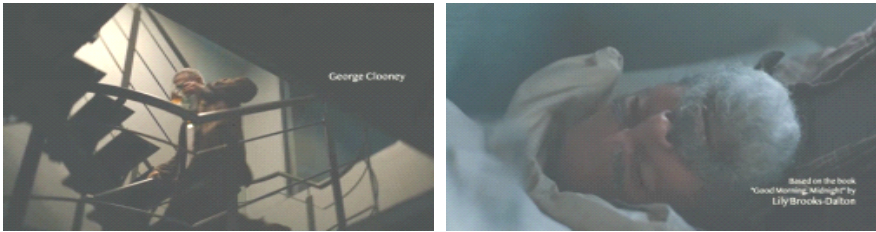


그림 4. 배우 이름(좌)과 영화 원작(우)을 알려주는 크레디트

크레디트는 일반적으로 음성해설의 대상이다(Marzá Ibañez 2010: 147). 그런데 이 영화의 오프닝 크레디트의 경우, 해설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예를 들면 <그림 4>의 오른쪽 장면에서는 영화 원작을 해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이에 반해 ‘짧은’ 오거스틴이 강연하는 장면(약 6분 44초)에서 나오는 Music by Alexandre Desplat 같은 크레디트의 경우, 해설하기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영화의 음성해설 성우는 해설 가능 여부를 떠나, 제작진과 관련된 오프닝 크레디트를 실시간으로 해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프닝 크레디트 정보가 영화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면 ‘오프닝’ 크레디트를 영화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가 끝나면 아주 오랫동안 배우 이름 등이 엔딩 크레디트로 나오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해설을 들을 수 있다.

Credits: George Clooney / Felicity Jones / David Oyelowo / ... / Music by Alexandre Desplat / ... / Edited by Stephen Mirrione, A.C.E. / ... / Director of Photography Martin Ruhe, A.S.C. / ... / Based on the book “Good Morning, Midnight” by Lily Brooks-Dalton ...

이 음성해설은 영화 첫 부분에서 읽지 않았던 오프닝 크레딧과 정확히, 순서 까지도, 일치한다. 즉, 음성해설이 이뤄져야 했을 곳에서 약 105분 뒤에 오프닝 크레딧이 해설되는 셈이다.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오프닝 크레딧과 엔딩 크레딧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어느 한쪽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이 영화에서는 엔딩 크레딧 장면이 길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상황에서 음성해설을 막을만한 청각적 요소가 거의 없다.<sup>17)</sup> 따라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크레딧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선택은 원작 정보를 생각할 때 더욱더 의미가 있다.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그림 4>에서 확인한 원작 정보이다. 이 정보가 영화 시작 부분에서 해설될 수도 있었지만, 엔딩 크레딧 부분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처리된 것이다. Based on the book “Good Morning, Midnight” by Lily Brooks-Dalton이라는 문구가 엔딩 크레딧에 없는데도 말이다.<sup>18)</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음성해설 작가는 영화 시작 부분에서 제작 관련 크레딧을 해설하지 않고, 모든 크레딧 정보를 영화 끝으로 보낸 것이다.

요약하면, 음성해설 영화에서는 크레딧 정보를 한곳에 몰아서도 해설할 수 있다. 오프닝 크레딧과 엔딩 크레딧에 모두 나오는 정보는 어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에만 나오는 크레딧 정보를 다른 쪽에서 해설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으기 방법은 영화의 상황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 3.3. 따라잡기(Catching-up) — 영화 ‘늑대의 어둠(Hold the Dark)’

세 번째로 소개할 음성해설은 ‘늑대의 어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따라잡기’ 방식이다.

이 영화 첫 부분에는 남자 주인공 러셀 코어가 메도라 슬론이라는 여성의 편지(늑대에게 물려간 어린 아들을 찾아달라는 편지)를 받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코어는 크리스마스 장식

---

17) 엔딩 크레딧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나온다. 이 음악은 음성해설을 방해하지 않는다.

18) 영화 원작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원래대로 영화 전반부에서 해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당 크레딧까지 기다리는 시각 장애인도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을 끄고, 여행용 가방을 끌며 집을 나선다(그림 6의 좌측). 이어 카메라는 코어의 방 내부로 향하면서, 방을 가득 채운 늑대 그림들을 보여준다. 1분 이상 지속되는 이 장면이 주인공 코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며, 사건의 발단이 소개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장면들은 음성해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편지 내용이 슬론의 육성<sup>19)</sup>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그림 6의 왼쪽 장면과 자막). 이 편지가 끝날 때는 주인공이 어느덧 비행기에 탑승해 편지를 읽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그림 6의 오른쪽 장면과 자막).



그림 6. 주인공이 집을 나서는 장면(좌)과 비행기에서 편지를 읽는 모습(우)

코어가 집을 나서는 장면을 해설하기 위해 음성해설 작가는 슬론의 편지가 끝난 직후의 공간(약 27초)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어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는 네 가지 상황 - (1) 코어가 편지를 지갑에 넣는다, (2) 비행기 좌석 조명을 끄고 안경을 벗는다, (3) 공항 터미널에서 박제된 곰 옆을 지나간다, (4) 한 손에는 신용카드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렌터카 신청 서류를 작성한다 - 이 전개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장면에서는 어떠한 발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빈’ 공간에서 앞서 놓쳤던 장면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화면을 기준으로, 이 부분의 음성해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9) 코어 씨께(2:36), 3일 전 제 아들 베일리가 늑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늑대들을 잡지 않을 거예요. 전 혼자입니다.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 전에 경험이 있으시단 거 아닙니다. 제 느낌으론... 선생님이 지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산 채로 발견하는 건 기대 안 합니다. 그래도 끌고 간 늑대는 찾으실 수 있겠죠. 오셔서 죽이는 걸 도와주세요. 이 동물에게 연민이 있으신 거 아닙니다. 연민은 거둬주세요. 제 남편이 곧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남편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합니다. 메도라 슬론 드림(3:42)

표 1. '늑대의 어둠' 음성해설에서 '따라잡기'가 사용된 사례

영화 화면(27초)	음성해설(27초) <sup>20)</sup>	비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음(15초)	Outside a house in a residential neighborhood at night, Russell Core, a balding sixtiesh man with gray beard, carries a suitcase. He pauses and unplugs Christmas lights, then climbs into a vehicle. The headlights illuminate a room in the house that is filled with drawings and paintings of wolves.	비동기식 해설
공항 터미널: 박제된 곰 옆을 지나감(8초)	In an airplane cabin Core reads Medora's letter. In an airport terminal he passes a taxidermy bear.	
렌터카 서비스 업체: 서류 작성 중(4초)	At a car rental desk he fills out a form while holding a credit card.	동기식 해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7초의 여유 공간 중 앞쪽 18초가량은 비동기식 해설로 진행된다. 주인공이 비행기에 탑승한 상황에서, 그의 외모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상황을 빠르게 묘사한 부분이다. 농친 장면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빠르게 임도록 하여, 약 18초 뒤에는 동기식 해설이 가능케 했다.

### 3.4. 미리하기(Pre-describing) — 영화 ‘월드 워 Z(World War Z)’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좀비 콘텐츠 ‘월드 워 Z’이다. 영화가 시작되고 약 1분 43초 동안에는 어떠한 육성도 나오지 않고 영화 제작·배급사 이미지가 연속해서 등장한다(예: 그림 7의 좌측). 그리고 3분 10초부터는 영화 제목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1분 43초부터 3분 10초 사이에는 여러 이미지가 실재 없이 지나가고, 동시에 뉴스 앵커의 목소리(“This is J.T.L. Morning News”로 시작)와 여러 육성이 끊임없이 나온다(예: 그림 7의 우측). 이 뉴스 음성과 관련 화면을 통해 영화 관객들(비시각 장애인)은 좀비 바이러스가 어떻게 창궐

20) 어느 밤 주택가. 술이 없고 회색 수염을 기른 60대 남성 러셀 코어가 집 밖에서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다. 코어는 잠시 멈춰 크리스마스 조명을 끄고 차량에 오른다. 차량 전조등이 그의 방을 비춘다. 방은 늑대 그림으로 가득하다. 비행기에 탑승한 코어는 메도라의 편지를 읽는다.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코어는 박제된 곰을 지나친다. 그리고 책상 앞에서 신용카드를 든 채 렌터카 신청 서류를 작성한다.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1분 26초 동안 지속되는 이 장면에서 해설해야 할 크레딧가 오리지널 사운드와 함께 나온다는 점이다.



그림 7. 영화 제작 관련 화면정보 사례(좌)와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우)

여기서 음성해설 작가는 크레딧을 해설하기 위해 ‘미리하기’ 방법을 사용한다. 즉, 영화 제작 관련 정보가 나오는 앞부분에서, 나중에 나올 크레딧을 미리, 매우 빠르게 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음성해설 성우는 영화 시작 후 108초 동안 200초 분량의 화면 내용을 모두 해설한다.<sup>21)</sup> 가령, 영화 시작 45초 후에는 <그림 7>의 왼쪽 화면(스카이댄스 영화 제작사 온스크린 로고[on-screen logo])이 등장하는데, 이때 나오는 음성해설은 원래 98초쯤에 등장해야 할 “Opening credits appear. Brad Pitt ...”이다.

이처럼 음성해설 영화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화면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미리 해설하기도 한다. 사실, 해설을 미리 하느냐(‘늑대의 어둠’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중에 하느냐는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화면을 보지 못하는 청중에게는 정보의 순서보다는 정보의 전달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소개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나마 세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음성해설 작가는 다양한 비동기식 전략을 사용하여 정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미시 전략, 즉 인물형상화

21) 다만, 영화 시작부터 빠르게 나오는 음성해설은 일부 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characterization)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기(‘더 브레이브’), 크레디트와 관련된 정보를 영화 끝에 몰아넣기(‘미드나이트 스카이’), 사건 이해에 필요한 일련의 화면 정보를 요약하여 영화 흐름을 따라잡기(‘늑대의 어둠’), 크레디트와 사건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정보를 미리 전달하기(‘월드 워 Z’) 등을 살펴보았다. 물론, 음성해설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처럼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여준 사례만으로도 음성해설 작가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보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는 음성해설의 방식뿐만 아니라 음성해설의 속도까지도 중요하다. 만일 시공간적 압박이 심한 경우, 화면 정보의 요약이나 재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늑대의 어둠’과 ‘월드 워 Z’에서 확인하였듯이, 성우의 읽기 속도에도 변화를 주어 필요한 정보가 최대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작가는 해설 길이를 잘 결정해야 하고, 성우는 공간에 맞춰 발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월드 워 Z’에서 논의한 음성해설은 영화 중에 나오는 일반 해설보다 두 배는 빠른 느낌을 준다. 이렇게 빠른 해설은 수용자에게 자칫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빠른 해설은 영화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음성해설 작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더 브레이브’에서 모자에 관한 해설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설이 나오는 부분은 로스가 카그번과 재회하는 상황이다. ‘끼워넣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야기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판단하고 해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미드나이트 스카이’에서는 작가의 주관이 좀 더 크게 개입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작 정보(“Based on the book “Good Morning, Midnight” by Lily Brooks-Dalton”)가 나올 때는 해설 공간이 충분하므로 원작 정보를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엔딩 크레디트 해설 부분에 원작 정보를 포함했다. 원작 정보는 다른 크레디트(배우나 제작진 이름)와 성격이 달라, 영화 시작 부분에서 해설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도 작가는 모든 크레디트 정보를 뒤쪽으로 모아, 결과적으로 해설 방식을 통일하였다.

본 연구는 음성해설 실무자와 음성해설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문제들은 전문 작가들도 쉽게 접근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영어를 기준으로 일부 사례만을 소개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해설에 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필자가 소개하지 못한 해설 방법을 소개하고, 작가 간 전략 차이나 해설 언어 간 차이도 분석해야 한다. 예컨대 ‘미드나이트 스카이’는 독일어 음성해설도 지원하므로 관심 있는 전공자라면 영어 해설과 독일어 해설의 전략 차이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성해설에서 정보의 완결성과 해설의 동시성을 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해설의 완결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량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영화의 감성적/수용적 측면을 놓칠 수 있다. 가령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을 때마다 해설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수용자의 정보 처리 부담이 증가해 영화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전달의 동시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 차원에서 해설의 분량만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야기의 구조나 흐름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의 내용은 시각 장애인이 참여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상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화 상영의 궁극적 목표는 수용자에게 영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감성적 측면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서수연과 이상빈. (2021). 「한국 드라마의 몸짓언어가 음성해설(화면해설)로 번역되는 양상과 실무에의 함의 고찰」. 『통역과 번역』 23(3): 111-134.
- 윤미선. (2022).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연구: 한국 영화 ‘옥자’, ‘미나리’, ‘승리호’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2): 127-155.
- 이상빈. (2019). 「화면해설(audio description)에서의 객관성 개념 분석: 지침, 연구자, 작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119-150.
- 이상빈. (2020). 「화면해설에서의 객관성과 인물의 심리·감정 표현: 배리어프리영화 『앙리 앙리』(Henri Henri)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21(1): 139-158.
- 전민경과 윤미선. (2023). 「한영 음성해설의 ECR 분류와 번역 전략: 애플TV+ 드라마 <파친코>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3): 3211-3226.
- 로즈 차머스(Roz Chalmers)와 서수연. (2021).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가이드』. 서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Baker, M. (2018).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3rd ed.). London: Routledge.
- Fryer, L. (2019). Quality assessment in audio description: Lessons learned from interpreting. In Huertas-Barros, E., Vandepitte, S. and Iglesias-Fernández, E. (eds.), *Quality Assurance and Assessment Practic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ershey, PA: IGI Global, 155-177.
- Marzá Ibañez, A. (2010). Evaluation criteria and film narrative: A frame to teaching relevance in audio description. *Perspectives* 18(3): 143-153.
- Matamala, A. (2014). Audio describing text on screen. In Maszerowski, A., Matamala, A. and Orero, P. (eds.), *Audio description: New perspectives illustrate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03-120.
- Piety, P. (2004). The language system of audio description: An investigation as a discursive proces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98(8): 453-469.
- Remael, A., Reviers, N., and Vercauteren, G. (2015). *Pictures Painted in Words: ADLAB Audio Description Guidelines*. Trieste: Edizioni Università di Trieste.

### <온라인 자료>

- 김세화. (2023. 4. 12.).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1년 새 30% 급감」. 『IT Times』. <https://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27>(2023. 7. 20. 검색)
- ADP. (n.d.). Netflix audio described titles. *The Audio Description Project*. Retrieved from <https://adp.acb.org/netflixad.html> on 21 July 21 2023.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n.d.) Audio description style guide v2.5. *Netflix*. Retrieved from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5510667-Audio-Description-Style-Guide-v2-5> on 21 July 21 2023.

### <분석 자료 - 필모그래피>

- 늑대의 어둠(Hold the Dark). 넷플릭스 음성해설 영화. <https://www.netflix.com/kr>

더 브레이브(True Grit). 넷플릭스 음성해설 영화. <https://www.netflix.com/kr>  
미드나이트 스카이(The Midnight Sky). 넷플릭스 음성해설 영화. <https://www.netflix.com/kr>  
월드 워 Z(World War Z). 넷플릭스 음성해설 영화. <https://www.netflix.com/kr>

This paper was received on 16 October 2023; revised on 30 Nov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

*Author's email address*

sblee0110@naver.com

*About the author*

Sang-Bin Lee is a professor of translation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published various articles on audio description, such as “Audio Description in the Digital Age,” “화면해설에서의 객관성 개념 분석,” “화면해설에서의 객관성과 인물의 심리·감정 표현,” and “한국 드라마의 몸짓언어가 음성해설로 번역되는 양상과 실무에의 함의 고찰” (co-authored with Soo-Yeon Seo).



##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 소설 『こゝろ』와 번역본을 중심으로 -

전은정\*

**Eunjeong Jeon (2023). Translation analysis of commas in Japanese-Korean translation: Focusing on the novel “Kokoro” and translated books.** *The use of commas in Korean and Japanese demonstrates marked differences in frequency and pattern of u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mmas in Korea and Japan, and analyzes the frequency of use for commas and transla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Japanese author Natsume Soseki's work, with the aim to present a translation strategy to accurately convey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hopes to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toward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mmas and translation patter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nd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structure and meaning conveyance of translated texts in translation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lso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guidelines in the fields of translation research and translation tool development, and thereby contribute to improving translation quality. (Hallym University, Korea).*

**Keywords: Korean-Japanese translation, commas, interpretation, punctuation mark, novel translation**

주제어: 한일번역, 심표, 통번역, 구두점, 소설번역

---

\* 한림대학교, 강사

#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일한 번역을 통해 한국어 쉼표와 일본어 독점(読点)<sup>1)</sup>의 사용 빈도 차이를 조사하고 사용 빈도에 차이를 보일 경우, 사용 빈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수의 번역문을 비교하여 원문의 쉼표를 번역하는 데 번역사들이 어떠한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夏目漱石(Natsume Soseki)의 대표작 중 하나인『こゝろ』(Kokoro)와 이를 번역한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해당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작가의 저작권 권리 보호가 종료됨으로써 한국에서 다수의 번역사의 번역문이 출간되었고 이러한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번역사에 따른 번역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쉼표의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坂井 晶子(2011)는 1985년 발표된 坪内逍遙(쓰보우치 쇼요)의 『소설신수』에서 비롯된 언문일치 운동으로 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서 쉼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쉼표의 도입은 글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각적 장치로, 일본 문학에 새로운 언어적 도전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1910년대에 발표된 夏目漱石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해당 작품이 언문일치운동의 영향을 받아 쉼표가 도입된 초기 시기를 대표하는 텍스트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集英社에서 발간한 일본어 원작과 한국에서 발간된 여러 번역본을 세밀히 분석하여 쉼표의 번역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1. 일본어 원작과 한국어 번역본 간의 쉼표 사용 빈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2.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수의 번역본 간의 쉼표 번역에 어떠한 전략이 사용되며, 이로 인해 번역본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1) 한국어 쉼표의 역할을 하는 구두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쉼표로 표기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선행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쉼표 사용 빈도의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宋正植(2016)에 따르면 한국 국어 교과서와 일본 국어 교과서의 쉼표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반점(,)이 915회 사용된 반면 일본 국어 교과서에서는 쉼표(,)가 2,741회로 한국보다 3배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쉼표 사용 빈도의 차이는 많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여 쉼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기도 한다. 번역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김한식(2000)의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1학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했을 때 쉼표의 사용 양상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 결과 통번역대학원생의 한일 번역에서 쉼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쉼표를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듯 전문 번역사 교육을 받는 통번역대학원생들도 한국어 쉼표에 비해 일본어 쉼표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국어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신호철(2011)의 한국의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의 올바른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 부호 정답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27.5%로 매우 낮았다. 특히, 온점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정답률이 향상하여 80.5%를 보이는 반면, 쉼표는 28.5%라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인다. 정답률 수치는 학생들이 쉼표의 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완료되는 교육과정을 봤을 때 한국인 번역사가 고등교육을 거치며 반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숙지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반점에 대한 인식도 번역사의 반점 사용에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장혜선(2008)에서 번역사의 번역 스타일이 번역물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중 한국인의 쉼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장혜선(2008)에서는 일본어 원문에 대해 스타일이 다른 두 개의 한국어 번역문을 16명의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결

과 전원이 심표를 적게 사용한 번역물에 대해 더 좋은 번역이라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로 ‘읽다가 숨이 찰 만큼 심표가 많다’ ‘눈에 거슬린다’ ‘오히려 가독성이 낮아짐’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한국인이 심표의 잦은 사용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번역사가 심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번역물 수용성 측면에서 독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표 사용을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어교육을 받은 번역사는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심표 사용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한식(2000)에서 말한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학생들이 심표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심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심표 사용 빈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심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용 방법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심표의 사용에 대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많은 한일 번역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확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한일 번역에 대해서는 심표의 번역 양상과 문제점, 수용성 측면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심표 번역 전략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하지 않는다.

## 2.2. 한일 심표 규정 비교

허용(2018)은 심표가 비문의 요소는 아니지만 원문의 저자가 심표를 사용한 의도를 번역문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급 학습자에게 심표의 유무에 따라 의미 전달을 비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서 심표가 하는 역할과 심표 사용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한일 심표의 사용빈도와 번역 전략을 연구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심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2017)에 명기된 심표 규정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심표 사용 규정(文部省 1946)이다.<sup>2)</sup>

---

2) 한국국립국어원 심표 규정은 2017년이 가장 최근 규정이며, 일본어는 194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가장 최근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표 1. 한국어 심표 사용 규정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 표 2. 일본어 심표 사용 규정

1	テンは、第一の原則として文の中止にうつ。
2	終止の形をとつてゐても、その文意が續く場合にはテンをうつ。ただし、他のテンとのつり合ひ、この場合にマルをうつこともある。
3	テンは、第二の原則として、副詞的語句の前後にうつ。その上で、口調の上から不必要のものを消すのである。
4	形容詞的語句が重なる場合にも、前項の原則に準じてテンをうつ。
5	右の場合、第一の形容詞的語句の下だけこうつてよいことがある。
6	語なり、意味なりが附着して、読み誤る恐れがある場合にうつ。
7	テンは読みの間をあらはす。
8	提示した語の下にうつ。
9	ナカテンと同じ役目に用ひるが、特にテンでなくては、かへつて読み誤り易い場合がある。
10	對話または引用文のカギの前にうつ。
11	對話または引用文の後を「と」で受けて、その下にテンをうつのに二つの場合がある。「といつて、」「と、」「と、」などの「と」にはうたない。「と、花子さんは」といふやうに、その「と」の下に主格や、または他の語が来る場合にはうつののである。
12	並列の「と」「も」をともなつて主語が重なる場合にはととしてうつが、必要でない限りは省略する。
13	数字の位取りにうつ。

위의 한일 쉼표 사용 규정을 보면 일본어보다 한국어 쉼표 사용 규정 항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쉼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 보다 한국어 쉼표 사용 규정 항목이 많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일 쉼표의 사용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문장에서 단락이 바뀌거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쉼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쉼표를 가독성에 관련된 문장 부호로 인지하고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 쉼표 사용 규정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보인다.

먼저, 접속사 뒤에 쉼표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일본어는 ‘そして、しかし’와 같은 접속 부사 뒤에도 쉼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에도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쉼표를 쓰는 규정이 있지만 세부 설명을 보면 열거되는 어구 중 마지막 어구 앞에 쓰는 접속사를 쉼표와 함께 쓰는 것은 일종의 중복이기 때문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열거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 열거를 할 경우 ‘쉼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세부사항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열거할 때 쉼표 사용 규정 9번과 12번과 같이 쉼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쉼표 사용 규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가 인용문이다. 일본어는 인용문 앞이나 인용문을 받는 어구에 쉼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인용문에 대한 쉼표 사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에서 인용문을 구분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텍스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로 제시된 어구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주제로 제시한 어구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어는 주제로 제시한 어구 다음에도 쉼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한 사용에 대한 항목이다. 한국어 쉼표 규정에는 15개의 항목 이외에 세부 사항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쉼표는 그 속성상 대부분은 반드시 써야 하는 부호는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쉼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글을 이해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쓰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최근 한국어에서 쉼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규정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일본어에도 사용자의 자의에 맡긴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 3, 규정 7, 규정 9와 같이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어처럼 전체 규정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한국국립국어원의 최신 규정을 근거로 번역전략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인 여섯 개의 번역의 번역사가 당시 쉼표 규정을 참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국립국어원 쉼표의 최신 규정 이전에 출판된 번역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쉼표 규정을 근거로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 쉼표 규정을 기준으로 일관된 분석 기분을 설정한다. 이는 번역 및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쉼표 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쉼표 사용은 문장의 의미 전달과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신 쉼표 규정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번역사들이 더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언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번역 교육에 교육적 통찰을 제공한다. 최신 쉼표 규정에 기반한 분석은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번역 학습자들이 현대 문체에 맞는 번역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하다.

### 3. 분석

#### 3.1. 분석대상 텍스트 및 분석방법

분석 대상 텍스트는 夏目漱石의 『こゝろ』와 이를 번역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한국어 번역본이다. 한국어 번역본은 교보문고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의 번역본을 선택하여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량적 분석의 대상 번역본은 잇북에서 출간한 『마음』(김성기 2017)으로, 해당 번역본의 발간 연도가 연구의 목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언어의 특성과 문체는 시대와 문화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심표 사용 빈도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여섯 개의 번역본 중 가장 중간적인 발간 연도의 번역본을 선택함으로써 시대적 특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상 텍스트 파일로 디지털화를 진행한 후 JAVA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텍스트로 읽고 문장<sup>3)</sup> 당 심표 수, 전체 문장 수, 문장 별 사용된 심표 수, 그리고 문장 당 평균 심표 사용 수 등을 카운트하여 분석하였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 중 연구 목적과 관련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여섯 개의 번역본에서 어떠한 번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의 대상 텍스트를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의 초점이 데이터 추출 자체보다는 번역 작업의 이해, 심표 사용과 번역 전략의 상호작용의 심층적 파악에 있어, 사례분석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향후 연구 과제로 모든 대상 텍스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번역 전략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2. 한일 심표 사용 빈도 비교

텍스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심표가 대상 텍스트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전체 심표 사용 숫자와 문장 당 사용된 심표의 평균 등을 비교해 보았다.

표 3. 한일 심표 총 사용 수

한국어	일본어
975개	3,647개

위의 표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의 심표 사용 빈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 원문에 사용된 심표의 수는 3,647개로, 이는 한국어 번역문에 사용된 975개의 심표에 비해 대략 4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3) 마침표를 문장 구분자로 활용하여 각 문장을 분리하였다.

와 일본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장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어는 문장 내에서 문장 부호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수식을 구분하거나 문장의 중단을 나타내는 데에도 쉼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한 문장 내에서도 여러 개의 쉼표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어는 수식 구분을 주로 띄어쓰기와 조사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부호로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낮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한국어 번역문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한일 언어 간 번역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쉼표의 적절한 위치와 개수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문장 당 쉼표 평균 사용 수**

한국어	일본어
0.2	0.8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서 사용한 문장 당 평균 쉼표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평균 1개 미만의 쉼표를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평균 1개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쉼표의 평균 사용 수를 조사하는 것은 문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쉼표의 사용은 문장의 구조, 의미 전달, 작가의 스타일, 작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쉼표의 평균 사용 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맥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이 아주 길거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쉼표 사용이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중단시키거나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쉼표가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간결한 문장이나 순조로운 흐름을 갖는 문장에서는 쉼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특성과 작가의 스타일, 시대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夏目漱石의 『こゝろ』는 1914년에 쓰였다는 점과 문학 작

품임을 감안할 때 작가의 스타일과 작품의 특성이 쉼표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와 스타일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원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쉼표의 사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 작업 시 원문의 작품 특성과 작가의 스타일을 고려하여 문장 부호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번역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5.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문장 당 쉼표 사용 양상**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2,307	1,472	586	196	65	20	3	3	2

다음은 원문에서 사용된 쉼표를 문장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다양한 쉼표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약 50%에 가까운 2,307개의 문장이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들이 쉼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해당 문장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문장에서는 0개에서 2개의 쉼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적은 수이기도 하나 한 문장에서 7~8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문장도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구조인 만큼 해당 문장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장 당 쉼표 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사이에 문장 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6. 원문과 번역문의 전체 문장 수**

한국어	일본어
4,754	5,076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총 문장 수는 4,754개였는데 이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의 총 문장 수는 5,076개로 원문에 비해 약 300개가 넘는 문장이 새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번역 과정에서 문장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일본어의 쉼표는 문장 내에서 구분선 역할을 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구분을 위해 문장을 분할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 중 문장을 더 작게 나누는 방법은 문장 구조나 표현을 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번역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

원문과 번역문의 문장 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번역 연구 및 번역 가이드라인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3. 일본어 쉼표 번역 사례 분석

이전 절에서는 단일 원문과 단일 번역문을 대상으로 쉼표의 사용빈도 및 쉼표의 번역을 하면서 문장 수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본어 원작과 夏目漱石의 『こゝろ』을 번역한 『마음』(이지선 2012), 『마음』(송태욱 2016), 『마음』(박유하 2016), 『마음』(김성기 2017), 『마음』(오유리 2019), 『마음』(양윤옥 2022) 총 여섯 개의 번역문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해당 소설은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여러 번역사에 의해 번역되어 한국에도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개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각 번역본이 어떠한 규칙과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원문의 쉼표를 번역하였는지 자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원문 텍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8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 문장 당 3~4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문장들이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지를 살펴본다. 또한, 일본어 원문보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더 많은 쉼표가 사용된 문장에도 주목하여 번역문과 원문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도 탐구한다.

#### 3.3.1. 일본어 쉼표의 한국어 번역 사례 분석

먼저, 원문 텍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8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문장은 149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문장으로 짧은 길이는 아니다. 또한, 하나의 문장에 8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흔하지는 않다. 이러한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쉼표 사용이 적은 한국어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 사례 1

[ST]

学問をやり始めた時には、誰も偉大な抱負をもって、新しい旅に上るのが常ですが、一年と立ち二年と過ぎ、もう卒業も間近になると、急に自分の足の運びの鈍いのに気が付いて、過半はそこで失望するの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ますから、Kの場合も同じなのですが、彼の焦慮方はまた普通に比べると遥かに甚はだしかったです。(p. 487)

[TT1]

누구라도 대학에 첫발을 대니딜 때는 위대한 포부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졸업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자취를 뒤돌아보고 실망하곤 하지. 그러나 K가 불안해하는 정도는 정상이 아니었네. (p. 205)

[TT2]

학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지대한 포부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새 졸업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자신의 발걸음이 무더지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보통이거든. 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것에 비해 훨씬 심했지. (p. 197)

[TT3]

학문을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위대한 포부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새 졸업도 가까워지면 불현듯 자신의 발걸음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실망하는 것이 보통이지라 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통 이상으로 훨씬 심했습니다. (p. 253-254)

[TT4]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는 누구나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오르기 마련이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졸업할 날이 가까워지면, 문득 자신의 발걸음이 둔해진 것을 깨닫고 실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네. K도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그의 초조함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심했지. (p. 225)

[TT5]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발을 디디기 마련이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가서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별다른 진척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K의 경우 그 절망감은 다른 이들이 비해 훨씬 컸네. (p. 238)

[TT6]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지



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되면 문득 자신의 걸음이 지지부진한 것을 깨닫고 대부분 실망하는 게 당연하니까 딱히 K만 뒤쳐진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의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통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p. 220-221)

가장 눈에 띄는 차이 중 하나는 번역 TT1과 TT2, TT4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원문을 각각 3개와 2개의 문장으로 분리했다는 점이다. 이 전략은 긴 문장을 적절히 나누어 가독성을 높이고 초조해하는 K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번역 TT3, TT5, TT6은 원문과 동일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유지하면서 번역했으며 이를 통해 원문의 뉘앙스를 보존하며 문맥을 고려하여 감정과 느낌을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번역에서 독자에게 원문과 유사한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장을 마침표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K의 감정을 설명하기 전에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원문과 동일하게 K의 감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다섯 개의 번역 중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번역은 TT1뿐인데,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번역 전략을 선택하면서 총 8개였던 쉼표를 한국어에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TT1에서 아쉬운 점은 원문의 ‘一年と立ち二年と過ぎ’를 ‘한 해 두 해’로 숫자 사이에 어휘를 생략하면서 숫자만 열거했음에도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어 쉼표 규정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에 따라 쉼표를 사용했다면 ‘한 해, 두 해’와 같이 쉼표를 삽입하여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쉼표를 활용하면 독자가 읽을 때 열거된 항목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번역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 오역으로 이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국국어국립원 쉼표 규정에 따라 쉼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쉼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쉼표 3개를 사용한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쉼표 1개에서 3개를 사용한 문장이 일본어 원문 중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쉼표 3개를 사용한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장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며 본 연구의 주제가 일본어 쉼표를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번역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례 2

[ST]

先生はそれを落すために、後ろ向きになって、浴衣を二、三度振るった。(p. 14)

[TT1]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서서 옷을 두세 번 흔들었다.(p. 11)

[TT2]

선생님은 모래를 떨어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유카타를 두세 번 떨었다.(p. 22)

[TT3]

선생님은 그 모래를 털기 위해 뒤로 돌아서서 옷을 두세 번 털었다.(p. 16)

[TT4]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털었다.(p. 14)

[TT5]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흔들었다.(p. 14)

[TT6]

선생님은 그걸 털어 내려고 뒤로 돌아서서 유카타를 두어 번 흔들었다.(p. 15)

일본어 원문에서는 3개의 십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다섯 개 모두 하나의 십표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원문의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어 원문에 ‘二、三’을 ‘두세 번’ 또는 ‘두어 번’으로 번역하면 두 수 사이에 십표를 넣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숫자 표현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번역사는 숫자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십표를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번역사의 언어적 스타일, 번역의 흐름, 문장 구조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 숫자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 십표 사용 여부도 변할 수 있다.

## 사례 3

[ST]

私が丸い墓石だの細長い御影の碑を指して、しきりにかれこれしゃべっているのを、始めのうちは黙って聞いていたが、しまいには「あなたは死という事実をまだ真面目に考えた事ありませんね」といった。(p. 29)

[TT1]

처음부터 나는 둥그런 묘석이나 화강암으로 된 길쭉한 묘비를 가리키며 자꾸만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것을 참다가 물어본 것인데, 허무하게도 선생님께서 “학생은 죽음에 대해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라는 말을 들었다. (p. 17-18)

[TT2]

내가 둥근 묘석이나 길쭉한 화강암 비석을 가르키며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자네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나 보군”하고 말했다. (p. 27-28)

[TT3]

선생님은 내가 둥글거나 길쭉한 화강암 비석 같은 것을 가리키며 자꾸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나중엔 “학생은 죽음에 대해서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군요.”하고 말했다. (p. 24)

[TT4]

내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둥근 석물이라느니, 저것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라느니, 하고 신나게 떠들어대자,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던 선생님이 급기야 한마디 던졌다. “자네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 (p. 21)

[TT5]

내가 이것은 둥근 모양이라는 둥, 저것은 가늘고 긴 모양의 화강석이라는 둥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떠드는 것을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댁은 죽음에 대해 아직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하고 한마디 하셨다. (p. 21)

[TT6]

내가 둥근 묘석이며 길쭉한 화강암 비석들을 가르키며 실 새 없이 이래저래 늘어놓는 말을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자네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이라고 말했다. (p. 22)

위의 원문에서 한 문장에서 쉼표 3개가 사용되었으며 행동을 강조하여 문장의 후반와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쉼표 중 마지막 ‘聞いていたが、’는 행동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섯 개의 번역문 중 유일하게 TT4가 하나의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서 해당 쉼표를 처리하였다. 또한, TT1과 TT3은 해당 쉼표를 한국어 쉼표로 동일하게 번역함으로써 원문과 동일하게 행동의 변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TT4과 TT5에서는 원문에 쉼표의 역할을 하는 쉼표가 없음에도 한국어 번역에서 쉼표를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일본어 조사 ‘の’이다. 일본어 조사 ‘の’는 주로 한국어로 ‘~의’, ‘~에’와 같은 의미

로 사용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하는 역할로 사용되어 한국어에서 쉼표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의 의도와 문맥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독자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역사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 3.3.2. 한국어 번역문을 통해 본 쉼표 번역 전략

다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문을 선택한 후, 역으로 일본어 원문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한국어 번역문에서 역으로 일본어 원문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쉼표의 사용과 번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쉼표보다는 조사나 띄어쓰기 등을 통해 문장 구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 쉼표를 많이 사용한 경우, 이러한 쉼표가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원문과 비교 분석하면 한국어 쉼표의 사용 규칙과 번역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과 원문 간의 쉼표 사용 비교를 통해 번역의 정확성과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번역 작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번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사례 4

[ST]

私は死に瀕している父の手前、その父に幾分でも安心させてやりたいと祈りつつある母の手前、働かなければ人間でないという兄の手前、その他た妹の夫だの伯父だの叔母だのの手前、私のちっとも頓着していない事に、神経を悩ま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p. 324)

[TT1]

최후의 순간에 당도한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반가운 소식 이 있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형 앞에서, 그리고 매제와 숙부와 숙모 앞에서 나는 시달리고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내가 취직자리에 대단한 집념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p. 142-143)

---

4) 번역문은 정량적 분석을 한 『마음』(김성기 2017)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TT2]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를 얼마간이라도 안심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형 앞에서, 그 밖에 매제며 큰아버지며 큰어머니 앞에서, 내가 전혀 개의치 않는 일에 신경을 써야 했다. (p. 139)

[TT3]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형을 봐서라도, 그 밖에 여동생이며 큰아버지며 큰어머니며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체면 때문에라도, 나 자신이 전혀 무관심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p. 171-172)

[TT4]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형을 앞에 두고, 그 외에 매제나 큰아버지나 고모를 앞에 두고,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p. 156)

[TT5]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형 앞에서, 그 외에도 큰아버지나 매제 앞에서 조금도 집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태연할 수만은 없었다. (p. 161)

[TT6]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를 얼마간이라도 안심시켜 드리자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형 앞에서, 그 밖에 매제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앞에서, 나는 스스로는 관심도 없는 그 일로 골머리를 썩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p. 150-151)

TT1과 TT5는 두 개의 쉼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4개의 쉼표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 한 문장에 4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각각의 번역에서는 원문의 쉼표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번역사의 판단과 한국어 쉼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판단과 규정은 번역의 목적, 문장의 흐름,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한국어 쉼표 규정에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는 항목이 있으며 위의 원문과 다섯 개의 번역문에서 모두 열거의 내용에 맞게 쉼표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TT1, TT5에서 열거 중 몇 개는 ‘~와’, ‘그리고’를 쉼표 대신 사용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その他た妹の夫だの伯父だの叔母だのの手前’ 뒤에 오는 쉼표를 생략하였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쉼표 규정에 ‘쉼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과 의도를 고려하여 번역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인다.

그러나 네 개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한국어 번역에서 열거 시 쉼표를 되도록 생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쉼표를 쓴다’는 한국어 쉼표 사용 규칙과도 관련이 있지만, 쉼표 사용 규정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와 쉼표 사용 규정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와 같은 다양한 규칙이 쉼표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쉼표 사용은 단일한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와 규칙이 상호작용하며 쉼표의 사용을 조절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그 외에 TT3에서는 원문의 쉼표를 그대로 쉼표로 번역하되, 문장을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봐서라도’, ‘위해서라도’ 등 쉼표 앞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는 등의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반복되는 표현을 최소화하여 글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동시에 문장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보조하면서도 한국어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언어적인 차이와 더불어 문장의 목적과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쉼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번역사의 판단이 중요하며, 번역사는 항상 최종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이 번역 작업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 4. 논의

본 논문에서는 쉼표의 사용 및 번역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례 1과 사례 3에서는 원문의 ‘が,’를 문장으로 나누는 번역 전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의 ‘~인데’, ‘~이지만’과 유사한 의미로 문장을 연결하여 번역하

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 번역문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분리함으로써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약 300개의 문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과 쉼표 사용 패턴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문장 구조 및 의미 전달 방식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번역 작업에서의 선택적 쉼표 사용이 번역 품질과 텍스트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쉼표 사용이 적은 한국어에서도 열거를 하거나 문장의 의미나 등장인물의 행동의 전환 등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쉼표는 대부분 생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사 ‘の’에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조사 ‘の’는 ‘~의’ 또는 ‘~인’이라는 의미로 가르치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조사 ‘の’가 한국어 번역에서 쉼표로 번역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으나 쉼표와 관련된 번역 패턴을 연구할 때 조사 ‘の’를 고려하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큼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쉼표의 사용빈도와 번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이 1900년대 초반에 쓰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의 문학 작품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문체와 문장 구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상 텍스트가 문학 작품인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문장 구조나 구두

점의 사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쉼표 번역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일본어 문학 작품 및 비문학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작품 간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 쉼표 사용이 번역 품질과 텍스트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번역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본어 원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작품의 선택과 쉼표 도입 초기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이 쉼표 사용이 지금의 어문 규정과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쉼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쉼표의 시대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발표된 일본어 문학 작품 및 비문학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쉼표의 사용에 대한 특징뿐 아니라 장르별, 시대별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한식. (2000). 「한·일 번역에 있어서의 句讀點의 문제」. 『통번역학연구』 4: 47-68.
- 宋正植. (2016).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부호 사용양상 고찰」. 『日本語教育研究』 34: 95-114.
- 신호철. (2011).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 사용 양상 조사」. 『한민족문화연구』 37: 199-229.
- 장혜선. (2008). 「번역사의 번역 스타일이 번역물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일한 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 『통번역학연구』 12(1): 109-134.
- 허용. (2016). 「한국어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장의 특징 연구: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문화연구』 24(5): 629-649.
- 坂井 晶子. (2011). 「文学と記号表現 : 近代文体成立と句読法との関連性について」. 『表現文化』 6: 23-40.

### [인터넷 자료]

- 국어국립원. (2017). 한국어 맞춤법. [https://kornorms.korean.go.kr/m/m\\_regltn.do?regltn\\_code=001#a740\(2023.10.8. 검색\)](https://kornorms.korean.go.kr/m/m_regltn.do?regltn_code=001#a740(2023.10.8. 검색)).
- 文部省. (1946). <ぎり符号の使ひ方 句読法案>. [https://dl.ndl.go.jp/info:ndljp/pid/1126388/1\(2023.10.8. 검색\)](https://dl.ndl.go.jp/info:ndljp/pid/1126388/1(2023.10.8. 검색)).

### [분석 대상]

- 夏目漱石. (1991). 『こゝろ』. 東京: 集英社. (ST)
- 이지선. (2012). 『마음』. 서울: 책만드는집. (TT1)
- 송태욱. (2016). 『마음』. 서울: 현암사. (TT2)
- 박유하. (2016). 『마음』.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TT3)
- 김성기. (2017). 『마음』. 파주: 잇북. (TT4)
- 오유리. (2019). 『마음』. 서울: 문예. (TT5)
- 양윤옥. (2022). 『마음』. 파주: 열린책들. (TT6)

This paper was received on 5 November 2023; revised on 30 Nov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

### *Author's email address*

ejsh20@gmail.com

### *About the author*

Eunjeong Jeon is a lecturer at Hallym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다국어 『조선왕조실록』번역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 모색\*

–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

전현주\*\*

**Chun Hyunju (2023).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multilingual translation project for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Based on the paradig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Driven by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ranslation technology for Korean classics an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this paper aims to specify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f carrying out a multilingual translation project for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nals’). This study includes prior consider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for Korean classics, construction of a customized AI translation corpus and categories of related metatexts, cases of AI translation integration, and methods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on the construction of a customized AI learning corpus for Annals and the selection and categorization of metatexts to be applied, given the recogni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high-quality learning corpus as the most important step in measur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ject implementation. (Shinhan University, Korea)*

**Keywords:** Annals of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meta-text, translation corpus for AI learning, *The Annals of King T’aejo,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주제어: 조선왕조실록, 메타텍스트,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태조실록, 세종실록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 A2A01048542)

\*\* 신한대학교, 부교수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기계번역의 발전은 번역 작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파파고, 구글 번역, Bing 번역, 딥엘 등의 서비스는 이제 일상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 전문적인 문서까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번역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2022년 11월에 공개된 ChatGPT<sup>1)</sup>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번역 서비스에 특화된 플랫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급 문맥 인식과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생성하는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16년에 공개된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Wu, Y., et. al. 2016; 전현주 2020: 62; 2022: 172)은 딥러닝 기반 모델을 통하여 문맥을 보다 잘 이해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전체 문장을 번역할 뿐 아니라 이전의 통계적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 방식보다 급격히 향상된 번역품질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AI는 대량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언어 패턴을 인식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번역가들이 고전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직면해온 시대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령, “ETRI, 인공지능으로 한문고서 번역해 문화유산 접근성 높인다<sup>2)</sup>”, “승정원일기 등 한문고전 AI가 번역한다<sup>3)</sup>”, 그리고 “읽기 어려운 한문고전, AI가 번역한다<sup>4)</sup>”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고전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전 작품들이 더욱 폭넓은 독자층에게 소개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작품의 본질과 다층적인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인간과 AI 기계번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영역(英譯) 및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

---

1) 3.5 version 기준(2023년 3월 14일 3.5버전에 비하여 신뢰성, 독창성,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 4.0 version을 공개하였다.) <https://openai.com/blog/chatgpt>

2)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8968>

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072200005>

4)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77>

적인 고려사항 및 실행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AI 번역 기술을 고전 번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에 특화된 맞춤형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민족 기록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국보 제 151호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원문이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한글을 사용하는 로컬 독자의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번역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번역은 비단 『조선왕조실록』에만 국한되지 않고 20세기 이전에 저술된 대부분의 고전 작품 및 기록물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은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주관하다가 1972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주관으로 28년에 걸친 한역 작업을 거쳐 1993년에 한글본이 413책으로 간행된 바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역된 『조선왕조실록』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전준비 미흡, 주관 기관 간의 분할 번역작업, 원고 위축제 번역 등으로 인한 번역수준의 균질화 및 번역 어휘의 통일성 등의 문제(서정문 2011: 요약보고문)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다시 번역을 수행하는 신국역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며 완역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2006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서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과 현재까지 진행된 신역본을 대상으로 원본과 한글번역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어로 완역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힘입어 국사편찬위원회는 2012년 1월 초 “조선왕조실록 번역”이라는 제하의 기사<sup>8)</sup>에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3년 완역을 목표로 영어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야심찬 기획 소식을 전하였다. 이 대장정의 번역 프로젝트는 경복궁 1차 복원 기간과 맞먹는

5) <http://sillok.history.go.kr>

6) [db.itkc.or.kr](http://db.itkc.or.kr)

7) 『조선왕조실록』의 인터넷 서비스는 세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문은 서울대 규장각이 제공하고,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담당하며,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8)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725734&code=11171211>

장장 20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3년간의 ‘터 닥기’ 기간 동안 용어와 표기의 기준을 마련한 뒤 샘플을 추출하여 시험번역을 거친 후 본격적인 번역 작업은 2014년쯤 시작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영역(英譯)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세종실록』의 번역본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I*이 발간되었다. 1차 발간된 영역본은 세종의 재위기간 중 즉위년인 1418년 8월부터 세종 17년인 1435년 4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부터 세종 32년(1450년)까지의 나머지 내용은 현재 영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 번역된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한자)과 한글 및 영어로 번역문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그 자체로서 탁월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역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또한 떨쳐 버릴 수 없다. 현재 수준의 번역 투입 예산과 인력, 그리고 번역방식을 적용하면 완역까지는 앞으로도 족히 수 십 년 이상 더 소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 시작한 『조선왕조실록』의 한역 현대화 작업 또한 2018년 4월 현재 아직 10%가량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총 574권 가운데 6년간 62권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속도라면 100% 완역까지는 40년 이상 걸리는데, 영역 작업은 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그리고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와 번역 수행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조선왕조실록』의 한역과 영역을 넘어 다국어 번역의 실현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자 한다. 그리고 딥러닝과 강화학습, 그리고 생성형AI 등 초고도화 된 AI 기술의 접목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한국의 기록 문화유산의 백미인 『조선왕조실록』의 영어/다국어 버전의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기계번역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메커니즘에 기반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당위성을 제안하고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인 가치와 한국의 지식 문화유산의 세계적인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이

---

9) <http://esillok.history.go.kr/about/translationProjectInfo.do>

10) 승정원일기도 1994년부터 번역을 시작했지만 진척률이 20%에 불과하다. 총 2386권 가운데 해마다 40-50권 가량 번역한다. 완역까지 41년 걸린다. <https://www.etnews.com/20180416000283>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완간을 넘어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은 한국 고전의 세계사적인 의미 확대는 물론 관련 한국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양산되는 중간결과물 및 최종결과물의 다각적인 활용방식을 확장하고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를 확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2. AI 기반의 고전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타당성

### 2.1. 선행연구

우선 『조선왕조실록』의 번역학적인 접근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번역 성과물의 연계성 및 활용 방안 고찰(박현주 2018),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번역 개념의 역사 조망(이영훈 2012), 조선왕조실록』번역사업과 남북한 체제경쟁(권오현 2021),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김주원 2006)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번역을 활용한 우리나라 고전 작품의 번역 필요성을 요청하는 연구들이 눈에 띄는데, 가령 고전문언문(한문) 기계번역용 말뭉치 구축 방안 제안(허철 2022), 고전문언문(古典文言文) 기계번역의 현황과 과제(김우정 2021),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김준연 2021)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고전 기록물의 중요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관련 연구실적은 사실 매우 척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원한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형태의 다양한 결과물이 있다. 가령, 고전번역사업 추진의 효율화 및 성과활용 극대화 방안 기획연구(2009)와 『국역조선왕조실록』현대화사업 수립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2009), 『승정원일기』번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2010), 『승정원일기』자동번역시스템의 활용방안 연구(2021) 등 기계번역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공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고전 번역 프로젝트의 수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논지와 상당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계번역 적용 가능성을 목표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논의의 주제와 접목기로 한다.

## 2.2. 프로젝트 수행의 당위성 및 타당성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22 고전번역연감』<sup>11)</sup>에 따르면 최근 고전번역의 연구 추세가 ‘고전번역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및 DB와 기계번역의 가능성 탐색’으로 ‘기계번역’의 특징 및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는 고전번역과 AI 기계번역의 접목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의 수용 전략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변화 이면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프로젝트는 『세종실록』의 본문은 모두 번역하지만 나머지 왕대의 실록은 주요 사실만 선별하여 번역할 계획(박현주 2018: 67-68)이며, 이마저도 사업종료 시점은 미확정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0년(1단계: 2012년 - 2022년)이 지났으며, 새로이 시작된 2단계(2023년 - )에서 다시 10년의 시간을 투입한다 해도 현재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조선왕조실록』의 영역본 완간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전 번역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학문적, 문화적 가치 보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방대한 역사적 자료의 영역 프로젝트에 AI 번역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당위성과 타당성을 갖는다.

AI 기반의 고전 번역을 수행해야 할 당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간 번역가만을 활용한 기존의 번역 방식은 대규모의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며, 전문 번역가의 수급 또한 매우 한정적이다. AI를 활용하면 이러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번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파: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사

---

11) <https://ebook.itkc.or.kr/Viewer/HOX4N52B466C>



료로서의 가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AI 번역은 이를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3) 학문적 가치의 확장: 고전 자료는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학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경향이 있다. AI를 활용한 번역은 다양한 언어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위성은 물론 『조선왕조실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AI 기반의 고전 번역을 수행해야 할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 기술적인 진보: 최근 AI 번역 기술의 진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문맥 이해와 번역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전 문서 번역의 정확도와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2) 프로젝트 수행 기간 단축: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대규모 문서의 번역에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 AI 번역을 활용하면 번역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3) 비용 절감: AI 기계 번역은 초기 투자 이후 지속적인 번역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번역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4) 번역품질 관리: AI 번역 시스템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번역품질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번역가를 투입하여 수작업 번역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번역품질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AI 번역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및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다.

### 3.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가능성

#### 3.1. 사전 고려사항

『조선왕조실록』의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 규모, 시차 및 소요기간, 과업의 성격, 참조용 메타텍스트 활용 등 원전과 번

역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 및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 고려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1. 언어적인 측면

우선, 언어적인 측면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완간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언어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자어로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저본을 적극 참조하되 영역 및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어 번역본을 원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원전으로 삼을 국역본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로 완역된 국역본 대신 현재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신국역본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또한 제안한다.

신국역본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완역된 국역본에 비하여 21세기 현재 독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과 어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고전 번역의 지식자산 인프라로서의 활용성을 확장하려면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문용어 및 어휘 등의 TM 구축부터 맞춤형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 또한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번역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어 병렬 코퍼스 구축 작업에 국역 번역본에 사용되거나 병기된 한자어 처리 작업 관련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전국역 정책에 따른 번역본 간행량, 번역률, 그리고 한자 사용률의 변화 분석(서정문 2011: 94-95)<sup>12)</sup>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에 포함된 한자어 사용비율은 수행기간 및 수행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국역본에서는 기존의 번역본에 비하여 한자어 사용비율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퍼스 구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신국역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1.2. 규모적인 측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시조인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03)

---

12) 1기인 1968-1976년 기간 동안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각각 11책과 36책의 번역을 수행하면서 원문의 글자수 대비 한자 사용률이 각각 6.41%와 6.74%로 나타났다. 2기인 1977년부터 1984년에는 6.05%와 10.05%, 그리고 3기인 1985년부터 1993년까지 4.84%와 8.74%로 나타났다.

에 걸친 172,000여 일의 역사를 무려 6,400만자의 문자로 총 1,893권 888책으로 기록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로서 그 자체가 빅데이터라 할 수 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번역본 서지정보 총괄표(서정문 2011: 86, 그림5)에 의하면 한역 작업시 태백산사고본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으로 발간한 서책을 저본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한역이 이루어진 실록의 수록 범위 역시 1392년 태조원년 7월부터 철종 14년 12월까지의 472년에 이르는 기간이며, 한역 작업은 1968년부터 1995년(색인 발행 포함)까지 2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원문은 30,904면이며, 번역문은 139,206면, 그리고 색인은 17,748면으로 전체 쪽수는 187,934면에 이른다. 원문의 글자수는 47,699,848자<sup>13)</sup>이며 번역문의 글자수는 173,312,517자에 이른다. 번역문 내에 포함된 한자 또한 12,188,818자로 규모면에서의 방대함 또한 기계번역과의 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당위성에 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 3.1.3. 시간적인 격차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시간적인 격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이다. 원본이 작성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세월 동안 언어는 어휘, 문법, 사용법 등에서 큰 변화가 수반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또한 변화한다. 때문에 고전 문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현대 독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며, 번역가는 원본이 생성된 당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 언어로 풀어내야 하는 동시에 원본의 뉘앙스와 의미를 충실히 보존해야 한다. 이처럼 시간적인 격차는 원천문화권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번역가와 독자 모두에게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도전을 제공한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원전과 번역본 사이의 시간적인 격차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 3.1.4. 고전 번역의 특수성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서, 당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현대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특히, 기록

13) 고종실록과 순종실록도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로서 편찬되었으나, 이 실록을 편찬할 때는 이미 일제강점기였으므로 북한 번역본에는 고종과 순종황제 실록도 포함되어 있으나, 남한에서는 두 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편찬한 것으로 사실의 왜곡이 심하여 엄격한 실록 편찬 규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번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https://db.itkc.or.kr/etc/desc?type=dbList>

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석과 해제의 추가는 번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인간 번역가의 깊은 이해와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AI 기반 번역 시스템 개발과정에도 일종의 큰 도전 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전 번역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AI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전문용어 및 고유명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번역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에 특화된 전문용어와 고유명사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AI 번역이 직역투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문맥 이해 및 해석의 정확성, 그리고 가독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문을 생성한 후 인간 번역가가 검토하고 수정하는 MTPE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주석과 해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사학, 문헌학 등 관련 학문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번역된 결과물에 대한 학계의 피드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오류 수정과 어법의 현대화, 내용의 주석 추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의 영역/다국어 번역 프로젝트에서 AI의 적용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과 인문학적 접근의 균형을 맞추으로써, 고전의 정확하고 깊이 있는 번역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고전을 현대 독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전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3.1.5.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

『조선왕조실록』의 1차 국역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3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이 작업에 투입된 연도별/기간별 역자현황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적 자원 또한 역자 164명, 해제자 18명, 교열자 50명, 그리고 운문자 80명 등 300여명이 참여(서정문 2011: 89, 표7)하였고 이를 30년으로 환산하면 연인원 9,000여명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입된 인적자원의 규모 대비 당시 수작업

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번역환경을 고려하면, 번역의 품질은 물론 국역본 완간 자체가 실로 기적에 가까운 대장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고전을 번역할 때,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소요 시간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AI 번역 기술을 최적화한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및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맞춤형 번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자와 해제자, 교열자, 운문자, 그리고 용어추출 및 구축 전문가 등이 작업수행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번역환경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의 효율성과 인적자원의 수급 및 관리, 그리고 일정관리 및 원활한 예산 운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서 마련도 필요하다.

### 3.2. 프로젝트 수행방식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국어 『조선왕조실록』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맞춤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AI 자동번역시스템을 적용한 『승정원일기』의 번역 프로젝트 설계 개요(김우정 외 2021: 1)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기 번역된 『태조실록』과 『세종실록』의 한글과 영어의 언어 쌍에서 일정 규모로 추출한 데이터를 AI에 적용하여 고도화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자동번역시스템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그리고 보다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메타텍스트와 분야별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집 등을 포함한 병렬데이터를 적용한 맞춤형 AI 학습용 코퍼스를 구축하여 자동번역시스템에 적용한다. 이렇게 추출한 AI 번역 결과물을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비교하면서 전문번역가의 MTPE 작업을 포함한 교열, 윤색, 주석 등의 과정을 단계별로 거친다. 이러한 결과물은 번역 품질평가 과정을 거친 후 다시 AI 학습용 코퍼스로 활용하여 번역품질의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반복 유지하면서 영어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영어 『조선왕조실록』AI 자동 번역시스템을 다국어 번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다양한 언어 쌍의 학습용 코퍼스가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번역의 품질 또한 지속적

으로 향상될 수 있다.

### 3.2.1. 맞춤형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구축

이제 앞서 논의한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의 AI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맞춤형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구축과 해당 코퍼스 구축에 적용할 메타텍스트의 범주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2012년 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선왕조실록』영역 작업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앞의 3.1에서 논의한 사전 고려사항 이외에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의 준비사항을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고전에 대한 영역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번역의 추진방향 설정을 목표로 당시 실록에 대한 샘플 번역작업을 먼저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정종, 태종, 세종, 세조, 성종실록에서 모두 230건, 원문 기준 5만자 분량의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용어표기 문제, 본문 가운데 한자 병기 여부, 특히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 방안 등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세종실록』에서 즉위년 이래의 원문 기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번역작업을 개시하면서 매년 그 분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여 년 전의 상황과는 달리 샘플 번역과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을 AI 기반의 번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간 번역가와 협업하면 상당 부분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규모의 방대함과 연구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조선왕조실록』번역을 위한 맞춤형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안한다. 맞춤형 코퍼스 구축은 『조선왕조실록』의 영역 완간은 물론이며, 나아가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선행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프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성과물의 종류와 내용을 점검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선별기준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시급하게 요청된다. 때문에 메타텍스트<sup>14)</sup>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는 원본과 번역본

---

14) 메타텍스트는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대해 언급하거나 참조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이러한 메타텍스트는 원본 텍스트의 이해를 돕고, 분석, 비판,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메타텍스트의 활용은 원본 텍스트를 더 깊이 있고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인 문서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의 종류를 제안하고, 이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2.2. 활용 가능한 메타텍스트

그럼, 『조선왕조실록』맞춤형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을 위해서 먼저 활용가능한 한국어와 영어 언어 쌍의 매칭가능한 메타텍스트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메타텍스트 선별방식은 저본(한자본)인 『조선왕조실록』의 한역본을 원전으로 삼고 원전과의 상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차 메타텍스트는 원전인 『조선왕조실록』을 모태로 직접적으로 생산된 번역본을 지칭하며, 해당 목록에는 『태조실록』과 『세종실록』이 있으며, 참고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번역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2차 메타텍스트는 원전을 직접 번역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시대 당대의 주요 저서나 기록물을 영어로 번역한 도서 혹은 영어로 출간된 저서 중에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닌 도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조선왕조실록』AI 학습용 코퍼스 구축용 메타텍스트 분석 대상 도서

1차 메타텍스트		
ST	TT	주요내용 및 활용가치
『조선왕조실록』 한역본 & 신역본 <sup>15)</sup>	『태조실록』 <i>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ŏn Dynasty</i> (2014)	- 『조선왕조실록』의 최초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 도서 - 조선왕조(1392~1910 CE)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통치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자, 14세기 후반 한국 및 한국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 내용 수록
	『세종장헌대왕실록』 <i>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i> (2017) <sup>16)</sup>	- 조선의 4대 국왕 세종(1418~1450)의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 세종의 업적이 방대하여 실록의 원문 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오례》, 《세종실록약보》, 《칠정산》내외편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음 - 때문에 세종 때만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정치·사회·경제·군사·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에 해당

<sup>15)</sup>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전현주 2017b).

2차 메타텍스트

<p><i>Ryu Sŏngnyong, Chancellor of Chosŏn Korea: On the Battlefield and in Memory</i> (2022)<sup>17)</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의 정치가, 전략가, 학자로서 류성룡(1542-1607)은 한국과 아시아 전체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그의 전기는 16세기 조선의 정치와 외교관계, 그리고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된 당시의 시대상 고찰 가능</li> <li>- 조선과 일본 사이의 임진왜란과 중국 제국과의 협상에 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설명 포함</li> </ul>
<p>『정선 목민심서』 (2005)</p>	<p><i>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Manual for All Administrators</i>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민심서』는 다산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지방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원칙 및 지침과 세부 사항 수록</li> <li>- 19세기 초 한국사회와 정세, 그리고 당시의 세계관 조망 가능</li> </ul>
<p>『징비록』(1994)</p>	<p><i>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i> (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군국정무의 중책을 짊어지고 외교·군무·민정 등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게 한 서애 유성룡의 기록인 『징비록』은 우리 역사에 드물게 보존되어온 기록문학에 해당</li> </ul>
<p>『북학의』(2011)</p>	<p><i>A Korean Scholar's Rude Awakening in Qing China: Pak Chega's Discourse on Northern Learning</i> (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제가는 정조 2년 1778년에 종사관으로 청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몇 달 머물면서 농잠, 축목, 성곽, 궁실, 배, 수레에서부터 심지어 붓, 자[尺] 등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나라의 습속 중 조선에서 시행하거나 적용할 만한 내용 기록</li> <li>- 『북학의』의 정신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 조선의 궁핍과 척박함을 타파하자는데 있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당대의 아웃사이더 지식인으로서의 치열한 고민이 녹아 있음</li> </ul>

15) <https://db.itkc.or.kr/dir/item?itemId=JT#/dir/list?itemId=JT&gubun=book>

<https://db.itkc.or.kr/dir/item?itemId=JR#/dir/list?itemId=JR&gubun=book>

16) <http://esillok.history.go.kr/>



그리고 고전번역연구원이 주관하여 구축한 다양한 종류의 한국고전 DB와 부가 열람메뉴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2. 『조선왕조실록』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 참고용 부가자료 목록

구축기관명	유형	자료명
한국 고전번역원	고전번역연감 <sup>18)</sup>	웹페이지
	한국고전DB <sup>19)</sup>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신역 조선왕조실록』
		고전픽션 쇼츠 콘텐츠, 고전명구
	부가열람메뉴	사전류: 고전번역서 각주정보, 고전용어 시소러스, 이체자 정보
		해제류: 고전번역서 해제, 『신역 조선왕조실록』 해제, 고전원문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한국고전총간 해제
		부가서비스: 고전번역서 서지정보, 한문고전자동번역, 경서성독, 한중일연호검색, 전자책 라이브러리

### 3.3.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

#### 3.3.1. AI 번역 접목 사례

양질의 기계번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한 특화된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데이터란 곧 양질의 코퍼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고전번역에 특화된 AI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한 다양한 사

17) 해당 도서는 저서에 해당하지만 그리고 한국어-영어 매칭 쌍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의 신 조가 재임했던 시기의 중요 인물로서 특히 임진왜란과 이순신, 그리고 『정비록』 등 류성룡 관련 메타텍스트를 참조하여 집필한 저서이므로 『조선왕조실록』의 메타텍스트 목록에 포함하였다.  
[https://www.amazon.com/Ryu-S-%C5%8Fngnyong-Chancellor-Chos-%C5%8Fn-Korea/dp/1557291993/ref=sr\\_1\\_2?qid=1699314152&refinements=p\\_27%3AByonghyon+Choi&s=books&sr=1-2&text=Byonghyon+Choi](https://www.amazon.com/Ryu-S-%C5%8Fngnyong-Chancellor-Chos-%C5%8Fn-Korea/dp/1557291993/ref=sr_1_2?qid=1699314152&refinements=p_27%3AByonghyon+Choi&s=books&sr=1-2&text=Byonghyon+Choi)

18) <https://www.itkc.or.kr/bbs/board.do?id=76&menuId=86#1>

19) <https://db.itkc.or.kr/>

례들이다. 시스템 구축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기술의 종류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양질의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번역 기계학습을 진행하며 번역품질 개선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거친 후 고전문헌 번역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번역에 적합한 AI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례들을 통하여, 기계번역을 활용한 고전번역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AI 번역 기술을 적용한 고전 번역 사례

시기	대상텍스트	주관기관	특징
2018.03	『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 시스템 <sup>2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년부터 『승정원일기』번역이 시작됐지만 양이 워낙 방대해 전문 번역사들은 아직 20%밖에 번역하지 못했다”며 “2062년으로 예상한 완역 시점을 AI 번역과 병행하면 30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가 초벌 번역을, 전문 번역가가 감수를 맡는 식의 분업이 되면 작업 소요시간이 확 줄기 때문</li> <li>- 영조 즉위년~4년치 기록에서 추출된 ‘한글·한자’ 단어쌍 35만개를 기반으로 6개월간 AI 번역 기계학습 진행</li> <li>- “단어와 구문을 쪼개어 번역하는 기존의 통계기반 번역이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파악해 번역하는 인공지능경망 번역” 적용</li> <li>- “문장 맥락의 이해도와 정확도가 전문번역사 대비 70% 수준</li> </ul>
2018.04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시스템 <sup>2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 기술을 고전문헌 번역에 활용한 'AI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li> <li>- NMT 기술을 활용, 번역원이 제공한 승정원일기 번역본과 원문 간 연관 패턴을 찾아내 모델 구축</li> <li>- 『승정원일기』 적용 모델을 고도화해 『조선왕조실록』번역 모델 구축 계획</li> </ul>

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0233.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0233.html)

21) <https://www.etnews.com/20180416000283>

2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DCP03Q9>

2019.09	『태조실록』 『정조실록』	한국번역학회 <sup>2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조실록』의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i>The Annals of King T'aejo</i>에서 발췌해 구축한 한영 병렬 37,736문장에 일반 문어체 약 600만 문장을 더해 기계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고전 번역 모델’을 『태조실록』과 『정조실록』의 영어 번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li> <li>-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고전과 같이 고도로 복잡한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 적용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기계번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목적</li> <li>-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규모의 방대성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등 한국 고전의 번역 작업에 기계번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li> <li>- AI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데이터 확보와 학습 데이터 처리 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li> </ul>
2022.09	『조선왕조실록』	엘솔루 <sup>23)</sup> (구 시스템란 인터내셔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천문』고서에 특화한 인공지능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 실증 사례 소개</li> <li>- 2017년 『승정원일기』를 시작으로 조선왕조실록, 천문 고문헌 『제가역상집』, 『천동상위고』 등에도 인공지능 번역 솔루션이 적용돼 100여 명 정도 남은 고문헌 전문번역가의 수고를 덜게</li> </ul>
2021.03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중앙대학교 AI 학과· 영상학과 김영빈 교수 연구팀; 스캐터랩; KAIST AI 대학원 <sup>2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모델 기반 『승정원일기』 복원·번역 성공</li> <li>- 완성된 『조선왕조실록』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시킨 결과 완벽하진 않지만 수십 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승정원일기』를 단 며칠 사이에 복원·번역할 수 있음을 입증. 복원·번역 소요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li> </ul>

### 3.3.2.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위의 AI 번역 접목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전번역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인간 번역사의 수작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대규모의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번역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므로 특히 인간과 기계번역의 효율적인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번역 플랫폼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다수의 번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량과 자질, 원문에 대한 이해도, 수행방식, 번역지침 준수 정도, 담당 분야, 작업 분량, 참여 시기 및 기간의 차이 등 각종 상황이 번역 프로젝트의 관리 및 결과물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AI 번역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번역 품질의 관건을 좌우하는 여타의 수많은 요소들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용어 번역의 일관성조차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메타텍스트를 기반으로 원어와 번역어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기계번역 수행용 전문용어집을 번역 메모리(TM: translation memory)로 활용하면 다수의 번역사가 협업하는 상황에서도 번역의 일관성 유지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TM을 더욱 확장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영역을 위한 맞춤형 AI 번역 코퍼스를 구축하면 인간번역사와 기계번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번역의 생산성과 품질평가, 그리고 감수에 이르는 일련의 공동작업의 효율성이 적극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재가공한 AI 번역 코퍼스를 기반으로 심화 및 강화학습 과정을 거쳐서 후속 작업에 투입하면, 번역 결과물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되는 코퍼스의 중간결과물은 그 자체로서 고전 분야는 물론 관련 콘텐츠의 다국어 번역과 교육, 자연어 처리 등의 영역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언어자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포괄하여 실제로 번역작업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이 요구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조선왕조실록』 텍스트 전처리 작업: 텍스트 전처리는 텍스트를 분할하고,

---

23)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35973>

24) <http://www.edpl.com.kr>

언어 감지 및 형태소 분석, 단어 정제 등;

2) 전문용어 및 어휘목록 번역 메모리 생성 과정: 번역지침에 따른 주제별, 분야별 전문용어, 어휘 목록을 구축하여 정확성, 일관성, 효율성 도모;

3) 맞춤형 기계번역 엔진 구축: 『조선왕조실록』의 다양한 특성과 문체, 정제된 전문용어 및 병렬 텍스트 코퍼스 등을 적용하여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강화학습 과정을 거친 맞춤형 번역 시스템 구축;

4) 사전 편집 작업 (pre-editing): 기계 번역 결과물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 후 기계번역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사전 편집 작업을 수행, 그리고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유형별 오류 특성 분석 후 사전편집 작업을 통한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향상 도모;

5) 사후 편집 작업(MTPE): 기계번역 기반의 번역 품질 검사 수행, 그리고 원문과 대조하여 전문용어, 맥락오류, 정확성, 오역, 누락, 의역 등 인간번역사의 기계번역 결과물 보완 및 수정, 편집 작업을 통한 번역 품질 향상 도모;

6) 감수 및 수정: 기계번역 감수 프로그램 활용한 표준 평가 척도 기반의 번역 품질 평가 및 인간번역사/감수자의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감수 및 평가 작업 반복 수행;

7) 종합 감수 및 번역품질 평가 후 프로젝트 마무리 등.

## 4. 연구 요약 및 제언

### 4.1. 연구요약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을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인공지능망 기계번역과 생성형 AI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여 고전 번역에 최적화된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번역 기계학습을 통하여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AI 번역 기술의 발전과 연구에 힘입어 번역가들이 고전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직면해온 시대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혁신적인 AI 번역 기술을 접목하는 시대에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원천 문화권에만 머물러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전 문헌과 문학 작품의 활용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들이 지닌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보다 폭넓은 독자군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최적화된 AI 번역 기술을 접목하여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성과는 『조선왕조실록』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전 문헌과 문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다언어로 거듭날 수 있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활용가능성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동인으로 본고는 『조선왕조실록』의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전 고려사항과 맞춤형 AI 번역 코퍼스 구축, 이에 수반되는 관련 메타 텍스트의 범주, AI 번역 접목 사례와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특화된 맞춤형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과 이에 적용할 메타텍스트의 선정 및 범주에 관한 논의는 고품질의 학습용 코퍼스 구축이 프로젝트 수행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을 언어적인 측면, 규모적인 측면, 저본과 번역본 저술의 시간적인 격차 그리고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방식은 맞춤형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구축과 메타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영어 번역 도서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사료의 가치를 지닌 저서의 번역도서와 저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프로젝트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해서는 AI 번역을 접목한 고전 번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4.2. 제언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먼저 『조선왕조실록』의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 해당 번역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작업에 투입되는 예상 기간과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등을 배분하고 관리해야 한다.

2) 현대어 번역 전략 구축: 원문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현대의 독자들의 가독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원본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독자층 확산을 위하여 언어 및 문화권별 맞춤형 번역전략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3)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 확충 및 협업 시스템 마련: 언어학자, 문화학자, 역사학자, AI 번역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AI 번역 플랫폼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번역품질을 담보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지침 마련에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4) 기술의 활용: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작업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갱신을 통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원활한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번역품질 관리와 검토: 번역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가동되어야 한다. 번역은 초기 작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주석과 해제의 중요성: 600여 년의 시간적인 격차를 극복하고 원본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석과 해제 작업은 필수적이다. 독자가 번역본을 통해 원전의 의미와 문화적 배경 이해를 돕는 역할은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사료에 기반한 주석과 해제는 고전 번역 연구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7) 교육적 가치와 함의성 인식: 고전 번역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서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넘어, 원전에 포괄된 문화와 역사를 전파하고 교육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와 함의성도 지닌다. 특히 고전 번역을 수행할 번역, 해제, 주석, 전문용어 구축, 번역품질 감수 및 측정 등에 투입할 인재 양성과도 직결되므로 프로젝트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부터 인식이 필요하다.

8) 지속 가능한 자원 배분: 장기 프로젝트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배분이 필수적이다. 특히 번역에 필요한 인적자원, 재정, 시간 등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9) 역동적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하고 역동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변화하는 학계의 기준, 기술의 발전, 투입 자원과 재원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의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의 가능성을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AI 기계 번역 기술의 적용 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맞춤형 AI 학습용 코퍼스 구축과 적극적인 메타텍스트의 활용, 그리고 수행 방식에 역점을 두었다. 때문에 AI 번역을 활용한 구체적인 번역 방식이나 전략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논의의 범주에 포괄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번역작업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이 요구되는 과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에 관한 논의 또한 번역 프로젝트 기획 시 종합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를 장기적인 후속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1)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고전번역에 관한 종합 담론; 2) AI 번역 기반 『조선왕조실록』의 영어/다국어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종합기획서 구축; 3) 맞춤형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기반 『조선왕조실록』의 영어/다국어 번역 품질평가; 4) 맞춤형 AI 학습용 번역 코퍼스 구축용 번역 메모리 구축 방법론; 5) 영어/다국어 고전 번역 인적자원 관리 및 수급 방안 등.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번역학 분야의 AI 번역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전번역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는 번역학의 지평을 고전번역 분야로 확장하고 한국(학) 다국어 콘텐츠 구축의 생산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 문헌이 로컬의 영역을 넘어서 글로벌 커뮤니티로 잠재적인 독자층을 확장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인간 번역사와 AI 기계번역의 협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번역학이 인문학의 전통적인 영역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오현. (2021). 「『조선왕조실록』 번역사업과 남북한 체제경쟁: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3): 73-115.
- 권정만, 김학만. (201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통상(通商)의 용례와 언어로서의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9(3): 307-326.
- 김성문. (2018). 「인공지능 시대와 고전문학」. 『문화와융합』 40(6): 129-154.
- 김용철. (2013). 「고전번역학의 학적대상 시론」. 『코기토』(74): 159-189.
- 김우정. (2021). 「고전문언문(古典文言文) 기계번역의 현황과 과제」. 『중국문학』 109(0): 21-51.
- 김우정 외. (2021). 「승정원일기 자동번역 시스템의 활용방안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원. (2006).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 『알타이학보』 16: 1-33.
- 김준연. (2021).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 『중국문학』 106(0): 1-28.
- 박제가. (2011). 『북학의』. 을유문화사.
- 박현주. (2018). 「『조선왕조실록』번역-번역 성과물의 연계성 및 활용 방안 고찰」. 『번역학연구』 19(1): 61-97.
- 신성운. (2009). 「고전번역사업 추진의 효율화 및 성과활용 극대화 방안 기획연구」. 한국고전번역원.
- 서정문. (2011). 「국역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I) & (II). 한국고전번역원.
- 서정화. (2015). 「한국고전번역원의 주석DB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 『민족문화』 45: 69-96.
- 연규동, 이진경, 김은희, 김남사. (2012). 「『조선왕조실록』국역본에 나타난 文字의 번역 문제」. 『인문과학』 96: 45-65.
- 유성룡. 이민수 역. (1994). 『징비록』. 을유문화사.
- 이근우. (2014). 「『조선왕조실록』 일본 관련 자료 번역의 문제점」. 『동북아 문화연구』 1(40): 5-26.
- 이영훈. (2011). 「한국에서의 번역 개념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번역」. 『통번역학연구』 15(1): 129-151.
- 이지은·최효은. (2022). 「인공신경망 특허 기계번역 성능에 관한 연구: Patent Translate와 WIPO Translate 한영 번역 결과물의 누락과 통사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T&I REVIEW』 12(2): 105-130.
- 전현주. (2022). 「인공지능 번역플랫폼 기반 번역가의 직명 및 직무기술의 분화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26(1): 167-193.
- 전현주. (2020).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 패러다임 모색」. 『통번역교육연구』 18(4): 59-96.
- 전현주. (2017a).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261.
- 전현주. (2017b). 「『목민심서』의 영역본(英譯本)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소고(小考): 한국학의 메타텍스트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15(1): 233-255.
- 정만조. (2010). 「승정원일기 번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 정성훈, 하지영, 김우정. (2021). 「한문고전문헌의 기계번역 평가방안 탐색」. 『한문학논집(漢文

- 學論集』 60: 105-155.
- 정성훈. (2019). 「언어학과 기계 번역-한문학 텍스트의 기계 번역과 관련하여. 『한문학논집 (漢文學論集)』 53: 7-38.
- 정약용. (2005). 『정선 목민심서』. 창비.
- 정영미. (2016). 「남북한 『조선왕조실록』 번역 비교 - 『현종실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48: 299-342.
- 진재교. (2008). 「한문고전 번역의 특수성의 안과 밖. 『민족문화』 32(32): 3-42.
- 최미경. (2023). 「메타텍스트, 상호텍스트, 하이퍼 텍스트- 한불고전번역 예를 통해서 본 텍스트성과 번역의 쟁점. 『T&I REVIEW』 13(1): 81-106.
- 최성희. (2019). 『AI시대의 번역: 이론과 실제』. 서울: 세창출판사.
- 한용진. (2017).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교육 관련 용어 분석. 『민족문화연구』 74: 357-380.
- 한국고전번역원. (2022). 『2022 한국고전연감』. 한국고전번역원.
- 허철. (2022). 「고전문헌(한문) 기계번역용 말뭉치 구축 방안 제안. 『중국문학연구』 88: 31 9-340.
- 허철, 배은한, 박용범. (2019). 「한문고전 인공지능 번역 연구의 필요성과 선결 과제. 『한문학논집』 53: 39-54.
- 허철. (2018). 「지식확산의 새로운 경로, 漢文 기계번역의 가능성과 구축 방향에 대한 일견. 『민족문화』 51: 75-113.
- Byonghyon, C. (2022). *Ryu Sŏngnyŏng, Chancellor of Chosŏn Korea: On the Battlefield and in Memory* (Korea Research Monograph 39).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yonghyon, C. Translator and Annotator. (2014). *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ŏn Dynasty*.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ga, P. (Author), Byonghyon, C. (Translator), Seung B. K. (Translator), Timothy V. A. (Translator). (2019). *A Korean Scholar's Rude Awakening in Qing China: Pak Chega's Discourse on Northern Learning* (Korean Classics Library: Historical Materials Book 6). University of Hawaii Press.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7).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http://esillok.history.go.kr/>
- Song-Nyong, Y. (Author), Byonghyon, C. (Author). (2002). *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Korea Research Monograph).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Wu, Y., Schuster, M., Chen, Z., Le, Q. V., Norouzi, M., Macherey, W., ... & Dean, J. (2016). Googl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system: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arXiv preprint arXiv:1609.08144*.
- Yagyong, C. (Author), Byonghyon, C. (Translator). (2010).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Manual for All Administrators First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인터넷 자료]

- 교육플러스. (2021.03.26.). 2억4250만자 '승정원일기' AI로 복원·초벌 번역 성공...고문서 연구 탄력 받나.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023.11.01.검색\)](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023.11.01.검색)).
- 국민일보. (2012.01.10.). 『조선왕조실록』번역.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725734&code=11171211>(2023.10.25.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jsessionid=3FD8C5E1E9EC50021BAE74F2000A7DB0>  
<http://esillok.history.go.kr/about/veritableRecordsInfo.do?lang=ko>  
<http://esillok.history.go.kr/about/veritableRecordsInfo.do?lang=en>(2023.9.25.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장헌대왕실록』. <http://esillok.history.go.kr/>(2023.10.23. 검색).  
 『조선왕조실록』 원본보기.  
[https://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aa\\_000#](https://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aa_000#)(2023.11.05.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2021.12.27.). 보도자료: 한국고전번역원 신역 조선왕조실록 발간. <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44&bIdx=159029&page=1&menuId=102&bc=0>(2023.11.04. 검색)

나무위키. 『조선왕조실록』. <https://namu.wiki/w/%EC%A1%B0%EC%84%A0%EC%99%95%EC%A1%B0%EC%8B%A4%EB%A1%9D>(2023.9.25. 검색).

뉴스팀. (2017.07.20). 시스트란,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술 PNMT 통해 세계 최초 고전문헌-헌대문자동번역시스템 구축.  
<http://www.newsta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02>(2023.2.25. 검색).

다음 정책브리핑. (2017.03.30). 전통의 진화, '세종실록'의 영역(英譯)과 간행.  
<https://v.daum.net/v/20170330133517058>(2023.9.27. 검색).

다음 정책브리핑. (2005.07.18.) 유네스코 등록, 조선왕조실록(1)  
<https://v.daum.net/v/20050718124028846?f=alpha>(2023.11.04. 검색)

서울경제. (2019.09.24.). '조선왕조실록' AI 기술로 번역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DCP03Q9>(2023.09.15. 검색).

아마존. 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ŏn Dynasty. <https://www.amazon.com/Annals-King-Taejo-Founder-Dynasty/dp/0674281306>(2022.01.03. 검색)

연합뉴스. (2021.01.14). 승정원일기 등 한문고전 AI가 번역한다…시범서비스 시작.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072200005>(2023.11.04. 검색).

우리문화신문. (2022.06.29). 인공지능 자동 번역시스템으로 고문헌 번역한다.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35973>(2023.11.01. 검색).

인공지능신문. (2023.09.21.). ETRI, 인공지능으로 한문고서 번역해 문화유산 접근성 높인다.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8968>(2023.11.01. 검색).

전자신문. (2018.04.16). 『조선왕조실록』도 AI로 자동번역... 고전문헌 활용 높다. <https://www.etnews.com/20180416000283>(2023.11.5. 검색).

조선일보. (2018.03.02). 한문 AI 떴다, 승정원일기 3245권 번역 30년 빨라진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0233.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0233.html)(2023.11.5. 검색)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연감』. <https://www.itkc.or.kr/bbs/board.do?id=76&menuId=86#1>(2023.03.15. 검색).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부가열람메뉴」. <https://db.itkc.or.kr/>(2023.11.02. 검색).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https://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record\\_treasure\\_02.jsp?mc=KS\\_01\\_03\\_03](https://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record_treasure_02.jsp?mc=KS_01_03_03)(2023.3.27. 검색).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왕조실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sillok/sub2.do> (2023.3.27. 검색).

- 헬로디디. (2021.01.14.). 읽기 어려운 한문고전, AI가 번역한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77>(2023.11.01. 검색).
- ChatGPT. (2022.11.10.). <https://openai.com/blog/chatgpt>(2023.11.01. 검색).
- KF한국교류재단. (Winter, 2016). INTERVIEW Choi Byong-hyon: Bringing to Life Heroes from Korean Classics. <https://www.koreana.or.kr/koreana/na/nt/selectNttInfo.do?mi=1079&ntSn=50491&bbsId=1121&langTy=KOR>(2023.04.30. 검색).
- Yun-jǒng, S. (2016).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Volume 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ttps://books.google.co.kr/books?id=7ky7swEACAAJ&dq=The+Veritable+Records+of+King+Sejong&hl=en&sa=X&ved=2ahUKEwjMntq46cb9AhWDCN4KHT-1AME4ChDoAXoECAIQAQ>(2023.3.25.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05 November 2023; revised on 20 Nov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

***Author's email address***

transju@shinhan.ac.kr; wisepearl33@gmail.com

***About the author***

Chun Hyunju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Shinhan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project planning for Korean classics based on AI translation platform and constructing its relative AI learning corpus.

# 박사학위논문

##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 세 번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임진(Jin Yim)

이화여자대학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출판시장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경영서 번역가 세 명의 번역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경영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공간인 장의 존재 여부와 작동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경제·경영서가 독립된 분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이다(이운주 2021). 앞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격한 세계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었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경제·경영 지식 수요가 증가했으나 국내에는 이를 충족할 저자 층이 충분치 않았기에(김기욱 2007) 수요의 상당 부분을 번역서가 충당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경영서가 출판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문학을 뛰어넘는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출판번역에 대한 국내 번역학 연구는 연구 분야 측면에서는 문학번역에, 연구자료 면에서는 번역결과물 텍스트와 역자후기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소위 번역학의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Snell-Hornby, 2006: 47-67)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번역사회학 연구 중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척된 부르디외의 장 이론 기반 실증적 연구가 유독 국내에서는 미미하게 이루어졌다(임진, 2020: 173). 이에 본 연구는 장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장(field), 아비투스(habitus), 자본(capital), 일루시오(illusio), 헥시스(hexis)(Bourdieu 1991; Bourdieu

and Wacquant 1992)라는 틀을 바탕으로 삼아 경제·경영서 번역에 종사하는 번역가 A, B, C 세 명을 연구하였으며, 연구자료에 번역결과물 텍스트와 광범위한 결텍스트를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조사로 분석 결과를 검증 및 보강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의 작동 방식을 탐색하고, 이 공간이 부르디외가 정의하는 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찰함으로써 기존 국내 번역사회학 연구의 지평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출판번역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연구대상 번역가들이 번역 실천을 영위해 나가는 전략, 셋째 그 과정에서 타 주체 및 사회구조와 주고받는 상호작용, 넷째 이들의 전략과 상호작용이 실제 이들이 생산한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째 장의 작동 기제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경영서 번역장이 사회적 실천을 위해 주체가 결합하는 부르디외의 장(Bourdieu and Wacquant 1992)에 해당되는지를 논의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연구 방법

상기 제시된 여섯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텍스트의 질적·양적 분석, 심층면접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부르디외와 바캉(Bourdieu and Wacquant 1992)는 장 내 주체의 실천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인 장, 장 내 주체 및 기관이 점유하는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본 분석에 앞서 예비조사의 성격을 띤 문헌조사를 통하여 첫 번째 연구질문인 한국 출판번역장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번역주체의 전략과 상호작용, 이들이 기술하는 핵시스 탐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광범위한 결텍스트를 수집하고, 이를 장 이론의 핵심개념(아비투스, 자본, 일루시오, 핵시스)에 따라 체계적 질적코딩을 수행하여 1차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각 번역주체와의 심층면접에서 1차 결과를 검증 및 보강하였다.

또한 이들이 기술하는 핵시스가 실제 연구대상 번역주체가 생산한 텍스트에 투영되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의 번역서와 원문을 수집하여, 역자후기에 대한 무브분석(move analysis)(Bhatia, 1993)과 번역결과물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수행한 다음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체계적인 질적분석 절차를 도입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장치를 도입하여 질적연구가 가질 수 있는 주관성의 한계를 좁히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3. 분석 결과

상기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3.1. 한국 출판번역장의 작동 방식

본 분석을 위한 예비조사의 일환으로 경제·경영서 번역장의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경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경영서 번역장의 태동이 촉발되었고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번역가들이 경제·경영서 번역가가 된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경영서 번역장이 속하는 출판번역장의 경우 번역서의 상업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직후인 2000년대 초 이후, 급격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구 경제사상에 대한 지식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저자진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경제·경영 분야의 번역서 비중이 높아지고 번역 수요 또한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IMF 관리체제에서 요구되는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인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경제·경영 분야의 지식과 기업활동 경험을 겸비한 고급 인력이 번역장에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번역가 세 명 중 두 명은 구조조정으로 각각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퇴사한 뒤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 번역에 종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경제·경영에 대한 지식 수요 급증으로 경제·경영 전공자를 선호하는 관행 덕분에 장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역가가 번역실천에 종사하게 된 과정에는 사회구조 및 타 주체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 3.2. 세 번역가의 자본축적 전략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번역가의 결텍스트를 수집하여 질적코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층면접을 통해 보강한 결과 경제·경영서 번역장에서 세 번역가가 번역실천을 통해 상이한 자본 축적 과정을 거치지만, 공통적으로 문화자본 축적이라는 전략을 동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경영학 전공지식이라는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장에 입문한 세 번역가는 모두 장에서 번역가로서의 상징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상이한 자본 축적 과정을 거쳤다. 대기업 근무 경력과 사업 경험이 있던 B는 직접 번역에 이전시와 교육기관을 창업하여 사회자본을 확보하였고, 투자 관련 요직을 거쳐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C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둬 상징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을 번역하고자 고군분투했다. 여타의 경험이 없는 A의 경우 SNS 활동을 통해 번역가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갔다.

세 번역가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경영서 번역장에서 중시되는 문화자본인 번역서 및 결텍스트 축적이었다. 기준에 어떠한 책을 번역했는지는 번역가에게 주요한 이력이기에, 각 번역가는 자신이 양서라고 간주하는 책의 번역을 맡기 위하여 번역가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한편 상업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출판사는 번역서 출간에 관련되는 원작자, 원서, 감수자, 추천사 작성자 등 모든 요소의 상징자본을 총동원하여 번역서의 성공을 꾀하려 하고, 번역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번역가 역시 저술 및 강연, 방송 출연, SNS 활동 등의 다양한 결텍스트 축적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3. 세 번역가와 장 내 구성원 및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셋째, 세 번역가가 자본획득 과정에서 장의 사회구조 및 장 내 주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결텍스트 분석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각 번역가는 자신이 축적한 자본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관행의 수용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역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문화자본 축적 과정 역시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경영서의 경우 상업적 성공을 위하여 번역가의 역자후기보다는 유명인의 추천사가 선호되며, 번역가가 역자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는 역자후기에 번역가의 목소리보다는 원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전시 운영자로 출판사와 번역가의 중간자 입장인 B,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해 번역을 수주 받는 A의 경우 이를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C의 경우 경제·경영서 번역장 입문 초기에는 이를 수용했지만, 번역가로 어느 정도 명성을 쌓은 후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자신의 역자후기를 수록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A의 경우 역자후기 지면을 제공받지 못하는 대신, 번역가에게 주어지는 역자 약력 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가의 목소리를 수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 번역가는 좋은 원전을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가라는 공통된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번역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역가 모두 번역가로 자리잡지 못한 장 진입 초기에는 에이전시 또는 출판사에서 수동적으로 번역서 의뢰를 받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번역하지만, 장에서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샘플 번역에 지원하거나(A), 아예 자신이 에이전시를 차려 번역서를 고르거나(B), 자신이 원하는 원전을 번역할 수 있는 출판사를 찾고 번역 기획을 통해 새로운 출판 관행을 구축해 나갔다(C). 이 과정에서 C가 장 진입 전 확보하고 있던 명성이나 인맥 등은 그가 경제·경영서 출판장 고유의 이해관계인 번역능력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한 후에야 유효했다.

### 3.4. 세 번역가의 헤시스

결텍스트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세 번역가의 상이한 원문 중시 헤시스를 코퍼스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A와 B가 C에 비해 원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는 원문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는 번역관과 원문 중심의 역자후기를 작성하며, C는 목표어 중심으로 원문의 구조를 변형하는 번역관과 번역가의 목소리를 역자후기에 반영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번역가가 생산한 번역결과물 20편과 원전 20편씩 총 120편(원전 60

편, 번역서 60편)의 첫 장을 표본으로 하는 번역결과물 코퍼스와 세 번역가의 역자후기 전편을 수집한 역자후기 코퍼스를 구축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의 전체 원문변형 빈도 및 삭제, 문장분할, 자국화 전략 비중이 A, B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 B의 경우 문장병합 및 이국화 전략 비중이 C보다 높았다. 이는 세 번역가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역자후기의 경우 번역에 대한 내용이나 번역가의 목소리가 B의 역자후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C의 경우 31%를 차지하였고, A의 경우 역자후기 빈도가 적어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웠다. 이 역시 각 번역가들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C의 목표어 중시 경향은 그가 번역을 습득한 주요 수단인 이론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 B의 원문 중시 핵심어는 번역교육 방향 및 급격한 서구 이론 유입이라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3.5.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무엇이며, 이는 장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경제·경영 전문지식과 번역능력을 갖춘 번역가들이 번역능력을 기반으로 번역서 선택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이러한 투쟁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장 내 투쟁에 참여하는 번역가들이 좋은 책을 번역하는 것이 번역가로 성공하는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자본을 위한 경합이 벌어지는 장이라는 부르디외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번역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는 번역사회학 내에서조차 번역은 부차적, 비제도적인 실천이며 진입장벽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경영서 번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진입 요건으로 하고, 번역능력이라는 고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장 내 주체들이 양질의 원전을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가라는 공통의 일루시오를 공유하는 상징자본 투쟁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부르디외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적 실천의 공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 4. 결론

본 연구는 개별 번역가의 번역 실천을 상세하게 추적하여 경제·경영서 번역장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번역사회학적 연구로, 그 주제 및 분석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번역결과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해당 결과물이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 및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추적을 결합한 번역사회학 연구로, 연구 자료를 다양한 결테스트로 확대하고,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과 절차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연구 모델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번역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번역학 연구의 양적, 질적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번역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는 출판번역의 하위 분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경영서 번역장에서 번역가가 장에 입문하여 번역가로 명성을 쌓기까지의 경력 발전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또한 실제 번역결과물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번역 전략의 예와 함께 이들이 해당 번역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번역 학습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구체적 실례를 통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번역가의 번역실천을 연구의 중심에 둬으로써 궁극적으로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며, 번역이 주요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번역사회학 연구가 부디 다양한 번역 분야와 번역가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기옥. (2007). 「성숙시장으로 가는 경제·경영서」. 『출판저널』 380: 26.
- 이윤주. (2021). 「‘수학의 정석도 따라잡겠다’...코로나 불황에 ‘경제·경영서’ 역대급 인기」. 『한국일보』 2021년 12월 7일. (2023년 10월 23일 검색,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514140004159?did=kk>)
- 임진. (2021). 「어느 실용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통번역학연구』 24: 167-199.
- Bhatia, V. K. (1993). *Analyzing Genre*. London: Longman.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 Bourdieu, P. and Wacquant, L.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nell-Hornby, M.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본 초록은 ‘임진. (2023).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 *Author's email address*

[jy2812@gmail.com](mailto:jy2812@gmail.com)

### *About the author*

Jin Yim(<https://orcid.org/0009-0005-4335-3329>) is an adjunct lecture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sociological approaches to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actices, and corpus-based analyses of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정 2014. 3. 2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본교의 생명윤리규정은 연구의 질 자체와 무관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부정행위와 구분하나 본 위원회는 일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헐박하는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⑥ 기타 통번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IRB 승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4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6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의 원칙**

**제20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23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Adopted on March 24, 2014

##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bylaws is the regulation of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hereinafter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and their research ethics, whose objectives are to establish academic integrity, to prevent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and to implement the tasks of identifying, determining and enforcing compliance issues in accordance to Article 14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se bylaws shall apply to all who conduct academic research in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 to the Institute's research activities.

### **Article 3 (Definitions)**

1.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hereinafter “misconduct”) refers to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the like in regards to the proposal and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s code of ethics classifies acts that violate research ethics but do not affec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s inappropriate acts in academic research and distinguishes such acts from the classification of misconduct. However, the Committee shall classify all acts of dishonesty as misconduct, setting out the following definitions.

- ①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data or research findings that do not exist.
-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es and the like or arbitrarily changing or deleting data to distort the research contents or findings.

-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copying others’ papers, patents, ideas and other intellectual creation or research contents and findings without proper consent or citation.
  - ④ “Unfair authorship” refers to the act of either not listing an individual who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s an author for no justifiable reason, or granting authorship to those who played no significant role in the work for reasons such as expressing gratitude or deference.
  - ⑤ The act of proposing to or pressuring another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shall also be considered misconduct.
  - ⑥ Misconduct also refers to any and all acts of serious deviation from the generally accepted extents of the academic fie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⑦ Misconduct also refers to the act of urging, pressuring or threatening someone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2.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ny circumstance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the publication of papers has a financial stake or is involved in personal connections with a certain paper.
  3. “Informant”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first notifies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 of the fact that an act of misconduct has come to his or her knowledge or who provides evidence of someone's misconduct.
  4.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under investigation for suspicions of misconduct that had either been reported or come to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s knowledge, or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have come under investigation because their potential involvement in an act of misconduct was un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investigation. The term does not refer to the witnes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5.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an official investigation needs to be launched on particular allegations of misconduct.
  6.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are true or not.
  7. “Decision” refers to the procedure of conclu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notifying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f the findings.

**Article 4 (IRB approval)** In the case where research i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and therefore, an approval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 is required, the contributor shall obtain approval for research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nd faithfully conduct research according to an approved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 editor may request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or IRB approval, if necessary.

**Article 5 (Conflict of interest)** If the contributor has any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ertain financial benefits, with regard to the topic of a paper, they shall specify this on the title page and notify the editorial board of such matters in a written statement.

**Article 6 (Participa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f the co-author(s) of a research paper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minor (under the age of 19), or a family member (e.g., any of relatives within the fourth-degree relationship, such as spouse or offspring),” the principal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shall disclo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author(s) and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has joined the research as a co-author. Any violation of this rule by the contributor shall be considered misconduct and be subjected to deliberation. In addition, if the explanation for this reason is not stated clear or reasonable, the editorial board may refuse to accept the paper in question. Additionally, when misconduct aroused from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a co-author is confirmed, such misconduct shall be informed to affiliated institutions (e.g., college entrance-related institutions or research-related institutes) wher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research. Disclosure of misconduct is based on prior consent obtaine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specified in “Disclosure Form of Research Participation Pla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Pre-release Form of Co-authoring a Publication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provided by the Institute.

**Article 7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The Committee shall conduct research ethics education via online and offline channels, such as an academic conference, email, or an online forum.

**Article 8 (Function)**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cademic integrity policies
2. Matters relating to the decision to launch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investigation findings
3. Matter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Matters relating to approval of request for a re-investigation

5.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nt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6. Matters relating to processing the results of academic integrity validation and the follow-up measures
7. Other matters a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 **Section 2.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Article 9 (Organization, etc.)**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nine memb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 editorial board from among the head of the editorial boar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ard and researchers and who are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Article 10 (Members and chairperson)**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can also serve as the chairperson and appoint more than three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appoint more than two members from outside the Institute. However, interested parties to the matter under investigation cannot be included. The terms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two years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rticle 11 (Exclusion, recusal, and evas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1.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applicable, the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member or a chair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 the year.
  - ① Anyone who is in a relative relationship defined by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② Anyone who has been in a teacher-pupil relationship or co-authored research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③ Anyone who might compromis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2.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informant of the list of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before the main investigation is initiated and accept the informant's petition for recusal of a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if their petition is fil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excuse.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ed if the informant is unable to be contacted under circumstances caused by the informant. In this case, such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findings report.

3. If a member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has a conflicting interest in the research under investigation, they shall request for evasion voluntarily.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In cases when necessary because of the specialty of the investigation or validation, the Committee can appoint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Article 13 (Meetings)**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Committe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 meetings.
2. The quorum for a meeting shall be attended by at least one-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a resolution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two-thirds of those attending.
3. When the agenda under review is acknowledged by the chairperson to be a minor matter, it can be reviewed in writing.
4. When acknowledged by the Committee to be needed, a related party can be summoned for opinion.

### **Section 3. Validation of Academic Integrity**

**Article 14 (Receipt of report)** Reports of misconduct shall only be received when using one's real name and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Article 15 (Preliminary investigation)**

1. The Committee shall for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members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2.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but the Committee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3.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30 days of launching an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decision to whether launch a main investig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 ④ Relevant evidence material
- ⑤ Confirmation of whether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prescription period

**Article 16 (Main investigation)**

1. Should the Committee decide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a main investigation is necessary, it shall form a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of approving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2.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at least four professional expert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and at least two outside members for the sak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3.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90 days of launching its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except in cases of anonymous reports)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role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the allegations are true
  - ④ Evidence material and list of witnesses
  - ⑤ Objections or arguments either by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the results of processing such objections or arguments
  - ⑥ List of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Should the need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rise, the investigation period can be extend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5. Specific guidelines needed for individual investigation activitie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mmittee approval.
6. Records related to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 stored for five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 **Article 17 (Measures following investigation findings)**

1.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2.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does not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take measures to rehabilitate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3. The Committee can recommen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a member of the Institute who, as an informant, had made a report against the truth, disregarding facts that went against his or her statement or testimony, whether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4. The specifics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s mentioned in clauses 1 and 3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n author who is found to be violating research ethics shall not submit their papers to this journal for five years an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reviewing the submitted papers as a reviewe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undue delay, notify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and the informant of the Committee's decision on the investigation findings in writing.

**Article 19 (Re-investigation)** Should eithe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r the informant appeal the Committee's decision, he or she can request a re-investigation by presenting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Committee 30 days within having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 **Chapter 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ticle 20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Both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be guaranteed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of statement, objection and argument and be informed of the related process in advance.

#### **Article 21 (Attendance and request for evidence)**

1. According to what is needed in the investigation, the informant,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witnesses and the like may be requested to attend a meeting to give

a testimony to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accede to such a request.

2. During investigation,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required to submit relevant data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data, substantial measures could be taken such as restricting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from entering the research lab or seizing and keeping relevant research data.

#### **Article 22 (Confidentiality)**

1. The Committee under no circumstance shall expose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ensu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s protected until the investigation findings are concluded.
2. Any and all matters related to reports, investigations, reviews and deliberations as well as actions proposed are to be confidential. However, when a considerable ne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rises, such as a request from a government entity, the matter could be disclosed after a Committee resolution.
3. All committee members and persons who hav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committee members shall keep confidential all the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voting and executing tasks and the duty to hol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fidence shall remain in effect even after the individual is no longer in the position.

**Article 23 (Protection of the informant)** The Committee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acts of retaliation against the informant and when such an act of retaliation occurs, shall inform the chairperson of such fact and recommend the chairperson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2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장 심사 규정

### 제3조(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율이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 제4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한다.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2. 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두 명의 심사위원 모두 ‘계재’ 또는 ‘수정 후 계재’를 결정해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계재 가: 90점 이상, 수정 후 계재: 70점 이상-90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60점 이상~70점 미만, 계재 불가: 60점 미만
4. ‘수정 후 계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시한까지 재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한다. 정해진 기일까지 미제출 시 ‘계재불가’로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논문은 ‘계재불가’로 처리된다. 단, 투고자 전체의 심사 결과와 게재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5.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심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영문초록 감수는 연구소에서 임명한 감수위원을 통해 반드시 감수한 후 발행한다.

#### 제5조(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① 독창성: 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참신해야 한다.

- 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 제6조(복리부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복리부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 제3장 발행 규정

**제7조(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 규정이라 한다.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발행시기)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 제10조(발행인)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역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논문집명, 발행년도 및 발행권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규정,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 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 제4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 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Adopted on March 24, 2014

## **Section 1.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 **Article 1 (Name and composition)**

1.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the Editorial Board (hereinafter “Board”) is organized to review matter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journals and books; to chart the course of the academic journal that is periodically publish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in addition to submitting and reviewing papers for the journal and; to implement task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shing of selected articles. The Board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members both from within and out of the university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among the members.
2.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shall be two years and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In order to take care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Board, a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to take and keep minutes of the Board.

### **Article 2 (Function)**

1.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for article submission and review.
2. The chairperson shall request the selection of reviewers for papers submitted. The Board shall refer to the review results and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publish the paper. The Board shall meet periodically but members can submit a written letter to count as attendance. Resolution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from over th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 **Section 2. Bylaws for Publication Review**

### **Article 3 (Submission of paper)**

1. Submission of papers is possible until the last day that was announced. The chairperson shall immediately upon arrival of the submitted paper, confirm the receipt of the paper and send confirmation to the submitter.
2. Papers that do not adhere to rules regarding submission or composition shall not be accepted.
3. Pledge of Compliance for Research Ethics (obtained through the online system if the paper is submitted online), Consent to the Use of Copyrighted Content, and the dissertation plagiarism checker report shall be submitted upon paper submission. A similarity of 15 percent or below is acceptable.
4.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participate in research as a co-author, such information shall be reported by indicating in a prescribed form.

### **Article 4 (Procedures)**

1. The reviewers are selected primarily from Board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with outstanding academic records in the relevant field of study. Contributors to the journal for which paper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pool of reviewers.
2. Mutual evasion in kinship as reviewers  
Once the paper is submitted, the contributor may suggest a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with a reasonable excuse. If any of the reviewers selected by the Board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presented by the contributor, the Board shall exclude them in the selection of reviewers. In the case where none of the reviewers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those who are selected by the Board are appointed as reviewers.
3. Each paper submitted shall be given to at least two undisclosed reviewers to be evaluated. Only when two or more reviewers decide to accept the paper, either unconditionally or upon condition of revision, shall the paper be published based upon the final decision by the Board. The rating scale is as follows:  
Publish: 90 points or higher; Publish after revision (minor revision): 70 to less than 90 points; Re-review after revision (major revision): 60 to less than 70 points; Reject publication: less than 60 points
4. The paper rated as "publish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after revising the paper by taking into account reviewers' comments along with a revision response

letter. The paper rated as “re-review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to the Editorial Board with a revised manuscript and written responses to reviewers’ comments by a deadline set by the Editorial Board, and the contributor shall put forth a request for re-review. If the result of the re-review is “re-review after revision” again, the paper will be treated as unpublishable. It should be noted that re-review may not be offered in consid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of all contributors and the submission to publication ratio. In this case, the contributor may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to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taking account of all comments by the reviewers. The paper rated as “reject publication” may be re-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revision.

5. Each reviewer shall evaluate the papers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filling out an evaluation form included in the request form for review. He or she shall describe in detail the grounds for his or her evaluation.
6.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uthors immediately by the Institute under its name.
7. In the case where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evaluation results, the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eal” and publicatio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Board.
8. Abstracts in English shall be published only when the editors appointed by the Institute have reviewed them.

#### **Article 5 (Criteria for evaluation)**

1. Submitted papers shall be evaluated in a fair and strict manner with the following criteria.
  - ① Originality: The contents and subject of the paper must be new and original, not having been published elsewhere either domestically or abroad.
  - ② Logic: The composition and flow of the paper must be logical and clear.
  - ③ Appropriacy: The paper must contain creative and new critique, analysis and proposal regarding the field of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e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meth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submission rules.
  - ④ Academic contribution: The paper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guiding and developing the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n abstract in English submitted to the journal is largely evaluated based on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tent quality, and format quality.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on are as follows:

- ①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formity to grammatical rules, idiomatic English usage, adoption of appropriate English academic terms, and coherence and cohesion of the English text
- ② Content quality: Appropriateness of the paper title in English, whether the abstract describes the gist of the paper in a compressed manner without omission, and whether research findings are precisely stated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research
- ③ Format quality: Conformity to a specific format specified by the journal including English font, text size, and spacing, the number of keywords and format conformity, and conformity to a word limit for the abstract in English

**Article 6 (Book Review and PhD Thesis Abstract)**

1.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I research results and encouraging research efforts by young researchers, book reviews and PhD thesis abstracts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without being subjected to any official review process.

### **Section 3. Publication Rules**

**Article 7 (Name)** These provisions are the publication rules for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rticle 8 (Purpose)** These provisions determine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and regulate related tasks.

**Article 9 (Publication date)** 「T&I Review」is published once annually on 30 June, but the number of publication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need.

**Article 10 (Publisher)**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T&I Review」shall be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Article 11 (Copyrights)** Submitted papers shall not be return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been published or not. Copyrights to the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shared by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Copyrights includ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the right of transmission. Therefore, should anyone intend to republish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he or she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in advance.

**Article 12 (Format)** The format of the journal is as follows.

1. On the front cover of the journal, the title should be stated in Korean and in English. The issue number, publishing entity and its logo, the date and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and the ISSN should also be marked.
2. The journal must contain a table of contents, a list of keywords, academic papers, guidelines for papers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eer Review, submission rules, academic research ethic rules) and the list of editors.
3. At the end of each published paper, the date of contribution,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mended version after no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date of acceptance should be stated.

## **Section 4 Other Provision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1.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any issues that occurred while writing the paper lies with the author. The evaluation is to be done anonymously so any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uthor should not be revealed.
2. Reviewer's responsibilities: The reviewer needs to put forth a judgment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being reviewed along with the evidence for such judgment, as well as point out any errors or issues and suggest points of improvements. When needed, the reviewer can consult other experts for advice. The Board and the reviewer acknowledges the author's copyrights on the paper and cannot use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in advance. Also, when evaluating a paper, the reviewer shall not make any personal attacks on the author or use insulting expressions.

###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 **Addendum (Revised on March 20, 2017)**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0, 2017.

**Addendum (Revised on June 20, 2019)**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0, 2019.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Addendum (Revised on October 25, 2022)**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5, 2022.

##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 기고문은 논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논문은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영문초록은 약 150 단어 내외로 영어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국어 (또는 논문 작성 언어)로 각각 5 개 표기한다.
4. 글자모양: 한글은 HY 신명조, 단 영문 및 불문텍스트는 Times New Roman, 중국어텍스트는 SimSun, 일본어텍스트는 MS Mincho 로 한다.
5. 문자모양: 본문과 초록은 양쪽 맞춤으로, 논문 제목과 최상위 단락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하며, 초록 상단 저자명과 소속은 오른쪽 맞춤으로 한다.
6. 줄 간격 및 여백: 줄 간격은 1.5 로 한다. 마침표나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운다.
7. 들여쓰기: 새로운 문단 시작은 10pt 들여쓰기 한다.
8.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단락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단락으로 나눈다. 상하위 제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논문 제목 = 14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 아래 한 줄 띄운다.  
최상위 제목 = 11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위 단락과 두 줄 띄우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예, 1., 2. )  
두 번째 제목 = 10pt 로 굵게 한다. 왼쪽정렬하고 아래 위 각 한 줄씩 띄운다. (예, 1.1., 1.2.)  
세 번째 제목 = 10pt 로 굵게 한다. 왼쪽정렬하고 위 단락과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기 없이 본문을 시작한다. (예, 1.1.1., 1.1.2.)  
본문 = 10pt
9. 초록= 영문으로 작성하며, Times New Roman 10point. 이탤릭체로 양쪽 맞춤하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10.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1cm 들여쓰기 하고, 영문으로 된 인용문은 동일한 방식으로 들여쓰기 하고 이탤릭체로 한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글씨크기는 8pt 로 한다.
11. 표와 그림은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간략한 제목을 단다. 본문에서 반드시 표와 그림을 지칭해야 한다. 표는 표 1.의 형태로 표 위에 위치시키고, 그림은 그림 1.의 형태로 그림 아래에 위치시키며 본문 내에 관련 단락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표와 그림 아래 한 줄 띄운다.
12. 각주는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8pt 로 한다.

13.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되 미출판물과 개인서신 등은 제외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논문의 경우 국내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참고문헌 예시>

이지은. (2015).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T&I Review』 5: 93-120.

김혜림·장애리·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14. 국문으로 작성하는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본문 중에 인용되는 경우: 처음 등장 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두 번째 등장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1) 질(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이다. 이와 함께 질(1994)은 동시통역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서.....를 언급하였다.

예 2) 2019 년에 발표된 왕샹링(王湘玲)과 양옌샤(杨艳霞)의 중국의 기계번역 연구에 따르면...임을 알 수 있다 ... 선행연구는 왕샹링과 양옌샤가 2019 년에 발표한 2 편의 논문으로...

예 3) 와타나베(渡辺 2018)는....라고 주장하였다. 와타나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2) 직접 인용 아닌 경우(괄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원어로 표기하고 3 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이미 다수의 번역학 및 기계번역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학술 지로서....

15.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 Review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 소유자이지만 초판 발행 및 전자출판을 본 학술지에 허가한다.

16. 이전에 출판된 원고나 다른 학술지 심사 중인 원고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출판물의 수정본일 경우 세부사항을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17. 모든 투고는 상호심사를 받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자의 코멘트와 수정에 관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송달하여 마감기한까지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18.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직위, 영문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한글 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9.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메일 연락처와 약력 및 연구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재한다.

20. 투고와 심사와 관련된 교신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이메일(erits@ewha.ac.kr 또는 tnirvw@kakao.com)로 한다.

21. 투고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2.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1 편당 대학(원)생은 10 만원, 강사는 15 만원, 그 외의 투고자(독립연구자 등 일반인 포함)는 20 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공동논문의 경우에는 제 1 저자의 신분에 기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 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23. 논문집(pdf)에 인쇄된 상태로 30 면 이상인 경우부터 1 면당 1 만원의 추가 게재료가 청구된다. 40 면 이상인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게재 거부 등의 조치)을 요청할 수 있다.



---

## Guidelines for Contributors

1. Manuscript format: Microsoft Word
2. Languages: English, Korean, Chinese, French, Japanese
3. Length: Approximately 7,000 words in English and French; approximately 15 pages (A4 size)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bstracts should be approx. 150 words in English. Five keywords in English should be provided.
4. Font: 12pt English, French: Times New Roman, Chinese: 10pt SimSun, Japanese: 10pt MS Mincho
5. Justification: Title, section headings, including references and appendix, should be center-aligned.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which should be placed between the title and the abstract, must be right-aligned. Abstract, keywords, and the text must be aligned at both the left and right margins (full justification). All new paragraphs must be indented 1cm.
6. Spacing: Single line spacing throughout. Use a single space following a period or colon.
7. Title: 14pt bold, one line space below.
8. Articles should be divided into sections and subsections as necessary. Please mark the hierarchy of subheadings as follows:
  - Heading A** = bold, center-aligned, two lines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 Heading B** = Italics, bold,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 Heading C** = Italics,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text on new line, no line space below.
  - Abstract** = Italic: left 1cm, right 1cm,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9. Quotations over 40 words should be indented (left and right 1cm) and italicized without quotation marks. Short quotations in the text itself should be marked with quotation marks.
10. Spelling conventions should be consistent (either American English or British English). Proofreading is required before submission.
11. The fir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the title,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position, abstract, and text.
12. The la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a brief biographical sketch of the author or authors. Email addresses for each author should also be provided.
13.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provided with brief caption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referred to in the main text. All illustrations, figures, and tables should be placed within the text rather than at the end of it. Titles for tables and figures should precede the tables and figures and one line spacing is required between the table or figure and the following paragraph.
14. Footnot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should be kept to a minimum.

15. Referencing style: APA (see examples in “Referencing style” section below). References should list all references cited in the article. All references must b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except for unpublished items such as correspondence.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and chronologically.
16. The author should obtain any necessary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and/or ethical clearance necessary for the publication of their papers. The author(s) retains copyright of articles but grants T&I Review right of first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
17. The manuscript should no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nor be under review by another journal. However, a revised version of a previous publication will be considered if accompanied with proper acknowledgment.
18. All contributions will be subjected to a double blind peer-review process. Reviewers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anuscript is ready for publication with/without revisions. Comment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s, if needed, will be sent to the author and the author will be requested to provide a final draft of the manuscript by the due date.
19. Manuscripts and all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electronically to:  
erits@ewha.ac.kr

---

## Referencing Style

### References in the text (Provide page references where necessary)

Gile's (1995) Effort Model for translation...

Goffman (1981: 8) states that ...

According to Kiraly (1995: 7),...

이범수와 김민영(2006: 23)에 따르면

Gonzalez et al. (1991: 100) demonstrate that...

... (Denton and Hahn 1986; Dorsey 2008), (이창수 2000; 김순미 2002; 김순영 2005 등)

### End-text referencing (English references followed by non-English references)

**Hanging indent (1cm):** The first line of each reference is fully left justified while subsequent lines are indented to the right. The width of the hanging indent should be 1cm.

#### Single author:

Gile, D. (2010).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2<sup>nd</sup> ed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Hale, S. B.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ee, J. (2009a).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Lee, J. (2009b). Interpreting in 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30(1): 93-114.

王华树. (2009). 『翻译技术实践』. 北京: 外文出版社.

原子郎. (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 筑摩書房.

#### Multiple authors: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dited volumes:

Gile, D. (1994). Methodological aspect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search. In Lambert, S. and B.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56.

Hale, S., Ozolins, U. and Stern, L. (eds.) (2009). *The Critical Link 5: Quality in Interpreting- A Shared Responsibil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Articles in journals:

Chang, C. and Schallert, D. L. (2007). The impact of directionality o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37-176.

王湘玲, 杨艳霞. (2019). 「国内60年机器翻译研究探索——基于外语类核心期刊的分析」. 『湖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33(4): 90-96.

藤井章雄. (1972). 「ニュース翻訳の一考察」. 『時事英語学研究』第11号: 99-112. 時事英学研究会.

**Unpublished thesis:**

Kim, M. (2007). *Discourse-based Study on Theme in Korean and Textual Meaning in Transl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Conference papers:**

Anderson, V. (1991, April). Training teachers to foster active reading strategies in reading-disable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Electronic sources:**

AUSIT. (n.d.). AUSIT Guidelines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with Interpreters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ausit.org/pics/HealthGuide08.pdf> on date month yyyy.

김세화. (2023. 4. 12.).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1년 새 30% 급감」. 『IT Times』. <https://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27>(2023. 7. 20. 검색)

**Articles in newspapers & magazines:**

Delaney, K. J., Karnitschnig, M., and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e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Translated books:**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Proceedings:**

Nicholson, N. S. (2008). Court interpreting in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8<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Proceedings.

**Non-English references:**

Lee, W. (2000). *Discourse Analysis*. Seoul: Hankukmunhwasa.

Lee, H. (1999). Efficient methods for vocabulary teaching. In Lee, H. (eds.),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eoul: Hankukmunhwasa, 185-204.

Won, J. (2010). Directionality i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strategi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12(1): 131-156.

Lee, B. and Kim, M. (2006). A Rhetorical Analysis of President Roh Moo-Hyun's Inaugural Address. *Korean Journal of Rhetoric* 4: 179-209.

Shin, J. (2006). *A Study on 'Norm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Yang, C. (2007). *Interpret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J. Son, Y. Kim, and H. Ahn, Trans.). Seoul: Hankukmunhwasa.

Laktorin-Inoue, K. (1991). Kōkusaikajidai no tsuyakukyōiku - totaaru komiyūnikēeshion no susume (Interpreter training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 Towards total communication). *Kiyō* 25: 23-61.

**T&I Review** is a refereed journal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ERITS), which see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effective T&I education and excellence in professional practice by sharing the results of systemic and innovative research.

Published on December 31, 2023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60

Tel: +82 2 3277 3704 or 3705 or 4087 Fax: +82 2 3277 4017

E-mail: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Website: [www.erits.net](http://www.erits.net)

### **Submission**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tnirvw@kakao.com](mailto:tnirvw@kakao.com)

<https://erits.jams.or.kr>

Subject: Contribution to T&I Review

### **Photocopying and reprint permission**

Photocopies of extracts from this journal may be made without charge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provided that full acknowledgment is made of the source. Reprints in any form of publications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T&I Review**는 통번역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올바른 통번역을 실천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Tel: 02-3277-3704, 3705, 4087 Fax: 02-3277-4017

이메일: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홈페이지: [www.erits.net](http://www.erits.net)

투고:

<https://erits.jams.or.kr> 에 회원가입 후 투고하거나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으로 이메일을 통해 투고한다.

이메일 제목은 [T&I Review 투고] 라고 명기한다.

저작권 및 재출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학술지 일부를 복사할 경우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무료로 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재출판은 발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SSN 2233-9221**

Copyright© 2023 by ERITS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Designed by **JeilMunWhaSa**